

서남권 종합발전 기본구상

2019. 5.



목포시



목포상공회의소

提出文

목포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남권 종합발전 기본구상」 최종성과품
으로 제출합니다.

2019년 5월

광주전남연구원장

CONTENTS

01 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배경, 목적 및 방향 3
- 2. 계획의 범위 및 수행체계 7

02 지역 여건 및 잠재력 분석

- 1. 서남권 일반현황 11
- 2. 지역발전 사례분석 33
- 3. 여건변화 및 지역발전 잠재력 48

03 서남권 비전 및 전략 방향

- 1. 서남권 비전 및 전략목표 65
- 2. 서남권 지역발전 구도 70

04 중점과제별 기본구상

- 1. 서남권경제공동체 그랜드디자인 실현 75
- 2.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173
- 3.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213

05 계획의 추진 방안

- 1.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247
- 2. 민간자본 유치 촉진 방안 252
- 3. 계획의 실행력 강화 방안 257

CONTENTS 표 차례

| | |
|--------------------------------------|----|
| 〈표 II-1〉 전남 서남권 하천 현황 | 14 |
| 〈표 II-2〉 전남 서남권 도서 및 해안선 현황 | 15 |
| 〈표 II-3〉 전남 서남권 인구구조 변화 | 17 |
| 〈표 II-4〉 전남 서남권 인구현황 | 18 |
| 〈표 II-5〉 전남 서남권 장래인구 전망 | 18 |
| 〈표 II-6〉 전남 서남권 인구이동 현황 | 19 |
| 〈표 II-7〉 전남 서남권 경제활동 | 20 |
| 〈표 II-8〉 전남 서남권 산업구조 | 21 |
| 〈표 II-9〉 서남권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 22 |
| 〈표 II-10〉 서남권 산업단지 현황 | 23 |
| 〈표 II-11〉 서남권 문화재 지정 현황 | 26 |
| 〈표 II-12〉 서남권 문화서비스 시설 현황 | 27 |
| 〈표 II-13〉 서남권 관광자원 현황 | 28 |
| 〈표 II-14〉 서남권 시군별 관광객 추이 | 29 |
| 〈표 II-15〉 서남권 주택 현황 | 30 |
| 〈표 II-16〉 서남권 상·하수도 보급률 | 31 |
| 〈표 II-17〉 서남권 학제별 교육지표 현황 | 31 |
| 〈표 II-18〉 서남권 시군별 의료시설 현황 | 32 |
| 〈표 IV-1〉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득 현황 | 79 |
| 〈표 IV-2〉 해상풍력지원센터 주요 기능 | 80 |
| 〈표 IV-3〉 한빛원전의 설계수명 | 84 |
| 〈표 IV-4〉 주요 선종별 세계 선박수리 시장 규모 | 96 |
| 〈표 IV-5〉 주요 선종별 세계 선박수리 시장 규모 | 96 |
| 〈표 IV-6〉 수리조선 사업과 신조선 사업의 비교 | 97 |

CONTENTS 표 차례

| | |
|--|-----|
| 〈표 IV-7〉 LNG 선박과 LPG 선박의 비교 | 105 |
| 〈표 IV-8〉 국내 요트·보트 제조업체 현황 | 111 |
| 〈표 IV-9〉 국가별 요트·보트 보유 현황 비교 | 111 |
| 〈표 IV-10〉 주요 국가별 요트·보트 수입 현황 | 112 |
| 〈표 IV-11〉 우리나라 조선방위 사업체 현황 | 119 |
| 〈표 IV-12〉 서남권 연안크루즈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안) | 146 |
| 〈표 IV-13〉 패각 활용 신소재사업화 사례(일본) | 161 |
| 〈표 IV-14〉 서남권 그랜드프로젝트 공약사항 연계 현황 | 172 |
| 〈표 IV-15〉 전남 도서지역 제한·운반급수 현황 | 180 |
| 〈표 IV-16〉 서남권 수중문화재 보관현황 | 205 |

CONTENTS 그림 차례

| | |
|--|----|
| 〈그림 Ⅰ-1〉 한반도 신경제 구상도 | 4 |
| 〈그림 Ⅰ-2〉 과업의 공간적 범위 | 7 |
| 〈그림 Ⅱ-1〉 전남 서남권 교통망 | 11 |
| 〈그림 Ⅱ-2〉 전남 서남권 면적 | 12 |
| 〈그림 Ⅱ-3〉 전남 서남권 지역 및 지세 | 13 |
| 〈그림 Ⅱ-4〉 전남 서남권 하천 현황 | 14 |
| 〈그림 Ⅱ-5〉 전남 서남권 갯벌 유형 | 16 |
| 〈그림 Ⅱ-6〉 서남권 인구변화 추이 | 17 |
| 〈그림 Ⅱ-7〉 전남 서남권 산업지표 비중 | 21 |
| 〈그림 Ⅱ-8〉 서남권 산업단지 위치도 | 24 |
| 〈그림 Ⅱ-9〉 지리정보 분석에 의한 개발지역 선별 | 24 |
| 〈그림 Ⅱ-10〉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누적 발전설비 용량 | 25 |
| 〈그림 Ⅱ-11〉 서남권 문화자원 현황 | 27 |
| 〈그림 Ⅱ-12〉 서남권 관광자원 위치도 | 28 |
| 〈그림 Ⅱ-13〉 서남권 주요 관광지 관광객 현황 | 29 |
| 〈그림 Ⅱ-14〉 시도간 산업협력권 프로젝트 | 49 |
| 〈그림 Ⅱ-15〉 한반도 신경제 구상도 | 50 |
| 〈그림 Ⅱ-16〉 지역별 산·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발전량 | 52 |
| 〈그림 Ⅲ-1〉 서남권 비전 체계도 | 69 |
| 〈그림 Ⅲ-2〉 서남권 지역발전 구도 | 72 |
| 〈그림 Ⅳ-1〉 서남권 7대 미래성장동력 | 75 |
| 〈그림 Ⅳ-2〉 유럽의 해상풍력 신규 및 누적 설치 용량 | 77 |
| 〈그림 Ⅳ-3〉 국내 해상풍력 자원 분포 | 78 |
| 〈그림 Ⅳ-4〉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조성 사업 후보지 | 79 |

CONTENTS 그림 차례

| | |
|--|-----|
| 〈그림 IV-5〉 해상풍력 부품 생산 구조 | 81 |
| 〈그림 IV-6〉 해상풍력발전산업 지원을 위한 거점항만 육성 계획 사례 (일본 히비키 항만) | 81 |
| 〈그림 IV-7〉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 83 |
| 〈그림 IV-8〉 서남권 에너지자립섬 조성 사례 | 85 |
| 〈그림 IV-9〉 서남권 주요 도서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가능지역 .. | 86 |
| 〈그림 IV-10〉 농촌·염전·수상태양광 발전시설 | 87 |
| 〈그림 IV-11〉 마이크로그리드 개념도 | 87 |
| 〈그림 IV-12〉 원전해체 핵심기술 현황 | 88 |
| 〈그림 IV-13〉 수소경제 활성화 비전 체계 | 91 |
| 〈그림 IV-14〉 전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안) | 92 |
| 〈그림 IV-15〉 서남권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밸류 체인 | 93 |
| 〈그림 IV-16〉 해상풍력 연계 수소생산(P2G) 공정 | 94 |
| 〈그림 IV-17〉 전남 및 서남권의 중소형 어선 등록 현황 | 102 |
| 〈그림 IV-18〉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 103 |
| 〈그림 IV-19〉 IMO의 단계별 SOx 규제 기준 | 104 |
| 〈그림 IV-20〉 서남권의 친환경선박 전환 추진전략(안) | 105 |
| 〈그림 IV-21〉 선박용 스크러버 종류 | 106 |
| 〈그림 IV-22〉 선박용 탈질장치 | 107 |
| 〈그림 IV-23〉 수소연료전지선박의 구성 | 108 |
| 〈그림 IV-24〉 국내 해양산업의 분포 현황 | 110 |
| 〈그림 IV-25〉 국내 해양레저 산업의 분포 현황 | 110 |

CONTENTS 그림 차례

| | |
|---|-----|
| 〈그림 IV-26〉 수상비행기 운영사례(밴쿠버) | 124 |
| 〈그림 IV-27〉 수상드론 활용 해양 적용 사례 | 126 |
| 〈그림 IV-28〉 드론 실증사업 분야 예시 | 126 |
| 〈그림 IV-29〉 수상항공안전기술훈련 | 130 |
| 〈그림 IV-30〉 항공 안전기술 관련 항공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 130 |
| 〈그림 IV-31〉 단계별 크루즈노선 운영계획(안) | 135 |
| 〈그림 IV-32〉 5대 벨트 관광열차 노선도 | 141 |
| 〈그림 IV-33〉 사남해안철도 노선계획 및 추진현황 | 142 |
| 〈그림 IV-34〉 사남해안철도와 연계한 열차페리 계획(안) | 143 |
| 〈그림 IV-35〉 서남권 7대 그랜드프로젝트 단계별 사업계획 | 171 |
| 〈그림 IV-36〉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사업 구상도 | 175 |
| 〈그림 IV-37〉 극한가뭄 발생 현황 | 179 |
| 〈그림 IV-38〉 해상 이동형 해수담수화 플랜트 개념도 | 180 |
| 〈그림 IV-39〉 한반도 주변해역 및 각 해역별 연평균 표층수온 변동 경향 (1968~2017) | 187 |
| 〈그림 IV-40〉 해역권별 주요 어종 어획량 변화 | 188 |
| 〈그림 IV-41〉 전남의 주요 지질명소 분포도 | 198 |
| 〈그림 IV-42〉 충무공 호국관광벨트도 | 201 |

CHAPTER

01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목적 및 방향
2. 계획의 범위 및 수행체계

01

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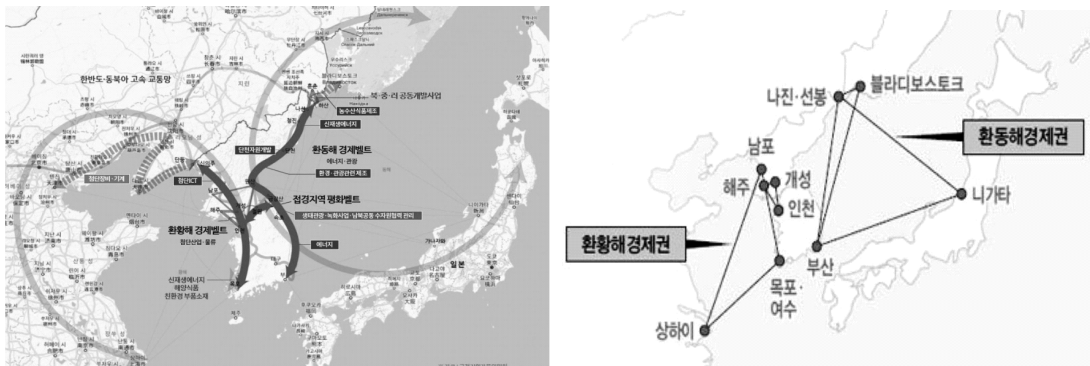
1. 계획의 배경, 목적 및 방향

1) 배경

- ☐ 정부 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한 서남권 광역경제권 계획 필요
 - 환황해권 경제벨트 시작점으로 위상 제고
 - 지경학적 이점을 토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발전 성공모델 창출
 - 지역 보유 잠재자원을 토대로 발전역량 극대화를 위한 전략 마련
 - 지역별 특화자원과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공동발전 구상 제시
- ☐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체화 방안 모색
 - 한반도 H자 신경제구상의 환황해 경제벨트¹⁾에 대한 구체화를 통해 서남권 지역을 국토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구상 필요
 -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부합한 SOC확충, 신재생에너지, 농수산식품, 친환경부품소재산업 등 지역차원의 광역적 발전구상 마련
 - 기 구축된 SOC인프라 활용도 제고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방안 모색

1) 환황해 경제벨트(산업·물류·교통벨트) :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제협력벨트로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 운송로 확보 및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과 신의주 국제자유무역지대 개발, 경의선 개보수, 고속도로 신설, 서울·북경 고속교통망 건설 등을 통해 중국 주요 도시와 1일 생활권을 구축하여 한반도 서해안과 중국 환보하이권을 중심으로 첨단 제조업과 물류중심의 경제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

- 무안국제공항, 목포신항만 등 국제교류 인프라와 비교적 저렴하고 풍부한 가용토지를 활용한 환황해권의 글로벌 생산·물류 네트워크 구축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에 한계
- 풍부한 해양관광자원 및 신재생에너지원 등 신성장산업 잠재력을 활용하고, 조선산업 등 기존 지역산업 쇠퇴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 수립 필요
- 지역내 청정 관광자원과 섬을 활용한 고급 관광·레저단지, 건강·휴양단지 조성 등을 통해 관광수요 창출
-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국가성장동력 산업 적극 발굴·육성



〈그림 1-1〉 한반도 신경제 구상도

- 국토균형 발전을 통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정부 국정 목표 실현
 - 광주근교권은 광주연구개발특구, 문화중심도시 조성, 나주 혁신도시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상당수준 확보
 - 광양만권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여수 석유화학산업, 광양제철 및 광양항 등 산업·물류기반을 확충하였고,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관광 도시로 크게 성장

- 반면, 서남권은 조선업 경기침체, 농수산업 등 1차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등으로 발전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
 -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미래지향적인 방향 설정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마련 필요
 - 서남권 발전역량 강화를 통해 광주근교권, 광양만권과 함께 국토 서남권역의 삼각 성장축 형성
- 서남권 지역 기초자치단체간 연계, 협력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과 경제공동체 지향
-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중복투자 및 지역간 경쟁최소화, 지역자원의 가치 재창출, 사업 규모화를 통해 거점별 성장동력 확보
 - 지역산업의 경우 조선, 식품, 친환경 농업 등이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되지 못한 상황이나, 일부 집적화가 진행되고 있어 클러스터화를 통해 지원할 경우 성장동력으로 발전 가능

2) 목적

- 전남 9개 시군(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을 대상으로 서남권 광역 발전구상 마련
 - 기 수립·진행 중인 자치단체별 정책의 점검 및 연계·협력 방향성 제시 등을 통해 지역 및 인근 시·군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종합적인 구상 제시
-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형프로젝트 개발
 - 사업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유사사업의 연계 등을 통한 지역의 고른 성장 유도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미래전략사업 제시

3) 계획수립 추진 방향

- 연계·협력적 지역발전 :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자산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공동자원으로 활용 구체화
 - 지자체가 보유한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계획 수립
 - 기존 시설 및 자원의 연계·루트화로 지역자원 가치 재창출 및 지역 재생, 공동브랜딩사업 발굴에 초점
 - 권역 내 다양한 지역지원 사업계획들을 현지 수요와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 시·군간 경쟁으로 인한 유사중복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며, 연계·협력과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여 정부지원사업 효과 극대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

- 지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아젠다 제시
 - 전라도 정도 천년(2018년)을 기점으로 미래 천년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정립
 -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구상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상 제안

2. 계획의 범위 및 수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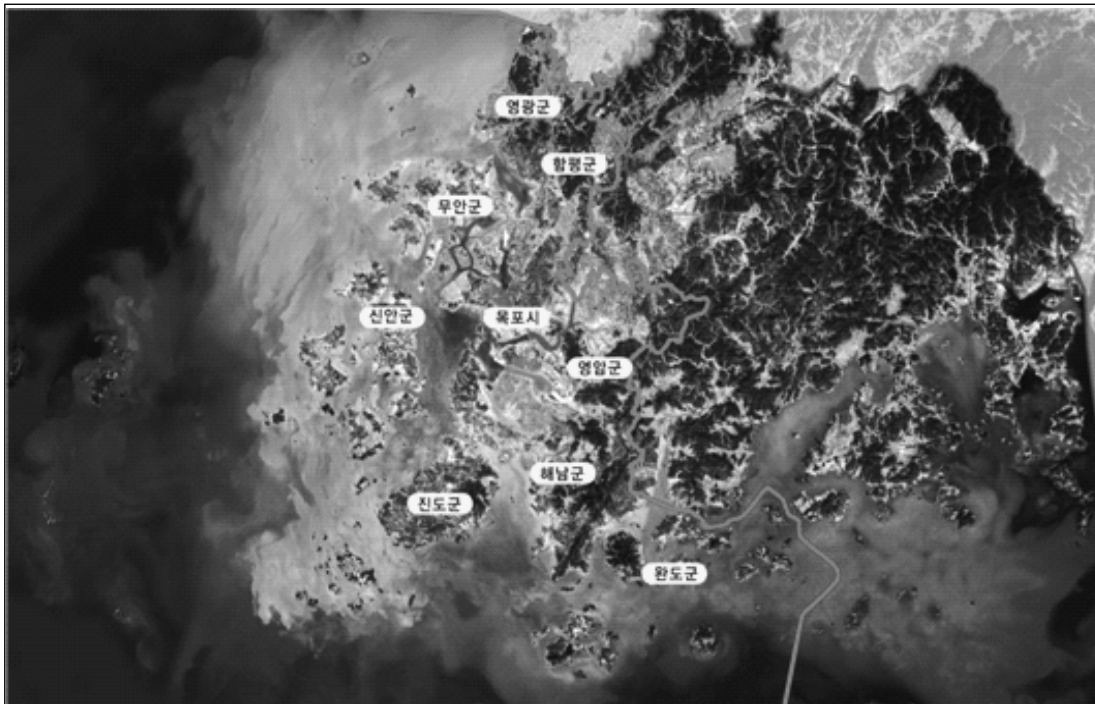
1)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계획기준년도 : 2018년
- 계획기간 : 2019~2030년
 - 단기 : 2019년~2021년
 - 중기 : 2022년~2025년
 - 장기 : 2026년~2030년

☐ 공간적 범위

- 계획지역 : 전남 9개 시·군(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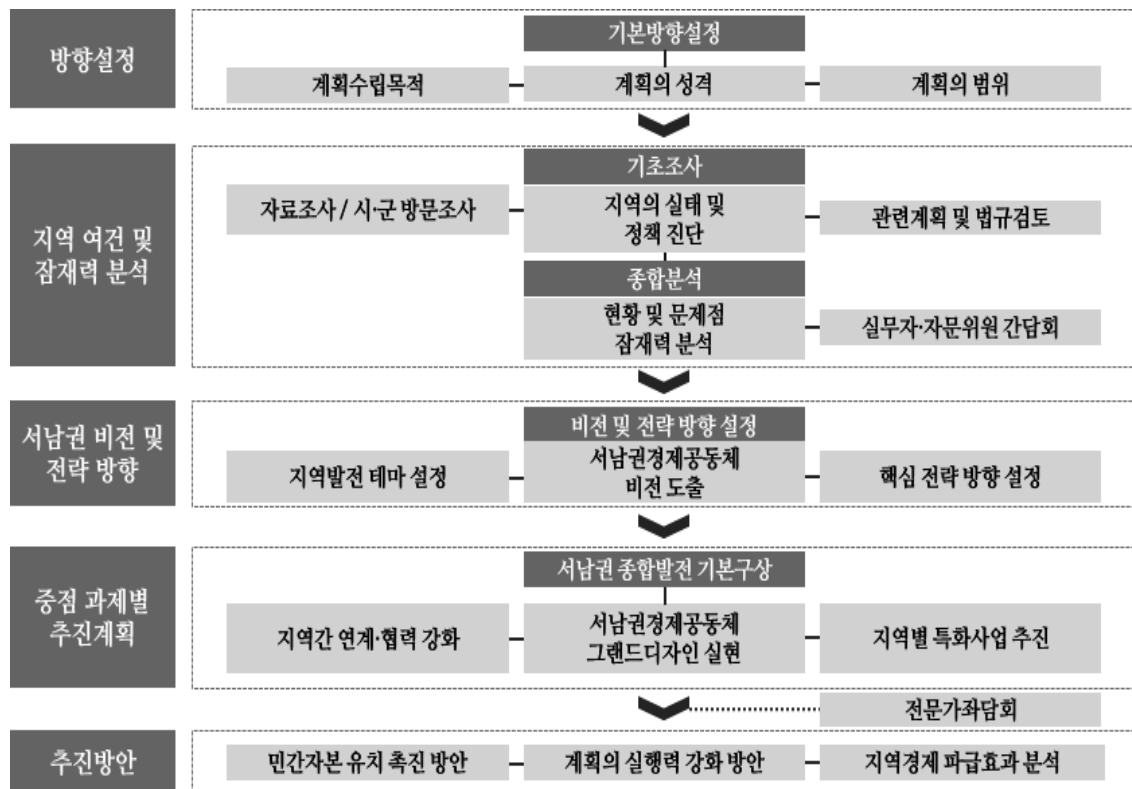


〈그림 1-2〉 과업의 공간적 범위

□ 내용적 범위

- 서남권(9개 시·군) 주변 현황과 여건 및 성장잠재력 조사·분석
- 국내·외 지역개발사례 검토
- 서남권 비전 및 전략방향 설정
- 서남권경제공동체 그랜드디자인 실현
-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 민간자본 유치 촉진 및 계획의 실행력 강화 방안

2) 수행체계



CHAPTER

02

지역 여건 및 잠재력 분석

1. 서남권 일반현황
2. 지역발전 사례분석
3. 여건변화 및 지역발전 잠재력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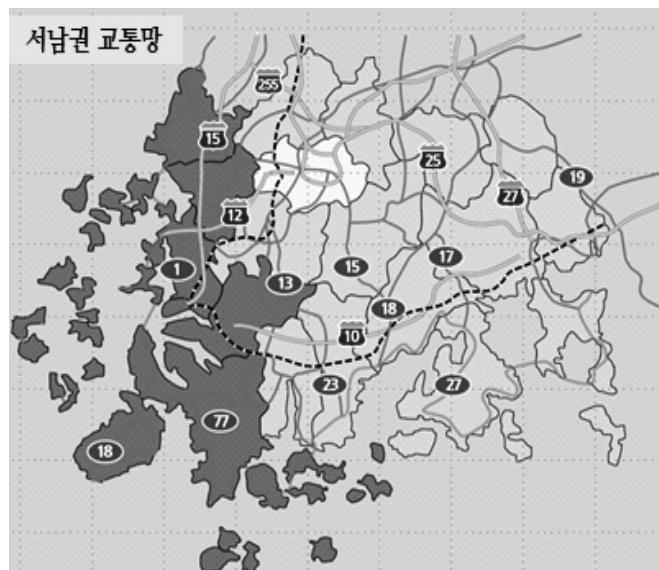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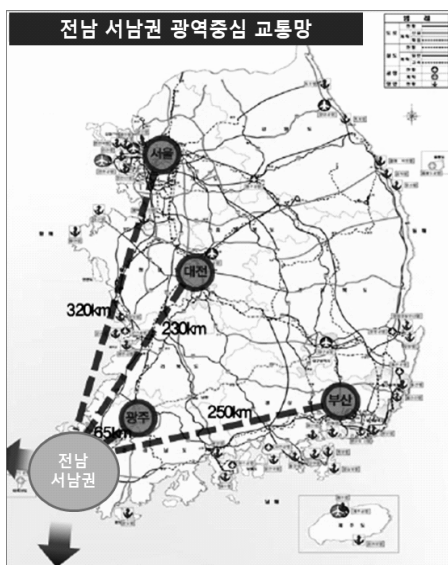
지역 여건 및 잠재력 분석

1. 서남권 일반현황

1) 자연지리적 여건

□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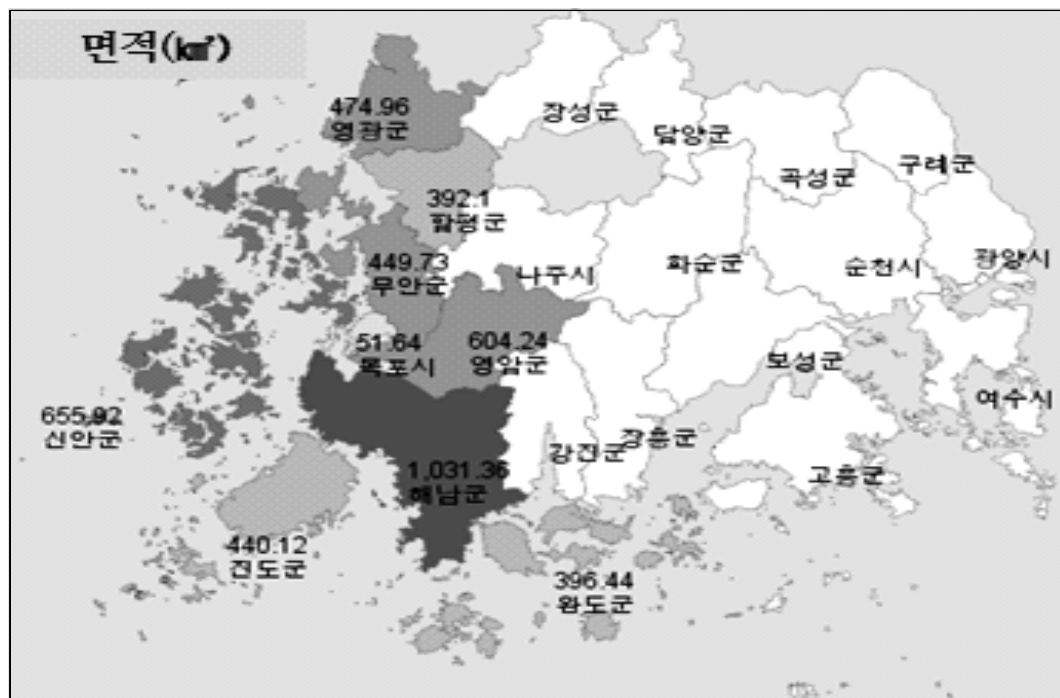
- 서남권(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은 전남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 발전축인 서해안축과 남해안축의 교차 지역에 위치하며, 해양으로의 진·출입 관문
- 국내 주요도시와 항공, 철도, 도로 등을 이용하여 1~3시간 이내 접근 가능
- 남북축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동서축으로 무안광주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영암~순천) 개설, 국도 1·2호선 시점
- 호남선 고속철도(KTX, SRT)가 목포까지 운행 중이며, 호남선 철도가 개설되어 운행 중(*2025년 개통을 목표로 광주송정~무안공항~목포에 이르는 2단계사업 추진)



〈그림 II-1〉 전남 서남권 교통망

□ 위치적 특성

- 서남권은 전라남도의 서부와 남부에 위치, 면적은 4,496.51km² (전남 12,343.58km²)로 전남의 36.4%, 국토 전체의 4.5% 차지
- 해남군이 1,031.36km²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목포시가 51.64km²로 가장 작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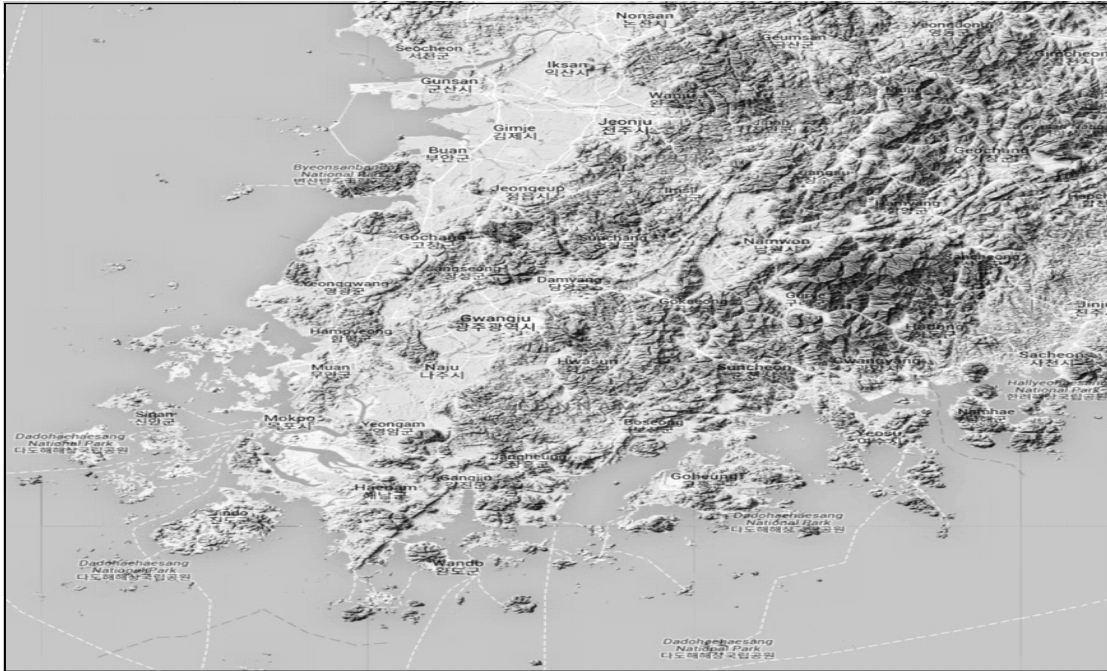


〈그림 II-2〉 전남 서남권 면적

□ 산지

-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서형 산림이 분포한 특징적인 산지권역으로 독립된 산지가 대부분임
- 준보전산지 분포가 지배적이며, 재해와 해안경관을 위한 산지의 효율적 관리·이용과 독특한 도서생태계를 고려한 공익용 산지기능 중요
- 해양생태계 다양성 보전, 재해방지기능 지속 강화

- 관광이 주요한 목적으로 작용하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 행정구역 대비 산지의 비율이 평균 약 40%로 전남 평균 57.4%보다 낮음



〈그림 II-3〉 전남 서남권 지역 및 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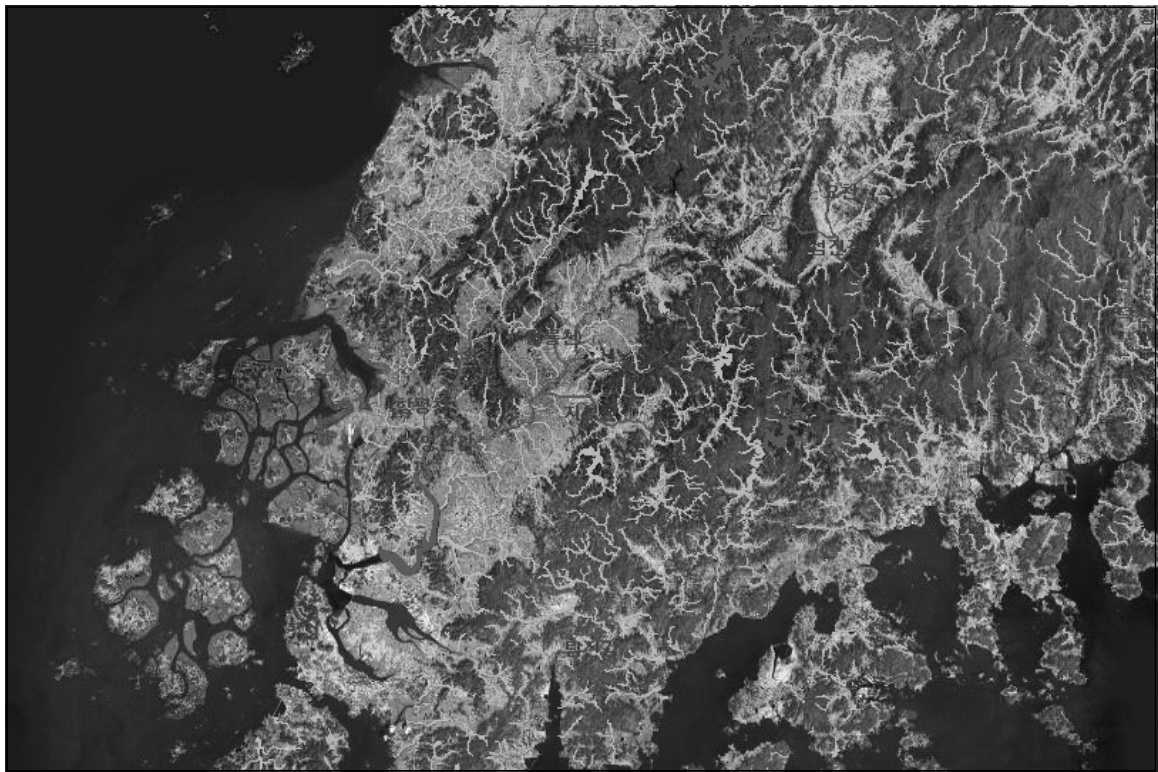
□ 하천

- 영산강이 북부지역에서 발원하여 서남권인 함평, 무안, 영암, 목포 등을 경유하여 신안이 위치한 서해로 유입
 - 서남권은 남도의 젖줄이라 일컬어지는 영산강과 그 지류들이 관통
 - 하천은 국가하천 3개소(전남 7개)와 지방하천 136개소(전남 554개)로 총 연장 828.34km(전남 3,255.76km)이며, 이는 전남 전체의 25.4% 차지
 - 전남 서남권 지방하천 개수율은 79.4%로 전라남도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

〈표 II-1〉 전남 서남권 하천 현황

| 시도 | 구분 | 하천 수 (개소) | 총 연장 (km) | 수립구간 (km) | 미수립구간 (km) | 개수율 (%) |
|------|------|--------------|--------------|--------------|---------------|------------|
| 전라남도 | 국가하천 | 7 | 327.54 | 327.54 | - | 100.00 |
| | 지방하천 | 554 | 2,928.22 | 2,419.70 | 508.52 | 82.63 |
| 소계 | | 561 | 3,255.76 | 2,747.24 | 508.52 | 91.32 |
| 서남권 | 국가하천 | 3 | 118.42 | 118.42 | - | 100.00 |
| | 지방하천 | 136 | 709.92 | 563.76 | 146.16 | 79.40 |
| 소계 | | 139 | 828.34 | 682.18 | 146.16 | 89.71 |

자료: 한국하천일람, 2015, 국토교통부, 재정리



〈그림 II-4〉 전남 서남권 하천 현황

□ 해양자원 현황

- 전남 서남권은 리아시스식 해안을 따라 도서와 갯벌, 해수욕장이 산재해 있으며 섬·해양관광을 위한 자연자원이 풍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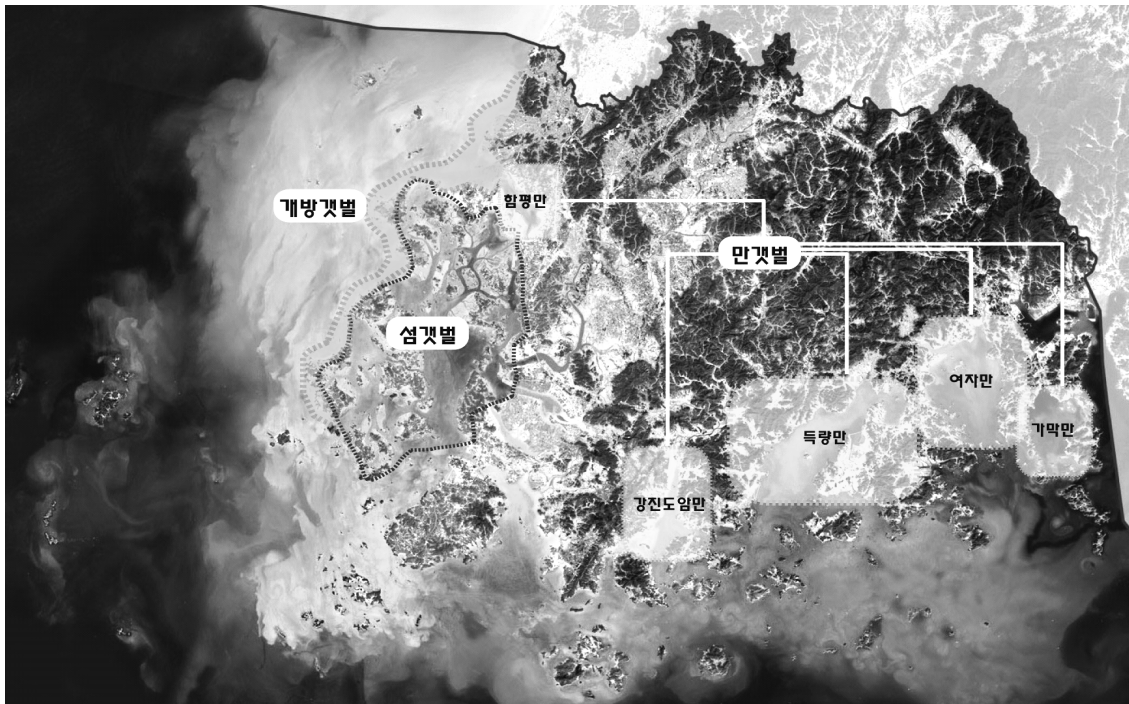
- 전남 서남권 해안선의 총 연장은 4,599.6km²(전남 6,742.80km²)로 전남의 68.2%을 차지
- 전남 서남권 도서수는 1,534개로(전남 2,165개) 전남의 70.9%을 차지
- 전남 서남권 도서면적은 1,543.3km²로(전남1,895.3km²) 전남의 81.4%을 차지
- 전남 서남권 갯벌면적은 800.4km² (전남 1,044.4km²) 전남의 76.6%을 차지
 - 전남 서남권 갯벌은 개방(open type)갯벌, 섬(island type)갯벌의 형태로 존재
 - 개방갯벌은 주로 조류와 함께 바람과 파랑 등의 작용이 우세한 환경으로 무안, 영광, 함평, 신안 등의 가장 외곽 섬 및 육지의 바다 쪽 가장자리에 형성
 - 섬 갯벌은 수많은 도서로 둘러쌓여 있어 상대적으로 폐쇄성이 큰 해역에 형성
- 전남 서남권 소재 해수욕장은 41개소로 전남의 55.4%을 차지하며, 이용객수는 약 1백9만여 명으로 전남 해수욕장 이용객의 69%을 차지

〈표 II-2〉 전남 서남권 도서 및 해안선 현황

(단위: km², 개소)

| 구분 | 해안선 | 도서수 | 도서면적 | 갯벌면적 | 해수욕장 |
|-----|----------|-------|---------|---------|------|
| 전남 | 6,742.80 | 2,165 | 1,895.5 | 1,044.4 | 74 |
| 서남권 | 4,599.6 | 1,534 | 1,543.3 | 800.4 | 41 |
| 목포시 | 79.6 | 11 | 10.4 | 5.7 | 1 |
| 해남군 | 317.5 | 60 | 8.6 | 63.0 | 4 |
| 영암군 | 25.4 | 2 | 0.0 | - | - |
| 무안군 | 229.6 | 28 | 1.1 | 147.6 | 3 |
| 함평군 | 24.9 | - | - | 19.5 | 2 |
| 영광군 | 248.6 | 64 | 12.1 | 145.5 | 2 |
| 완도군 | 1,037.9 | 258 | 396.1 | 47.1 | 10 |
| 진도군 | 709.1 | 254 | 438.9 | 24.6 | 5 |
| 신안군 | 1,927.0 | 857 | 676.1 | 347.4 | 14 |

자료: 전라남도, 전남통계연보, 2018



〈그림 II-5〉 전남 서남권 갯벌 유형

2) 인구 및 지역경제

□ 인구구조 및 인구규모

- 전남 서남권(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의 2018년 12월 기준 15세 미만 인구는 12.0%로 나타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약 23.5%로 전남의 21.9%대비 약 1.6%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
 -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 : 함평(34.1%) > 신안(33.8%) > 진도(32.3%) > 완도(30.5%) > 해남(30.3) > 영광(27.8%) > 영암(25.2%)
 - 전남 서남권의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96%로 전남평균(-0.3%)보다 인구의 감소율이 높게 나타남
-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노령화지수는 전남 서남권의 경우 195.7%로 전남 평균 18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가 심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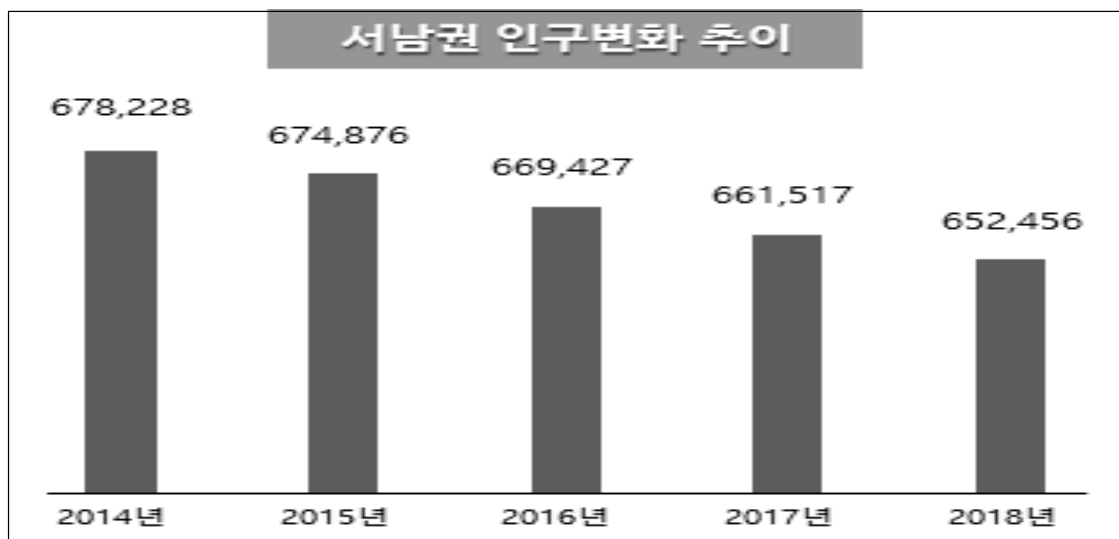
〈표 II-3〉 전남 서남권 인구구조 변화

(단위:명, %)

| 구분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연평균 증감율 | 노령화 지수 |
|-----|--------|-----------|-----------|-----------|-----------|-----------|------------|-----------|
| 전남 | 0~14세 | 253,483 | 245,971 | 239,499 | 233,136 | 225,639 | -2.87 | 183.1 |
| | 15~64세 | 1,268,489 | 1,271,188 | 1,265,499 | 1,254,837 | 1,244,199 | -0.48 | |
| | 65세이상 | 383,808 | 391,837 | 398,916 | 408,451 | 413,132 | 1.86 | |
| | 소계 | 1,905,780 | 1,908,996 | 1,903,914 | 1,896,424 | 1,882,970 | -0.3 | |
| 서남권 | 0~14세 | 91,031 | 87,953 | 84,863 | 81,537 | 78,369 | -3.68 | 195.7 |
| | 15~64세 | 442,397 | 439,828 | 435,207 | 427,616 | 420,752 | -1.25 | |
| | 65세이상 | 144,800 | 147,095 | 149,357 | 152,364 | 153,335 | 1.44 | |
| | 소계 | 678,228 | 674,876 | 669,427 | 661,517 | 652,456 | -0.96 | |

주의: 연평균 증감율은 2014년~2018년까지 최근 5년의 추이를 나타낸 수치이며, 노령화지수는 2018년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임

자료: 국가통계정보시스템



〈그림 II-6〉 서남권 인구변화 추이

- 전남 서남권(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의 2018년 기준 총 652,456명으로 전남 총 인구의 34.6% 차지
- 목포시의 인구밀도는 약 4,513.1명/k㎡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밀도를 보이고 있음.

〈표 II -4〉 전남 서남권 인구현황

(단위: km², 명, 명/km²)

| 구분 | 인구 | 세대당 인구 |
|-----|-----------|--------|
| 전남 | 1,882,970 | 2.19 |
| 서남권 | 652,456 | |
| 목포시 | 232,327 | 2.29 |
| 해남군 | 71,901 | 2.07 |
| 영암군 | 54,731 | 2.04 |
| 무안군 | 81,991 | 2.25 |
| 함평군 | 33,420 | 1.88 |
| 영광군 | 54,127 | 2.05 |
| 완도군 | 51,477 | 1.99 |
| 진도군 | 31,219 | 1.94 |
| 신안군 | 41,263 | 1.89 |

주 : 인구현황은 행정안전부(2018)의 주민등록인구현황의 2018년 12월 기준 자료를 추출함
 자료: 국가통계정보시스템

- 전남 서남권 2035년 장래인구는 전남의 장래인구 인구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 전남지역평균보다 인구의 감소가 높을 것으로 전망
- 전남 서남권 장래인구는 2030년부터는 인구 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
- 2020년 631,224명, 2025년 621,425명, 2030년 616,422명, 2035년 611,642명으로 전망

〈표 II -5〉 전남 서남권 장래인구 전망

(단위 : 명, 전년 대비 증가율 %)

| 항목 | | 2020 | 2025 | 2030 | 2035 | 연평균증가율 |
|-----|-------|-----------|-----------|-----------|-----------|--------|
| 전남 | 추계인구 | 1,793,547 | 1,787,283 | 1,787,400 | 1,784,651 | -0.03 |
| | 인구증가율 | -0.002 | -0.35 | 0.01 | -0.15 | |
| 서남권 | 추계인구 | 631,224 | 621,425 | 616,422 | 611,642 | -0.21 |
| | 인구증가율 | -2.63 | -1.55 | -0.81 | -0.78 | |

자료 : 전남시군장래인구추계(2015~2035), 전라남도청, 재작성

□ 인구 이동

- 전남 서남권(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의 2018년 기준 총 이동 인구수는 153,285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23.4%를 차지하여 연간 100명당 약 23명이 주거지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전남 서남권의 순 이동 인구는 -6,469명으로 나타남

〈표 II-6〉 전남 서남권 인구이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전남 | 총전입 | 260,278 | 250,104 | 234,132 | 227,504 | 224,384 |
| | 총전출 | 260,874 | 246,168 | 237,337 | 230,551 | 232,414 |
| | 순이동 | -596 | 3,936 | -3,205 | -3,047 | -8,030 |
| 서남권 | 총전입 | 91,052 | 82,219 | 79,105 | 74,173 | 73,408 |
| | 총전출 | 93,436 | 84,883 | 83,637 | 79,967 | 79,877 |
| | 순이동 | -2,384 | -2,664 | -4,532 | -5,794 | -6,469 |
| 목포시 | 총전입 | 42,002 | 37,683 | 37,368 | 32,780 | 33,446 |
| | 총전출 | 44,470 | 38,965 | 38,373 | 36,115 | 35,300 |
| | 순이동 | -2,468 | -1,282 | -1,005 | -3,335 | -1,854 |
| 해남군 | 총전입 | 6,811 | 6,412 | 5,963 | 5,537 | 5,475 |
| | 총전출 | 7,436 | 7,165 | 6,960 | 6,815 | 6,778 |
| | 순이동 | -625 | -753 | -997 | -1,278 | -1,303 |
| 영암군 | 총전입 | 7,292 | 6,672 | 6,167 | 5,688 | 5,592 |
| | 총전출 | 7,583 | 7,435 | 7,274 | 6,966 | 6,281 |
| | 순이동 | -291 | -763 | -1,107 | -1,278 | -689 |
| 무안군 | 총전입 | 12,972 | 10,713 | 10,058 | 10,885 | 9,407 |
| | 총전출 | 10,533 | 10,107 | 10,181 | 9,881 | 10,023 |
| | 순이동 | 2,439 | 606 | -123 | 1,004 | -616 |
| 함평군 | 총전입 | 3,321 | 3,555 | 3,258 | 3,682 | 3,370 |
| | 총전출 | 3,672 | 3,532 | 3,485 | 3,469 | 3,954 |
| | 순이동 | -351 | 23 | -227 | 213 | -584 |
| 영광군 | 총전입 | 6,154 | 5,470 | 5,283 | 4,990 | 5,299 |
| | 총전출 | 6,804 | 5,821 | 5,716 | 5,593 | 5,730 |
| | 순이동 | -650 | -351 | -433 | -603 | -584 |
| 완도군 | 총전입 | 4,275 | 4,231 | 4,048 | 3,877 | 4,070 |
| | 총전출 | 4,533 | 4,134 | 4,231 | 4,108 | 4,400 |
| | 순이동 | -258 | 97 | -183 | -231 | -330 |
| 진도군 | 총전입 | 3,008 | 2,825 | 2,676 | 2,720 | 2,630 |
| | 총전출 | 3,047 | 2,900 | 2,798 | 2,759 | 2,853 |
| | 순이동 | -39 | -75 | -122 | -39 | -223 |
| 신안군 | 총전입 | 5,217 | 4,658 | 4,284 | 4,014 | 4,119 |
| | 총전출 | 5,358 | 4,824 | 4,619 | 4,261 | 4,558 |
| | 순이동 | -141 | -166 | -335 | -247 | -439 |

자료: 국가통계정보시스템

□ 경제활동

- 2018년 기준, 전남 서남권 경제활동 인구는 350.1천명으로(전남 999천명) 전남 전체의 35.4% 점유
- 경제활동 참가율은 64.5%, 고용률은 63.5%로 전남 평균대비 다소 우위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1.5%로 전남평균 2.8%로 비해 낮은 수준임

〈표 II-7〉 전남 서남권 경제활동

(단위: 천명, %)

| 구분 | 경제활동인구 (천명) |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 |
|-----|----------------|-------------|------|-----|
| 전남 | 999 | 64.2 | 62.4 | 2.8 |
| 서남권 | 350.1 | 64.5 | 63.5 | 1.5 |
| 목포시 | 110.5 | 56.2 | 54.9 | 2.4 |
| 해남군 | 42.9 | 74.2 | 73.5 | 0.9 |
| 영암군 | 32.0 | 64.4 | 63.0 | 2.1 |
| 무안군 | 42.9 | 62.2 | 61.1 | 1.7 |
| 함평군 | 18.9 | 69.0 | 68.6 | 0.6 |
| 영광군 | 29.7 | 69.0 | 68.6 | 0.7 |
| 완도군 | 29.9 | 71.0 | 70.9 | 0.1 |
| 진도군 | 18.0 | 69.9 | 68.8 | 1.6 |
| 신안군 | 25.3 | 79.7 | 1.6 | 0 |

자료: 국가통계정보시스템(2018년 기준)

□ 산업구조

- 서남권 GRDP는 약 19조 5천억 원으로 전남 전체 대비 28.5% 점유
- 서남권 총 부가가치는 약 18조 1천억 원으로 전남 전체 대비 30.8% 점유
- 전남 대비 산업별 부가가치 비율은 농림어업 50.9%, 서비스업 38.8%, 광업·제조업 13.2%로 나타나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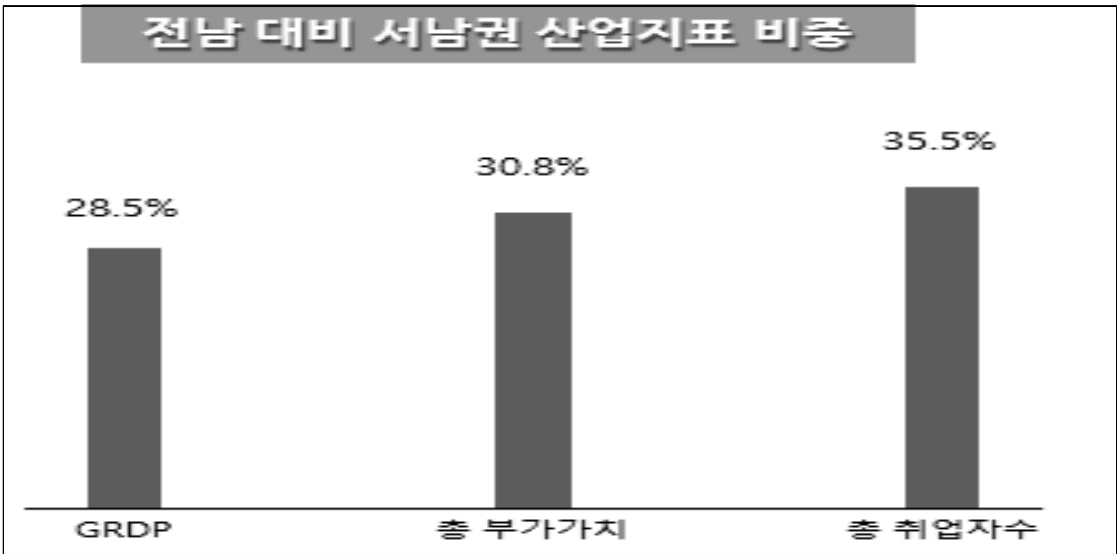
- 서남권 총 취업자 수는 343.6천명으로 전남 전체 대비 35.5% 점유
 - 전남 대비 산업별 총취업자 수는 농림어업 57.2%, 광업·제조업 33%, 서비스업 29.3%로 나타나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8〉 전남 서남권 산업구조

(단위: 10억, 천명)

| 구분 | GRDP | 총부가가치 | 총 부가가치 | | | 총취업자 수 | 총 취업자수 | | |
|-----|--------|--------|--------|--------|--------|--------|--------|-------|-------|
| | | | 농림어업 | 광업제조업 | 서비스업 | | 농림어업 | 광업제조업 | 서비스업 |
| 전남 | 68,577 | 59,099 | 4,652 | 20,800 | 33,646 | 968 | 200 | 105 | 666 |
| 서남권 | 19,523 | 18,194 | 2,370 | 2,755 | 13,067 | 343.6 | 114.4 | 34.6 | 195.2 |
| 목포시 | 3,887 | 3,699 | 63 | 129 | 3,477 | 108.6 | 5.0 | 15.1 | 88.4 |
| 해남군 | 1,847 | 1,727 | 545 | 274 | 909 | 41.8 | 21.1 | 1.7 | 19.1 |
| 영암군 | 3,770 | 3,253 | 304 | 1,884 | 1,065 | 31.5 | 10.4 | 7.2 | 13.9 |
| 무안군 | 3,289 | 3,167 | 309 | 107 | 2,751 | 41.8 | 14.7 | 4.1 | 23.1 |
| 함평군 | 823 | 759 | 199 | 122 | 438 | 18.8 | 10.3 | 0.9 | 7.7 |
| 영광군 | 3,282 | 3,147 | 240 | 91 | 2,816 | 29.4 | 11.1 | 3.1 | 15.3 |
| 완도군 | 967 | 908 | 215 | 54 | 638 | 28.7 | 14.9 | 1.1 | 12.8 |
| 진도군 | 671 | 634 | 202 | 35 | 398 | 17.7 | 9.4 | 0.5 | 7.9 |
| 신안군 | 986 | 929 | 294 | 59 | 576 | 25.3 | 17.5 | 0.9 | 7.0 |

주: GRDP와 총부가가치는 2016년 기준, 총 취업자 수는 2017년 기준
자료: 국가통계정보시스템



〈그림 II-7〉 전남 서남권 산업지표 비중

- 2017년 기준 서남권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남권은 전남 전체사업체의 35.7%, 전체 종사자의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1차산업 취업자 비율이 28.9%, 2차산업 31.9%, 3차산업 32.8%로 나타남
- 서남권 1차 · 2차산업 종사자수의 비율은 사업체수 비중 대비 10%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영세업체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표 II -9〉 서남권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개소, 명, %)

| 구 분 | 전산업 (1차+2차+3차) | | 1차산업 | | 2차산업 | | 3차산업 | |
|-----|-------------------|-------------------|---------------|-----------------|-----------------|------------------|------------------|-------------------|
| | 사업체 | 종사자수 | 사업체 | 종사자수 | 사업체 | 종사자수 | 사업체 | 종사자수 |
| 전 남 | 153,280 | 707,972 | 614 | 7,055 | 14,543 | 117,386 | 138,123 | 583,531 |
| 서남권 | 54,744 (35.7) | 231,106 (32.6) | 251 (40.9) | 2,039 (28.9) | 6,210 (42.7) | 37,452 (31.9) | 48,283 (35.0) | 191,615 (32.8) |
| 목포 | 21,463 | 82,523 | 4 | 117 | 1,158 | 4,022 | 20,301 | 78,384 |
| 해남 | 5,604 | 22,845 | 60 | 429 | 614 | 4,351 | 4,930 | 18,065 |
| 영암 | 4,627 | 33,298 | 31 | 253 | 869 | 15,861 | 3,727 | 17,184 |
| 무안 | 5,396 | 26,621 | 14 | 184 | 544 | 2,630 | 4,838 | 23,807 |
| 함평 | 2,457 | 10,693 | 37 | 373 | 333 | 2,013 | 2,087 | 8,307 |
| 영광 | 4,719 | 19,206 | 26 | 293 | 1,053 | 2,993 | 3,640 | 15,920 |
| 완도 | 4,477 | 15,595 | 26 | 118 | 403 | 1,831 | 4,048 | 13,646 |
| 진도 | 2,883 | 9,693 | 45 | 229 | 241 | 829 | 2,597 | 8,635 |
| 신안 | 3,118 | 10,632 | 8 | 43 | 995 | 2,922 | 2,115 | 7,667 |

자료: 전라남도, 전남통계연보, 2018.

□ 산업단지

- 전남 서남권 산업단지 수는 38개(전남 104개)로 전남의 36.5%, 가동업체 수는 872개(전남 2,200)로 전남의 39.6%, 고용자 수는 11,401명(전남 70,276명)으로 전남의 16.2%, 생산액은 3,248,455백만원(전남 110,374,401백만원)으로 전남의 2.9% 차지

- 서남권 산업단지 수 및 가동업체 수는 전남의 30%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생산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전남 서남권은 국가산단 2개, 일반산단 10개, 농공단지 26개로 나타남
- 서남권 소재 국가 및 일반산단 비중은 전남의 30% 이상이나, 고용자 수 비중은 10%중반, 생산액은 1%대로 저조한 실정
- 농공단지의 수는 전남의 38.2%, 생산액은 전남의 25.7%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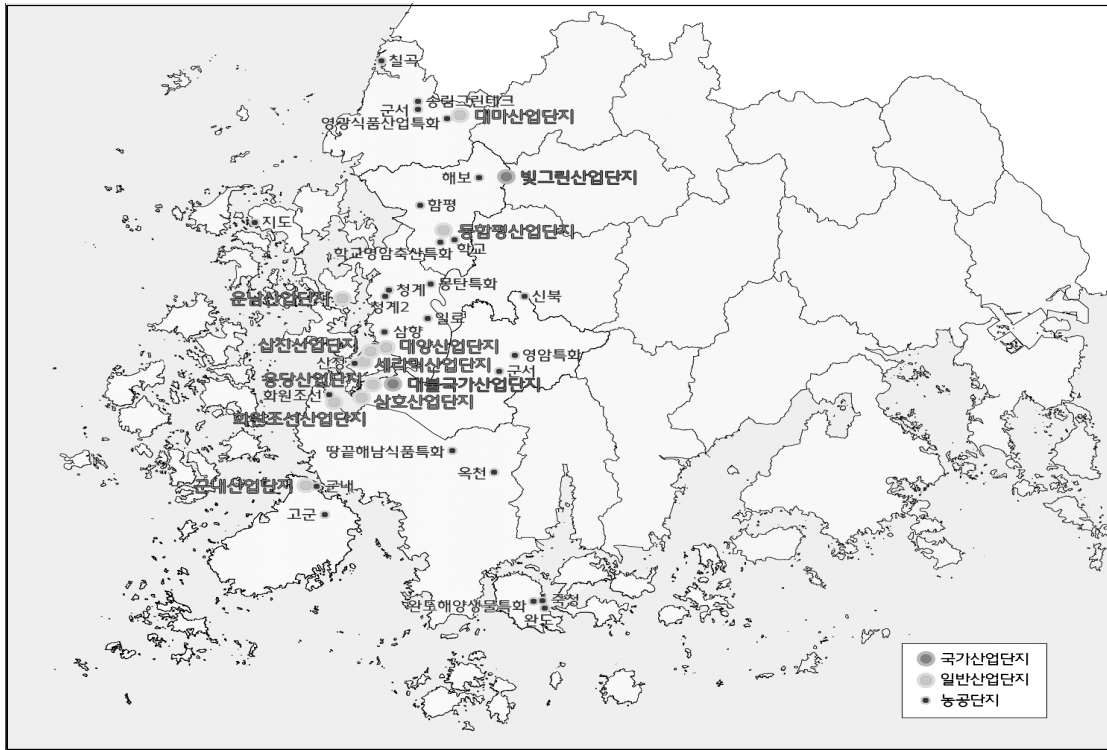
〈표 II-10〉 서남권 산업단지 현황

(단위: 개소, 천㎡, 명, 백만원, %)

| 구 분 | 국가산단 | | | | 일반산단 | | | | 농공단지 | | | |
|-----|-----------|---------------|-----------------|--------------------|--------------|--------------|--------------|------------------|--------------|---------------|-----------------|---------------------|
| | 단지 수 | 가동업체 수 | 고용자 수 | 생산액 | 단지수 | 가동업체 수 | 고용자 수 | 생산액 | 단지수 | 가동업체 수 | 고용자 수 | 생산액 |
| 전 남 | 5 | 717 | 38,828 | 95,380,929 | 31 | 406 | 15,799 | 9,432,458 | 68 | 1,077 | 15,649 | 5,561,014 |
| 서남권 | 2 (40) | 316 (44.1) | 5,594 (14.4) | 1,657,970 (1.7) | 10 (32.3) | 75 (18.5) | 978 (6.2) | 163,212 (1.7) | 26 (38.2) | 481 (44.7) | 4,829 (30.9) | 1,427,273 (25.7) |
| 목포 | | | | | 3 | 52 | 506 | 38,000 | 1 | 103 | 855 | 228,000 |
| 해남 | | | | | 1 | | | | 3 | 28 | 206 | 58,563 |
| 영암 | 1 | 316 | 5,594 | 1,657,970 | 2 | 1 | | | 3 | 21 | 397 | 78,054 |
| 무안 | | | | | 1 | | | | 5 | 114 | 1,537 | 461,741 |
| 함평 | 1 | | | | 1 | 3 | 39 | | 4 | 47 | 690 | 158,708 |
| 영광 | | | | | 1 | 19 | 433 | 125,212 | 4 | 42 | 317 | 192,135 |
| 완도 | | | | | | | | | 3 | 112 | 761 | 244,000 |
| 진도 | | | | | 1 | | | | 2 | 14 | 66 | 6,072 |
| 신안 | | | | | | | | | 1 | | |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17. 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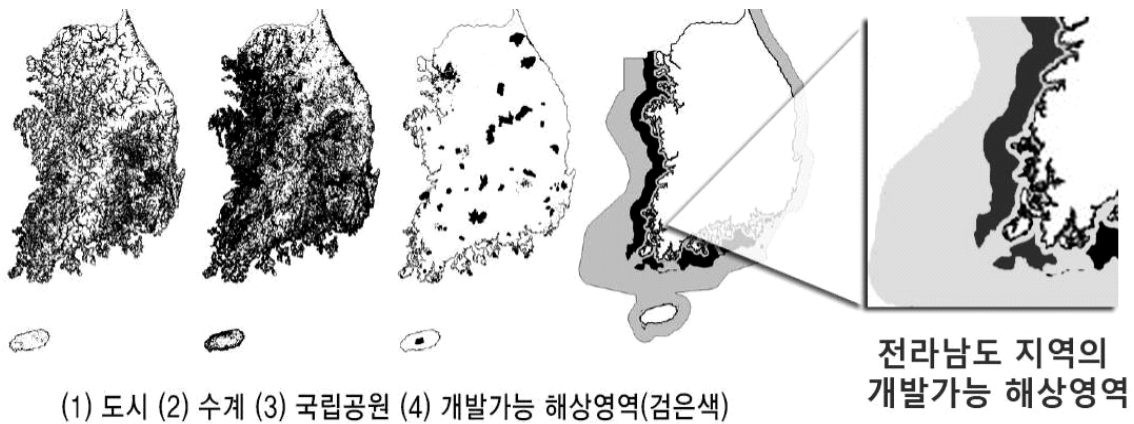
주. 가동업체 수가 2개 이하인 단지는 개별업체 정보보호를 위하여 미표기



〈그림 II-8〉 서남권 산업단지 위치도

□ 풍력에너지 활용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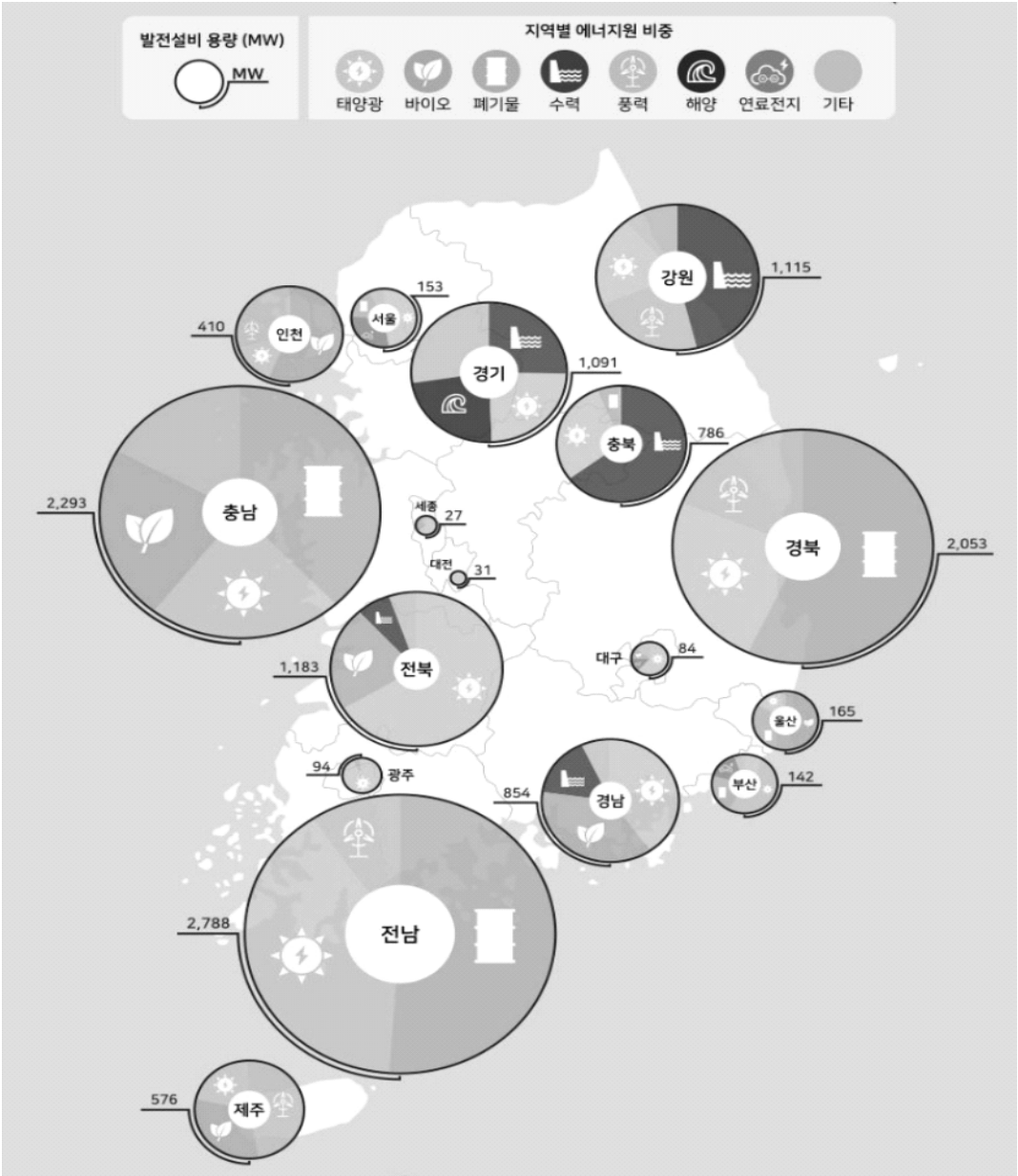
- 풍력발전 부존잠재량 및 가용잠재량을 산정한 결과, 육상잠재량은 고산지대인 강원도, 해상잠재량은 수심이 낮은 서해안과 남해안에 걸쳐 있는 전남 서남부권에 집중



〈그림 II-9〉 지리정보 분석에 의한 개발지역 선별

| 구분 | 합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해상풍력자원 잠재량(MW) | 22,264 | 2,680 | 191 | 0 | 2,870 | 2,284 | 10,928 | 255 | 2,800 | 257 |
| 백분율(%) | 100.0 | 12.0 | 0.9 | 0 | 12.9 | 10.3 | 49.1 | 1.1 | 12.6 | 1.1 |
| 비 고 | * 잠재량 산정방법 : 바람등급3이상인 면적에 3MW 국산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경우 ※ 바람등급 3, 50m높이에서 평균풍속 6.4m/s 이상, 풍력밀도 300W/m ² 이상 | | | | | | | | |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백서」, 2012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16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2017.

〈그림 II -10〉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누적 발전설비 용량

3) 문화 및 관광자원

□ 문화자원 현황

- 전남 서남권 각 시군은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
 - 특히,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경관, 유달산, 해남군의 대흥사, 두륜산, 땅끝, 무안군의 회산백련지, 무안생태갯벌센터, 진도군의 운림산방, 조도군도, 신안군의 흑산도, 홍도 등 지명도 높은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들이 분포되어 있음으로 시군간 연계협력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의 가능성이 높음.
- 서남권의 문화재는 총 362개로 전남 1,219개의 29.7%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의 26.8%, 지방지정문화재의 30.6%, 등록문화재의 32.1%를 점유
 - 서남권 시군별로는 해남군 76개, 영암군 71개, 영광군 49개 순이며, 국가지정문화재는 해남군(33개)이 지방지정문화재는 영암군(39개), 등록 문화재는 목포시(10개)가 가장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1〉 서남권 문화재 지정 현황

(단위: 개, %)

| 구분 | 총계 | 지정문화재 | | | | | | | | | | | | | 등록 문화 재 | |
|-----|---------------|---------------|-------------|---------------|--------------|----------------|-----------------|---------------|---------------|--------------|---------------|--------------|--------------|--------------|---------------|----|
| | | 국가지정문화재 | | | | | | | 지방지정문화재 | | | | | 문화재 자료 | | |
| | | 국보 | 보물 | 사적 및 명승 | 천연 기념물 | 중요 민속자 료 | 중요무 형문화 재 | 유형 문화 재 | 기념 물 | 민속 자료 | 무형 문화 재 | | | | | |
| 전남 | 1,219 | 384 | 21 | 183 | 64 | 61 | 68 | 17 | 519 | 237 | 192 | 40 | 50 | 238 | 78 | |
| 서남권 | 362 (29.7) | 103 (26.8) | 4 (19.0) | 35 (19.1) | 21 (32.8) | 39 (47.5) | 8 (11.8) | 6 (35.3) | 159 (30.6) | 52 (21.9) | 74 (38.5) | 14 (35.0) | 19 (38.0) | 75 (31.5) | 25 (32.1) | |
| | 목포 | 26 | 6 | - | 3 | 1 | 1 | - | 1 | 7 | 3 | 3 | - | 1 | 3 | 10 |
| | 해남 | 76 | 33 | 2 | 17 | 8 | 4 | 2 | - | 31 | 13 | 14 | 1 | 3 | 11 | 1 |
| | 영암 | 71 | 16 | 2 | 9 | 1 | 1 | 3 | - | 39 | 9 | 21 | 8 | 1 | 15 | 1 |
| | 무안 | 22 | 4 | - | - | 1 | 2 | 1 | - | 10 | 2 | 4 | 3 | 1 | 8 | - |
| | 함평 | 28 | 3 | - | 1 | - | 2 | - | - | 14 | 5 | 8 | - | 1 | 8 | 3 |
| | 영광 | 49 | 9 | - | 4 | 1 | 2 | 1 | 1 | 24 | 12 | 9 | 2 | 1 | 13 | 3 |
| | 완도 | 22 | 11 | - | - | 4 | 7 | - | - | 4 | 1 | 2 | - | 1 | 6 | 1 |
| | 진도 | 38 | 15 | - | 1 | 4 | 6 | - | 4 | 18 | 6 | 6 | - | 6 | 5 | - |
| | 신안 | 30 | 6 | - | - | 1 | 4 | 1 | - | 12 | 1 | 7 | - | 4 | 6 | 6 |

자료: 전라남도, 전남통계연보,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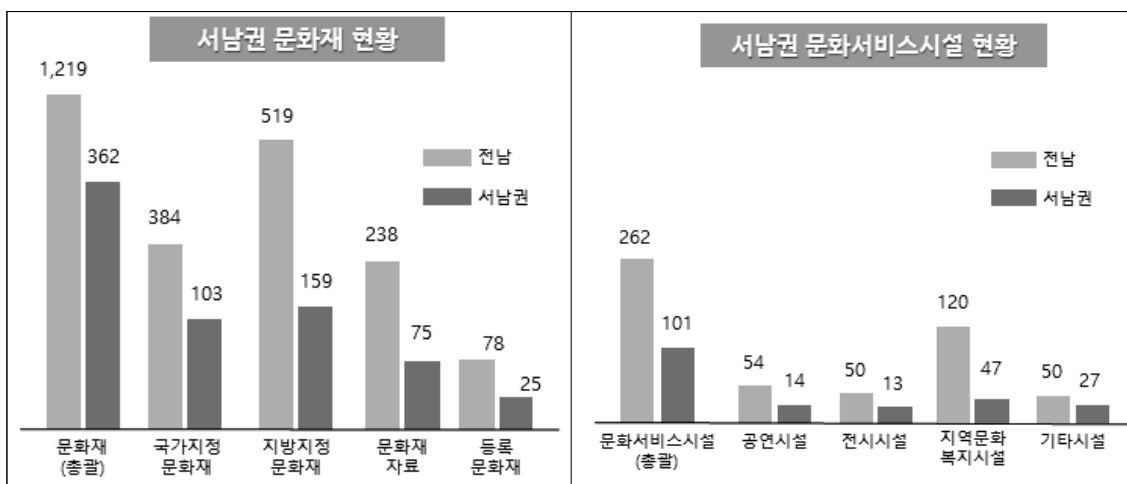
- 서남권의 문화서비스 관련 시설은 총 101개소로 전남 전체 시설 262개소의 35.8%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술관, 종합복지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 문화시설은 전남 관련 시설대비 점유율이 다소 높은 반면, 공공 및 민간공연장, 영화관 등 일반 대중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은 다소 부족한 실정임.

〈표 II-12〉 서남권 문화서비스 시설 현황

(단위: 개소, %)

| 구분 | 합계 | 공연시설 | | | 전시시설 | | 지역문화복지시설 | | | 기타시설 | | |
|-----|---------------|-------------|-------------|-------------|--------------|------------|-------------|--------------|-------------|-------------|--------------|--------------|
| | | 공공 공연장 | 민간 공연장 | 영화관 | 미술관 | 화랑 | 시군민 회관 | 종합 복지회관 | 청소년 회관 | 문화원 | 국악원 | 전수회 관 |
| 전남 | 262 | 32 | 9 | 13 | 24 | 14 | 12 | 92 | 16 | 21 | 3 | 26 |
| 서남권 | 101 (35.8) | 9 (28.1) | 1 (11.1) | 4 (30.8) | 13 (54.2) | 0 (0.0) | 4 (33.3) | 37 (40.2) | 6 (37.5) | 9 (42.9) | 3 (100.0) | 15 (57.7) |
| 목포 | 13 | 2 | 1 | 4 | 2 | - | - | - | 1 | 1 | 1 | 1 |
| 해남 | 9 | 1 | - | - | 1 | - | 1 | 3 | 1 | 1 | - | 1 |
| 영암 | 18 | 1 | - | - | 3 | - | 1 | 11 | 1 | 1 | - | - |
| 무안 | 9 | 2 | - | - | 1 | - | - | 3 | 1 | 1 | 1 | - |
| 함평 | 5 | - | - | - | 2 | - | 1 | - | - | 1 | - | 1 |
| 영광 | 13 | 1 | - | - | - | - | - | 9 | 1 | 1 | - | 1 |
| 완도 | 5 | 1 | - | - | - | - | 1 | 1 | - | 1 | - | 1 |
| 진도 | 27 | 1 | - | - | 4 | - | - | 10 | 1 | 1 | 1 | 9 |
| 신안 | 2 | - | - | - | - | - | - | - | - | 1 | - | 1 |

자료: 전라남도, 전남통계연보, 2018.



〈그림 II-11〉 서남권 문화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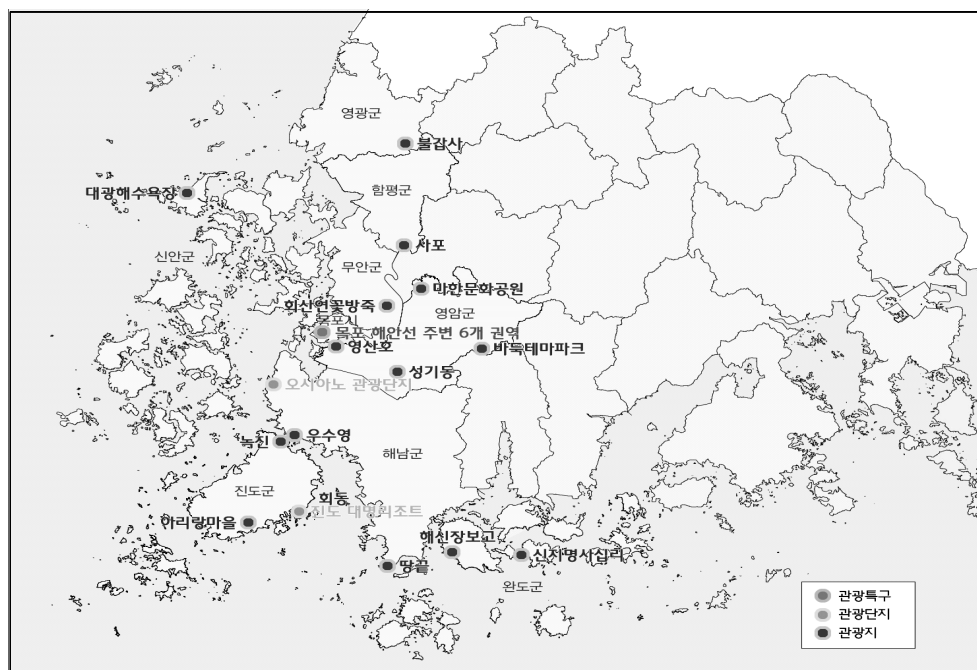
□ 관광자원 현황

- 전남 서남권 지정관광자원은 19개소, 총 면적 18.92km²로 전남대비 54.2%, 13.5% 점유
- 관광지는 16개소(전남 28개소), 총면적 6.39km²(전남 36.01km²)로 전남대비 57.1%, 17.7% 점유
- 관광단지는 2개소(전남 5개소), 총면적은 전남(18.90km²)의 29.7%에 해당하는 5.63km²의 면적을 차지
- 관광특구는 1개소, 총면적 6.90km²로 전남 관광특구 면적대비 8.1%를 차지

〈표 II-13〉 서남권 관광자원 현황

(단위: 개, km²)

| 구분 | 전남 | | 서남권 | |
|------|----|-------|-----|------|
| 관광지 | 개소 | 28 | 개소 | 16 |
| | 면적 | 36.01 | 면적 | 6.39 |
| 관광단지 | 개소 | 5 | 개소 | 2 |
| | 면적 | 18.90 | 면적 | 5.63 |
| 관광특구 | 개소 | 2 | 개소 | 1 |
| | 면적 | 84.92 | 면적 | 6.90 |



〈그림 II-12〉 서남권 관광자원 위치도

□ 관광객 방문현황

- 2018년 기준 서남권의 관광객은 약 781만명으로 전남 전체 관광객 5,073만명의 15.4%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4개년(2015년~2018년) 연평균 증가율은 8.40%로 나타남
- 서남권 시군별로는 목포시가 388만명으로 서남권 관광객의 약 49.8%를 점유하고 있으며, 영광 28.3%, 신안 12.5%, 완도 11.9% 순임.

<표 II-14> 서남권 시군별 관광객 추이

(단위: 명, %)

| 구 분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연평균 증가율 |
|-----|------------|-------|------------|-------|------------|-------|------------|-------|------------|
| | 관광객수 | 비율 | 관광객수 | 비율 | 관광객수 | 비율 | 관광객수 | 비율 | |
| 전 남 | 39,688,125 | 100.0 | 42,785,085 | 100.0 | 50,791,613 | 100.0 | 50,736,268 | 100.0 | 8.53 |
| 서남권 | 6,131,517 | 15.4 | 8,430,042 | 19.7 | 10,136,650 | 20.0 | 7,810,782 | 15.4 | 8.40 |
| 목포 | 991,862 | 16.2 | 2,079,564 | 24.7 | 2,594,988 | 25.6 | 3,888,653 | 49.8 | 57.68 |
| 해남 | 401,869 | 6.6 | 437,204 | 5.2 | 431,510 | 4.3 | 583,604 | 7.5 | 13.24 |
| 영암 | 948,924 | 15.5 | 1,237,778 | 14.7 | 946,772 | 9.3 | 674,736 | 8.6 | -10.74 |
| 무안 | 411,772 | 6.7 | 379,877 | 4.5 | 711,805 | 7.0 | 766,795 | 9.8 | 23.03 |
| 함평 | 775,091 | 12.6 | 778,239 | 9.2 | 748,305 | 7.4 | 764,510 | 9.8 | -0.64 |
| 영광 | 167,007 | 2.7 | 973,551 | 11.5 | 1,853,030 | 18.3 | 1,858,842 | 23.8 | 123.27 |
| 완도 | 993,530 | 16.2 | 1,001,870 | 11.9 | 1,129,051 | 11.1 | 931,006 | 11.9 | -2.14 |
| 진도 | 506,731 | 8.3 | 533,285 | 6.3 | 507,028 | 5.0 | 731,397 | 9.4 | 13.01 |
| 신안 | 934,731 | 15.2 | 1,008,674 | 12.0 | 1,214,161 | 12.0 | 978,481 | 12.5 | 1.54 |

자료: 한국관광공사, 관광식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분기별 자료 이용



<그림 II-13> 서남권 주요 관광지 관광객 현황

4) 정주인프라

□ 주택 및 상하수도

- 서남권의 총 주택 수는 304,874호로 전남 총 주택수의 36.2%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100.3%로 전남 주택 보급률 102.9%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전남 대비 비율은 약 40%로 전남대비 가구 수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II-15〉 서남권 주택 현황

(단위: 호수, %)

| 구분 | 가구수 | 주택수 | | | | | | 주택 보급률 |
|-----|-------------------|-------------------|-------------------|------------------|-----------------|-----------------|-----------------|-----------|
| | | |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 주택 | 다세대 주택 |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 |
| 전남 | 841,207 | 865,294 | 486,052 | 325,789 | 15,635 | 9,438 | 22,083 | 102.9 |
| 서남권 | 304,874 (36.2) | 305,666 (35.3) | 189,452 (39.0) | 97,166 (29.8) | 5,221 (33.4) | 3,811 (40.4) | 6,798 (30.8) | 100.3 |
| 목포 | 100,845 | 99,685 | 27,723 | 62,984 | 1,438 | 2,086 | 5,454 | 98.8 |
| 해남 | 34,801 | 38,484 | 32,884 | 4,692 | 443 | 293 | - | 110.5 |
| 영암 | 26,885 | 29,438 | 17,582 | 8,480 | 738 | 168 | 6 | 109.5 |
| 무안 | 34,567 | 33,155 | 19,376 | 12,156 | 491 | 278 | 548 | 104.3 |
| 함평 | 17,790 | 18,539 | 16,800 | 705 | 157 | 80 | 699 | 104.2 |
| 영광 | 26,244 | 27,204 | 20,421 | 5,476 | 1,070 | 237 | - | 103.7 |
| 완도 | 25,750 | 21,136 | 18,258 | 1,861 | 547 | 419 | - | 82.1 |
| 진도 | 15,946 | 16,245 | 14,736 | 793 | 305 | 193 | 91 | 101.9 |
| 신안 | 22,046 | 21,780 | 21,672 | 19 | 32 | 57 | - | 97.4 |

자료: 전라남도, 전남통계연보, 2018.

- 서남권 상수도 보급률은 평균 90.3%로 전남 상수도 보급률 87.7%에 비해 높은 편이나, 하수도 보급률은 61.9%로 전남 77.1%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16〉 서남권 상·하수도 보급률

(단위: %)

| 구분 | 상수도보급률 | 하수도보급률 |
|-----|--------|--------|
| 전남 | 87.7 | 77.1 |
| 서남권 | 90.3 | 61.9 |
| 목포 | 99.8 | 98.0 |
| 해남 | 68.6 | 51.5 |
| 영암 | 83.5 | 72.8 |
| 무안 | 98.3 | 65.0 |
| 함평 | 85.1 | 63.9 |
| 영광 | 91.6 | 55.9 |
| 완도 | 96.7 | 58.8 |
| 진도 | 99.3 | 59.9 |
| 신안 | 90.1 | 31.2 |

자료: 전라남도, 전남통계연보, 2018.

□ 교육시설

- 2018년 4월 현재 서남권의 총 학생수는 76,426명으로 전라남도 각급 학교의 총 학생수 220,496명의 34.7% 수준이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평균 10.0명으로 전남 전체평균(9.6명) 대비 약간 높은 수준임.
- 학교형태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학교, 기타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7〉 서남권 학제별 교육지표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 학교수 | | 학급(과)수 | | 보통교실수 | | 학생수 | | 교원수 | | 교원1인당 학생수 | |
|-----------|-------|-----|--------|-------|--------|-------|---------|--------|--------|-------|-----------|------|
| | 전남 | 서남권 | 전남 | 서남권 | 전남 | 서남권 | 전남 | 서남권 | 전남 | 서남권 | 전남 | 서남권 |
| 합계 | 1,448 | 564 | 11,510 | 4,211 | 11,110 | 4,048 | 220,496 | 76,426 | 21,201 | 7,611 | 9.6 | 10.0 |
| 유치원 | 551 | 206 | 1,399 | 495 | 812 | 287 | 19,670 | 7,077 | 2,093 | 720 | 10.6 | 10.2 |
| 초등학교 | 489 | 196 | 5,077 | 1,843 | 5,858 | 2,101 | 94,134 | 33,337 | 8,028 | 2,920 | 8.5 | 8.8 |
| 중학교 | 256 | 101 | 2,390 | 951 | 1,991 | 736 | 47,270 | 16,286 | 4,973 | 1,798 | 10.5 | 11.0 |
| 일반계 고등학교 | 77 | 31 | 1,365 | 476 | 1,175 | 367 | 35,342 | 11,704 | 3,175 | 1,134 | 9.0 | 9.7 |
| 특수목적 고등학교 | 10 | 5 | 130 | 50 | 130 | 54 | 2,536 | 1,044 | 366 | 138 | 14.4 | 13.2 |
| 특성화 고등학교 | 47 | 17 | 748 | 244 | 761 | 249 | 14,609 | 4,459 | 1,699 | 567 | 11.6 | 12.7 |
| 자율 고등학교 | 8 | 3 | 208 | 75 | 189 | 175 | 5,762 | 1,979 | 483 | 175 | 8.4 | 8.8 |
| 기타학교 | 10 | 5 | 193 | 77 | 194 | 79 | 1,173 | 540 | 384 | 159 | 32.7 | 29.4 |

자료: 전라남도, 전남통계연보, 2018. ('18.4.1.기준)

□ 의료시설

- 2017년 기준 서남권의 병원은 699개소로 전라남도 총 병원 1,987개소의 35.2%를 점유하고 있으며, 병상은 20,962개로 전라남도 총 병상 63,178개의 33.2%,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남의 34.7% 점유
- 인구 천명당 병원은 1.07개로 전남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 천명당 병상 수는 32.13개로 전남의 95.8% 수준으로 병원 수에 비해 병상 수가 부족한 실정

〈표 II-18〉 서남권 시군별 의료시설 현황

(단위: 개소, 개, 명, %)

| 시군 | 인구 | 병원수 | 인구 천명당 병원수 | 병상수 | 인구천명당 병상수 | 의료기관 종사자수 |
|-----|-------------------|---------------|-----------------|------------------|-----------------|------------------|
| 전남 | 1,882,970 | 1,987 | 1.06 | 63,178 | 33.55 | 38,844 |
| 서남권 | 652,456 (34.7) | 699 (35.2) | 1.07 (101.5) | 20,962 (33.2) | 32.13 (95.8) | 13,467 (34.7) |
| 목포 | 232,327 | 285 | 1.23 | 12,099 | 52.08 | 7,058 |
| 해남 | 71,901 | 71 | 0.99 | 1,896 | 26.37 | 1,456 |
| 영암 | 54,731 | 54 | 0.99 | 1,518 | 27.74 | 751 |
| 무안 | 81,991 | 84 | 1.02 | 1,486 | 18.12 | 1,131 |
| 함평 | 33,420 | 35 | 1.05 | 1,205 | 36.06 | 612 |
| 영광 | 54,127 | 69 | 1.27 | 2,048 | 37.84 | 1,193 |
| 완도 | 51,477 | 44 | 0.85 | 143 | 2.78 | 527 |
| 진도 | 31,219 | 32 | 1.03 | 190 | 6.09 | 323 |
| 신안 | 41,263 | 25 | 0.61 | 377 | 9.14 | 416 |

자료: 전라남도, 전남통계연보, 2018.

주: 인구는 2018년 12월 기준

2. 지역발전 사례분석

1) 목적 및 필요성

☐ 서남권 역사문화 및 해양자원 활용 방향 설정

- 목포를 중심으로 서남권 9개 시·군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서남권역의 역사문화자원, 섬·해양자원 등의 활용을 통한 성장 동력화 방안 모색
-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9개 시·군 모두 해양을 접하고 있고, 유사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각자 추진 중인 유사사업의 공동추진과 함께 관련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해양관광,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서남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전략적 추진방향 설정 자료로 활용
- 서남권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관련 프로젝트 구상에 연계 활용

☐ 역사문화자원, 섬·해양관광자원 활용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적용

- 서남권 각 지역에 접목 가능한 해외 역사·문화자원, 해양관광자원 활용사례 조사를 통해 향후 서남권 신성장동력화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 섬·해양자원, 연안크루즈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원도심지역 관광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서남권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수립 시사점 제공

2) 선진사례 조사 결과

□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 아테네

-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이자 박물관 그 자체인 고대 도시 아테네를 신타그마 광장을 중심으로 근대 아테네와 아크로폴리스를 둘러싼 고대 아테네 모습을 보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
- 도시 주요 관광지 주변을 연결하는 시티투어 버스와 주요 관광지 내에서 활용 가능한 공유 전동 바이크를 통해 개별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 서비스 제공
- 주요 관광지를 통합한 다양한 형태의 통합티켓과 도시 곳곳에 비치된 관광안내책자, 시티투어 지도 등을 통해 개별 관광지 방문객들을 지원
- 지역이 보유한 관광자원의 형상과 특성을 토대로 의식주 전반에 걸친 관광상품 개발 및 통합마케팅 추진으로 지역 소상공인 육성 지원 및 지역소득 창출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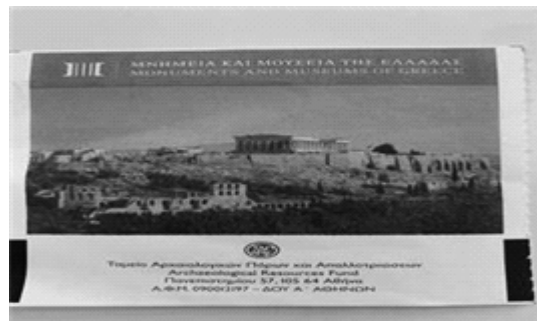
시티투어 버스



아테네 주요 관광지 공유전동 바이크



무료 배포중인 관광안내서 및 지도



아크로폴리스와 디오니소스 극장 통합 티켓

- 신타그마 광장에서 아크로폴리스에 이르는 플라카 지역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19세기 건축물로 가득 차 있으며 좁은 골목길에는 수많은 가게와 노천카페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해 줌
- 인위적 개발을 최소화하고 건축물 규제를 강력히 시행하지만 관광객을 위한 쇼핑가를 포함한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지 활성화
- 주요관광지 주변에 형성된 전통시장과 노천카페 등지에서 쉽게 기념품 등을 구입하고 쉴 수 있도록 연계 공간 조성



도심광장



모나스트리키 시장



노천카페

□ 섬·해양자원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 히드라~포로스~애기나섬

- 아테네 주변 크고 작은 섬을 연결하는 연안크루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연안지역 섬 관광 기회 제공 및 섬 지역 경제활성화 유도
- 연안의 아름다운 섬 3곳을 동시에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중해 섬 방문을 희망하는 관광객을 유인
- 관광대행업체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아테네 시 전역에서 출발하는 관광버스 루트를 운영하는 등 관광객 편의성 증진을 통해 집객화 유도
- 선박은 1~4층이 객실, 식당, 쇼핑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VIP룸을 별도로 마련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피레아스항 크루즈 탑승



선내 기념품 판매점



선내 뷔페형 식당(탑승권에 포함)



선내 공연프로그램

- 히드라(Hydra) 섬은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휴양지중 하나로, 관광객들 대부분은 지중해풍 건축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섬 순환 산책로를 걷거나 노천카페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면서 한가로운 섬의 풍경을 느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공간 제공
- 항구 주변지역에서 당나귀를 타고 마을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면서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주민들에게는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
- 지중해,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흰색과 파란색을 사용하여 통일감과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오랜 건축물의 인위적 개발보다는 보존, 정비를 통해 독특한 골목길의 매력을 제공
- 해안선을 따라 섬 내 각 마을로 이어진 산책로는 해안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길을 만들고 연결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히드라 항 주변



히드라 섬 순환 산책로



히드라 섬 수상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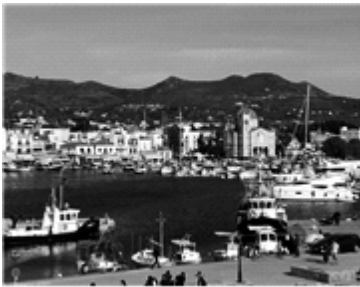
히드라섬 골목

포르로스 섬
시계탑

포르로스 항



해안가에 조성된 노천식당



애기나 항



애기나 항 주변 수산시장



애기나섬 투어 맵

- 포르로스(Proros) 섬은 연안크루즈 선이 접안하는 섬 중 가장 작은 섬으로 아기자기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섬임
- 섬 교통 및 관광수단의 하나로 수상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시계탑 및 섬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등 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함께 관광객 편의성 증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설 정비 등 지속 추진
- 히드라 섬과 유사하게 마을 색채를 통일감 있게 사용하여 독특한 경치를 연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과 관광을 연계하여 주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녹아들 수 있도록 유도

- 애기나(Aegina)섬은 지중해 연안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섬으로 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섬 내 버스투어, 마차 투어 등이 진행
 -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실제 주민의 삶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 관광지와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음
 - 섬 특산물(피스타치오)을 시식판매하는 특산물 상가가 항구 주변지역에서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섬의 주 색상인 흰색과 주황색 건물들이 자연경관과 조화를 통해 볼거리 제공
 - 애기나항에 비치된 애기나 투어지도는 각 코스별 동선과 이동거리, 이동시간, 주요 지점에 대한 정보 등 관광일정에 따라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
- 3곳의 섬 모두 다양한 편의시설 조성과 병행하여 지역 고유의 특성을 관광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섬·해안의 가치를 유자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섬 및 경관자원의 관광상품화 : 산토리니(이아마을·피라마을)

위 치 : 키클라데스 제도 가장 남쪽 끝에 위치한 화산섬
 면 적 : 96 km² (*해안선 : 약 69km)
 인 구 : 11,000명
 특 징 : 화산폭발로 생긴 칼데라 지형으로 섬 주변이 대부분 절벽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아(Oia), 이메로비글리(Imerovigli), 피라(Fira) 등 마을로 구성
 주요산업 : 주로 관광에 의존하고 있으며, 화산지대의 양질의 화산토양, 태양, 온도, 습도 등 좋은 포도 생산 적지로 달콤한 맛의 와인이 유명

- 흰색과 청색으로 대표되는 지중해풍의 독특한 건축스타일, 구불구불한 돌길, 푸른바다, 낙조, 야경 등 경관자원을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전

- 산토리니는 음료 CF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유명해 졌으며, 골목 곳곳에 위치한 카페가 관광상품이 되고 있음. 또한 지역의 경관자원, 건축물 등을 다양한 형태의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하여 지역 경관자원 자체를 기념품화함
-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생활공간을 경관관리를 통해 관광자원화하고, 지역이 지닌 개성 자체를 부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아름다운 낙조, 야간 경관자원 등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1박 이상의 체류 유도
- 항구에서 마을까지 계단을 통해 걸거나 당나귀를 이용하여 진입하거나 케이블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이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산토리니(이아마을) 전경



산토리니(피라마울) 야경



산토리니(피라마울) 낙조를 즐기는 관광객



산토리니(피라마울) 케이블카

□ 인접 섬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섬 특성을 반영한 개발 : 에게해

- 산토리니 주변 섬을 연결하는 요트, 유람선, 연안 및 국제크루즈 도입·운영

- 화산섬 특성을 반영하여 화산섬 투어와 온천, 낙조 등과 연계한 Full day Boat Trip, Half day Boat Trip, Sunset Boat Trip과 Glass Boat Trip, Volcano Only Boat Trip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객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섬에 대한 관광객의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페리, 고속정, 요트 등 다양한 해상 교통수단 활용·연계
- 산토리니 항 주변지역에 크루즈 안내센터, 연계교통(렌트, 셔틀버스, 호텔픽업 서비스 등) 안내소 등과 함께 관광안내소 등이 위치하여 크루즈선에서 하선(下船)한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고유의 섬 성(性) 유지
 - 선착장에서 바라보는 전경은 상대적으로 화산섬 특성상 삭막한 모습이나 관광객 규모에 비해 대규모 개발행위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활용
 -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기존시설 이용을 유도하고, 포토 포인트 등도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도로를 따라 일정 공간만을 확보하여 조성
 - 산토리니 곳곳에는 좋은 경관을 소개하는 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가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특별한 시설 없이 조성해 포토 포인트 역할 수행



산토리니항 크루즈 안내/티켓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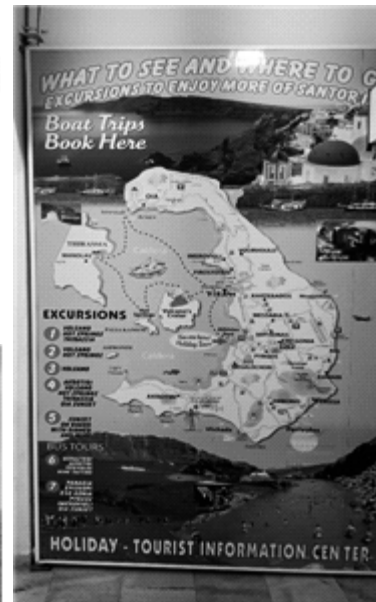
산토리니항 주변 연계교통 안내소 (렌트, 셔틀버스, 호텔 픽업 등)



산토리니항만 개발안내



산토리니 연계 여객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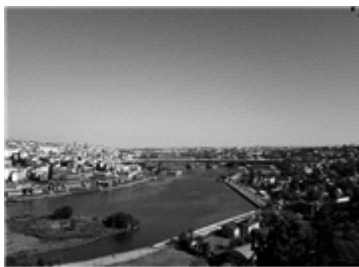
산토리니 연안크루즈 노선안내도

□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관광 거점 조성 : 피에르로티(이스탄불)

- 프랑스의 해군 장교이자 유명한 작가 피에르로티(Pierre Loti)의 이름을 딴 언덕으로 피에르로티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야기를 배경으로 프랑스 관광객들이 즐겨찾던 장소에서 시작하여 국적에 상관없이 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표 관광지로 변화
 - 소위 낙후된 달동네 지역과 공원묘지 위 언덕에 스토리를 입히고 멋진 조망지점과 연계하여 낙조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변화
 - 이스탄불 시내를 바라보며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오래된 카페 내에 피에르로티 관련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어 예전 모습과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볼거리
- 공원묘지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는 왕복형으로 티켓발권은 무인자동발급기를 활용
 - 언덕 정류장 위에 전망대 조성을 통해 도심경관 조망 등 장소마케팅
 - 케이블카 자체는 하나의 이동 수단에 불과하며 언덕위 카페의 휴식과 피에르로티 관련 스토리, 시내를 바라보는 경치로 관광객 유인



피에르 로티 언덕 카페 내·외부



피에르 로티 언덕 상가

피에르 로티 언덕에서 본 도시풍경

피에르 로티 언덕 케이블카

□ 다양한 교통수단 연계관광 프로그램 : 보스포러스 연안(이stanbul)

- 대륙간 연계를 위한 연안여객선 및 순환유람선 등 해상교통 운영
 - 보스포러스 해협을 이용한 관광용 소형 페리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라고 불리는 양 지역의 경관을 비교 감상할 수 있어 이스탄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크루즈 관광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
 - 보스포러스 연안 여객선은 아시아와 유럽지역을 연계하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출퇴근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시티투어버스 등 내륙 교통수단과 연계하여 다양한 상품으로 활용



보스포러스 연안 여객선 매표소·터미널



보스포러스 연안 여객선



도심내 공유자전거



보스포러스 연안크루즈연계 시티투어 맵

□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를 연계한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 그랜드바자르

- 그랜드바자르(Grand Bazaar)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실내시장으로, 60여개의 미로 같은 통로에 5,000여개의 상점이 있으며, ‘가장 오래된 시장’,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시장’ 등의 칭호를 받으며 관광상품화
- 각종 수공예품, 양탄자, 수공 도자기 제품, 구리세공품, 각종 골동품, 가족, 기념품, 먹거리 등을 판매하여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물건을 구매해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제공
- 그랜드바자르 인근에 성소피아 성당, 블루 모스크, 지하궁전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천카페, 디저트카페, 음료, 아이스크림 및 젤리 판매점 등이 관광객들을 유인



그랜드바자르

3) 시사점

□ 주민의 삶과 연계된 관광개발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에 기반한 관광개발, 프로그램 개발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노력
-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에 새로운 편의시설을 개발하기 보다는 인근 마을로 관광객이 방문하여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존 거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상생 도모

-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관광지 이면에 카페테리아, 레스토랑, 상가 등을 입지시켜 관광객 유입효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 형성
- 결국 관(官) 주도의 관광지 개발방식을 지양함으로써 지역민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과 함께 관광객으로 인한 고유문화 변질 혹은 파괴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수적
- 지역차원의 관광두레, 관광협동조합 결성 등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역성을 토대로 관광산업 활성화 유도
- 섬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섬 지역 주민 소득수준과 삶의 질 제고 도모
 - 페리, 크루즈 등 다양한 해상교통수단과 항공교통수단 연계를 통해 섬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교통권 확보 병행
 - 지역사회기반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숙박, 카페테리아, 상가로 관광객 유입이 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
 - 섬의 경우 도로의 협소함과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교통수단 도입을 통해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 수단으로 활용

□ 자연·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가치지향적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화

- 오래된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하여 건축물의 가치를 확보하여 그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 세월이 지나 생활이 불편해져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훼손되고 없어지기 쉬운 자원들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통합관리
 - 이스탄불의 역사문화 보호 및 복원 차원의 체계적 계획 수립·집행 사례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서남권 원도심지역의 재생과 자원화에 참고 가능
-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역사·문화자원(유적, 유물 등)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칙 준수

- 관광객들을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고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자원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면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찾아 올 것이라는 근본적인 믿음 유지
- 역사유적을 보존하고 인근에 위치한 주거지, 사유지, 문화재, 교통, 편의시설 등을 잘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은 인위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고 개발은 자연훼손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추진
 - 경관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원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수준의 개발을 추진하고,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과 컬러 마케팅 등을 통해 기존 자원들 간의 연계성 확보
 - 특히 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독특한 경관보전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관광 개발 최소화를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섬, 마을단위 작은 관광지 개발 및 이미지 메이킹
 - 마을단위로 보유한 역사문화나 체험거리를 테마별로 발굴, 스토리연계
 - 지역 고유의 자원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이벤트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 도모

□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 거점시설의 관광자원화

- 유명한 관광 스토리텔링 사례들은 호기심 요소, 스토리 인지도, 기념적인 요소들이 공통적 핵심 성공요건임
- 지역내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완료된 케이블카, 교량 등 SOC시설과 지역내 스토리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화 방안 모색
 - 실제 서남권 지역에 존재하던 스토리, 장소나 대상의 역사·문화·예술적 스토리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창출
 - 대상이 갖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작간접적 체험요소를 발굴 연계하는 한편, 명확한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목표에 적합한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 단순 스토리를 수집하고 이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광자원화를 목표로 관광객 대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과 스토리를 연계하여 상품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

□ 차별화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

- 지역내 방문객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해 시설 재정비와 함께 각종 편의 시설 확충을 통해 시장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집객효과 극대화
- 지역별 비교우위품목을 중심으로 타 시장과 차별화하는 한편, 주요 역사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 자체의 관광상품화 추진
- 전통시장은 지역의 문화와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 중 하나로 국내·외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충분한 장점 보유
- 단순히 상품거래의 공간을 넘어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연계한 관광복합형 시장으로 특성화
- 시설 현대화, 재건축 등을 통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과거 모습을 추억할 수 있는 시장, 특정 품목이 집약된 시장으로 복원을 통해 관광시장화하는 방안 병행 검토
- 지역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관광루트(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성장 지원

□ 지역특산품 활용 상품개발 및 상점가 조성으로 집객효과 극대화

- 유동인구 유입이 많은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을 보유한 특산품과 지역산물의 거래가 가능한 쇼핑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동인 마련
- 보고 즐기는 시각적 관광행태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구매하는 공감각적 패턴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구매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특화상품 개발 필요

- 서남권 9개 시·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포지셔닝을 위해 공동브랜드 개발과 함께 차별화된 지역브랜드상품 개발 및 체계적인 마케팅 추진
- 독립상품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 지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개발, 상품화를 위한 Control Tower 등 통합 마케팅체계 구축운영(단, 공동상품의 공신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최소한의 기준 마련 필요)
-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상품화 추진을 통해 소득원 창출과 함께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3. 여건 변화 및 지역발전 잠재력

1) 지역발전 여건 변화

□ 미래지향적 국토성장축의 핵심 지역

- 한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전남 서남권은 남해안축과 서해안축이 만나는
결절지역으로서 관광·레저·물류·신재생에너지 등 연안산업 최적지
- 전남 서남권은 타 지역에 비해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성장세 유지
 - 전국 GRDP의 1.2%(18.3조원), 전국 1인당 GRDP의 89.6% 수준이나,
2015년 현재 GRDP(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기준) 연쇄지수는 평균
113.4(2010년 기준)로 전남 107.8 보다 높고 1인당 GRDP도 27.2백만원
으로 2007년~2010년간 연평균 18.9백만원 대비 약 1.4배 높음.
- 전남 서남권의 산업, 재정, 기업유치 실적은 정체된 상황이나 ‘남해안 선
벨트 종합계획’, ‘산업협력권 프로젝트’ 등의 추진에 중심역할 수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II-14〉 시도간 산업협력권 프로젝트

□ 한반도 신경제구상(H 경제벨트)의 지경학적 요충지

- 전남 서남권은 “H 경제벨트”의 중요한 축으로 남북경협과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화해와 협력 시대 “번영의 축”으로서 역할 부상
- 한반도 ‘H자축’의 서해안은 ASEAN과 인도와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물류·교통 등 환황해 경제벨트로 조성

- 전남 서남권은 환황해 경제벨트의 시발점인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을 겨냥한 신북방정책의 결절지로 지경학적 요충지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림 II-15〉 한반도 신경제 구상도

2) 지역발전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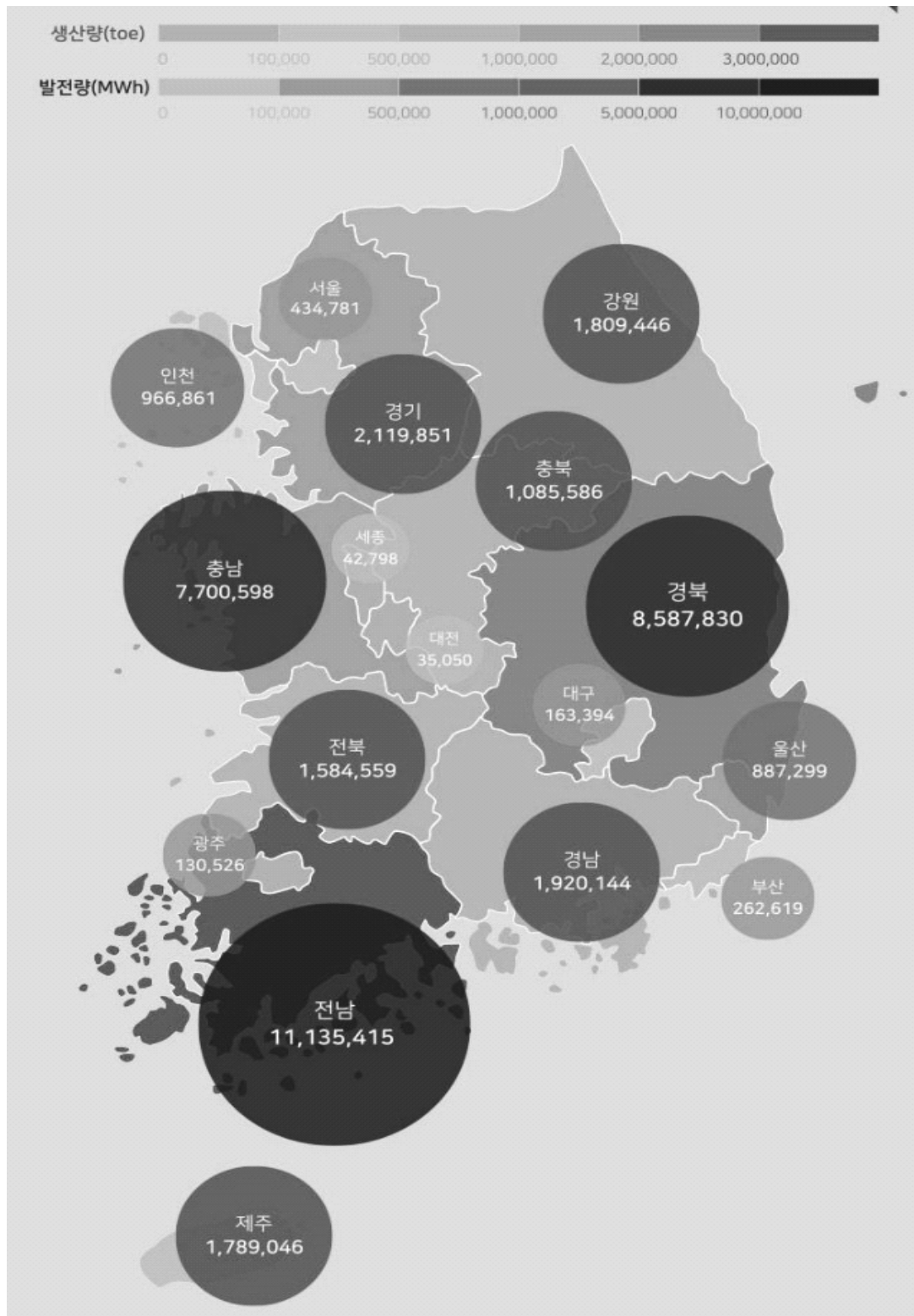
□ 해양관광·레저지대로의 발전을 위한 천혜의 잠재력 보유

- 전남 서남권은 천혜의 도서·해양자원 보유로 크루즈와 항공관광 등과 연계 가능한 동북아 최고의 해양관광지대로의 발전 잠재력 풍부
- 다도해국립공원, 세계 5대 갯벌, 청정수산물과 안전한 수산식품, 해안선, 해수욕장, 도서 등 독특한 해양기반 관광자원 보유

- 전남 다도해권은 ‘제2차 해양관광진흥 10개년 계획’을 통해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자연환경에 부합하는 관광루트 개발과 휴양·체험·생태벨트로 조성 중에 있음.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일원은 국제선도지구사업을 통해 수산식품, 항공,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육성사업 추진 중
 - 국제선도지구 사업은 환황해 경제권 부상에 대응해 개방형 국토축 완성을 추진하고, 서남권 천혜의 섬·해양자원을 크루즈 및 항공관광과 연계해 동북아 최고의 해양관광지대로 육성할 목적으로 계획된 사업(*총 사업비 3조 4,100억원 소요 예상)

□ 신·재생에너지생산의 최적 입지

- 전남 서남권은 해상풍력, 태양광, 파력, 조류 등 해양에너지원이 풍부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관련 산업 육성의 최적지
 - 신재생에너지산업 : 복합플랜트 개발·건설 및 부품·설비 산단, 전용항만 및 송전선로 건설, 발전단지 유지보수 시설 등
 -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은 2,788kw(2016년 기준)로 전국 최대의 누적 발전 설비용량 보유
 - 전남해안의 평균 풍속은 6m/sec 이상
 - 해상 풍력잠재량은 7,897톤, 발전량은 315,897GWh로 전국 최고
 - 목포시 일사량은 3,331kcal/m²로 전국 평균 3,092kcal/m² 상회
 - 조류속도는 진도 울돌목 최대유속 6.2m/s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2017.

〈그림 II-16〉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발전량

- 한편, 전남 서남권은 농수산업 발달, 농업부산물 및 축산분뇨, 해조류 등을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자원도 풍부하여 전국 최고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및 발전량(전국 대비 27.4%) 기록

☐ 투자가 용이한 안정적 토지자원 보유

- 전남 서남권의 최근 5년간 지가변동률은 1.95%로 전국 평균 2.42%, 대도시 2.77%, 전남 2.41% 대비 낮은 수준이며, 지방 평균 2.62%에 비해 매우 낮아 저렴한 토지확보 용이

3) SWOT 분석

(1) 내부적 요인

☐ 강점(Strength)

- 환황해경제권 중심지로써 유리한 지경학적 위치
 - 중국-한국-일본을 잇는 중심위치로 중국의 황해 연안지역, 특히 중국정부가 대외교역거점으로 개방하고 있는 상해와 근접하여 지경학적 유리한 위치
 - 한반도 신경제구상(H 경제벨트)의 핵심 축으로 남북경협과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종착점이라는 지경학적 요충지
 - 국토의 미래 성장축의 핵심 지역으로 남해축과 서해축의 결절지역에 위치, 섬·해양관광·해양물류·해양에너지산업 및 연안형 산업지대 건설의 최적지
- 전국 최대의 저탄소 녹색에너지 산업벨트 형성 지역
 - 전남 서남권은 해양에너지(해상풍력, 태양광, 파력, 조류)가 풍부하여 신·재생 에너지 산업 선도
 - 대규모 복합플랜트 개발·건설 및 부품·설비 산단 조성, 발전단지 유지보수 시설 등 관련 산업 입지의 최적지

- 농수산업이 발달, 농업부산물 및 축산분뇨, 해조류 등을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자원도 풍부
- 섬, 갯벌 등 세계적 수준의 해양자원과 친환경 생태자원 보유, 동북아 최고의 해양관광지대로서의 발전 가능성 보유
- 다도해국립공원, 세계5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안 갯벌, 비교우위의 해안선, 도서 등 세계적 수준의 해양생태자원과 전통역사 문화자원 보유
- 기존 기획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관광루트 개발, 휴양·체험·생태벨트로 조성 중에 있어 상호 연계를 통한 세계적 관광지대화 가능
-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및 구축 예정으로 국내외 거점도시와의 접근성 우수
- 무안국제공항, 목포신항만, 호남고속철도, 목포~광양 고속도로,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으로 인한 물류 및 교통의 요충지, 국제교류 중심지화
- 청정·신선한 친환경농수산물 최대 생산지역으로 농업, 수산 등 융복합 생명산업 최적지
- 전국 최대 경지면적과 양파, 고구마, 배추, 시금치, 울금, 천일염, 수산양식 산업 등 힐링 농수산물 생산지역

□ 약점(Weakness)

- 경제규모 한계 및 지역내 산업기반 취약에 따른 활력 저조
- 자체 경제규모가 작고 기존산업 및 신산업 기반자체가 취약하여 지역내 산업 성장 동력 확보가 한계
-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가용자원 부족
- 농림어업 및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적 특징으로 제조업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부족
- 조선업 경기 침체 등으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 활력 저하 심각

- 농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 서남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및 고령화되고 있어 자생적인 지역발전 및 지역 활력 둔화
 - 도시외곽 위주의 개발, 신규주거단지 개발로 인구유출, 원도심 공동화 발생
- 급속하게 확대될 신북방, 신남방정책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체제 미흡
 - 중국 동부 해안지역 글로벌 도시-지역과의 보완적 연계관계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전략 미흡
 - 대북교류 확대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교류 증대 등에 대비한 지역 차원의 대응전략 부재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기반시설 및 관광상품개발 미흡, 국제적 인지도 부족
 - 중·고급 관광숙박업체, 관광편의시설 등 관광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상품 개발 한계
 - 여수세계박람회 및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계기로 조성된 SOC 및 관련 관광시설 개선 등 전남 동부권과의 격차 심화로 관광객 편중 심화
- 지역내 내륙과 도서간의 공간적 통합성 미흡
 - 다수의 도서를 포함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내륙과의 연계성 및 서남권 지역 전체의 공간적 통합성 확보 곤란

(2) 외부적 영향요인

☐ 기회(Opportunities)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

-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 혁신역량 제고, 지역간 연계협력과 지역관광거점 육성 등 추진 예정
 -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거점화, 섬진강 동서화합 문화예술벨트로 조성²⁾
- 건강, 휴양 및 생태자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
 - 동북아경제권 규모 확대, 주 5일 근무와 건강·휴양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여건 변화는 지역 내 청정·생태자원의 활용에 유리한 여건 제공
-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외부 접근성 향상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시 신북방·신남방정책의 전진기지 역할 기대
 -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근접성에 의한 입지적 이점과 공항, 항만 등 국제 교류기반 보유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국제 교류거점 역할 수행 기대
-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 중요성 증가
 - 식량자원으로서 수산물 생산 및 소비에 대한 관심 증가
 - 해양에너지 자원의 개발수요 증대 및 상용화 추세 급속화
 - 해양지향적 국토개발,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환경 관리 방식 변화
- 지자체간 연계·협력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
 - 지방자치 활성화, 지역내 한계 극복을 위한 지역 협력 및 개발의 새로운 유형 등장
 - 자치분권 강화, 기존 초광역·광역경제권, 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을 통한 지역간 연계·협력의 가능성 확인

□ 위협(Threat)

- 복지수요 증대로 지역차원의 개발 재원 감소, 대규모 SOC개발 지양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의 지속증대, 청년실업, 경기 악화로 인한 일 자리 창출 중심의 정부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지양

2) 지역발전위원회(2018. 2. 1.)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p. 11.

- 자치단체간 불균형 및 갈등요인 상존
 - 자치단체별로 특화분야가 중복되어 있어 독자적인 유사분야 개발 추진 시 갈등요인 상존
- 기 추진 중인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경합으로 인한 따른 실행력 저하 우려
 - 인접지역에서 계획·추진예정인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의 경합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발전효과 및 실행력 저하 우려
-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생태환경 및 지역정체성 훼손 우려
 -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청정·생태환경자원 훼손 우려 및 지역이 지닌 고유한 정체성 상실 우려 증대
- 해수면상승 및 기상이변 발생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증대
 - 생물다양성 감소, 물 부족,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강화로 개발속도 둔화
 - 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라 한정된 에너지 자원고갈에 대한 위기감 고조
 -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증대로 자연생태계의 보전, 국토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요구 강화

(3) 대응전략 방향

☐ 강화(S-O)전략

- 환황해권 교류협력거점 기능 강화
 - 육해공 교류기반(SOC) 및 관련 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한 접근편의성 향상으로 교류협력 거점화 추진
 - 신남방·신북방정책 등 정부 대외교류 선도거점으로써 서남권의 지경학적 이점 활용

- 섬·해양관광, 생명산업 특화
 - 섬, 해양, 갯벌 등 서남권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추진
 - 전국 최대 친환경농수산물 생산지로서 이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
- 해양수산 관련 인프라 확충
 - ‘수산물식품 수출단지’ 중심으로 지역산지간 연계 활성화 및 기능적 분화를 통해 R&D, 마케팅, 창업지원 등을 통한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
 - 해양과 접한 지역특성에 기반, 해양자원과 연계한 해양레저, 차세대 조선산업 육성 및 이와 연계한 전후방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자치단체간 자원 공동활용을 통한 규모화
 -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지양하는 자원의 공동활용 추진
 - 각 지자체 보유자원간 연계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규모의 경제 추구

□ 극복(S-T)전략

-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 서남권이 보유한 섬, 해양, 바람 등 자원을 토대로 기 조성된 풍력단지 등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집적지대 조성
- 농수산 식품산업 육성, 웰니스산업 육성 강화
 - 청정자연 기반 친환경농수산물 생산체계 효율화 및 가공기술의 개발·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 친환경농수산물과 지역 생태계를 활용한 웰니스산업 육성기반 조성 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자원 훼손 방지
 - 기후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섬, 해양, 해안, 갯벌 등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보호

- 해양자원 가치극대화 및 융복합산업 육성
 - 해양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 및 사업화 추진으로 지역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추진
 - 친환경농수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화 추진으로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일자리 기회 제공을 통해 인구감소 등에 대응

□ 보완(W-O)전략

- 국제인지도 향상을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 자연·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의 대내외 이미지 확산
- 신북방, 신남방정책 추진과 연계한 공동 대응전략 마련
 - 서남권의 지경학적 위치를 토대로 지역공동체적 대응을 통해 정부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신남방·신북방정책의 거점으로 도약
- 민간자본 유치에 위한 여건조성
 - 지역특성에 기반한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투자 유인동기 마련 및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체계 구축·활용
 - 신산업 육성 등 지역투자 유치를 위한 신성장요인 발굴 및 창업생태계 구축·지원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추진
- 주민소득 증대사업 기반 강화
 -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기반형 사업 및 생산·가공 등 1/2차 산업 활성화에 위한 맞춤형 사업지원 체계 구축
 - 사업의 다각화 및 구조 고도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 마련

□ 방어(W-T)전략

- 기 발굴사업의 연계 개발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유사동종사업의 연계를 통한 공동사업성과 극대화 추진
 - 신규사업 추진시 기 추진사업의 특징점을 활용·반영함으로써 사업효율성 증대
- 공동브랜드 개발 등 서남권 지역 동질성 확보
 -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과 함께 지역 공동의 정체성(Common Identity / Brand Identity) 개발 추진
 - 개별지역의 역량 한계 극복을 위해 통합마케팅 등 공동사업 추진
- 자원 공동발굴 및 연계·협력체계 구축
 - 지역의 성장을 위한 신소득원 발굴 등 자원의 공동개발 추진
 -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등에 있어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지양하기 위해 서남권 지역간 상시 소통기반 등 연계·협력체계 구축
-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육성
 - 지역특성 및 보유 특화자원 등 지역별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특화전략 추진
 - 개별 사군의 특화발전과 지역간 연계를 통해 서남권 지역역량 극대화

| 강점(Strengths) | 약점(Weaknesses)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경제권시대 관문으로서의 지경학적 결절지 □ 전국 최대의 신재생에너지산업벨트 형성 지역 □ 세계적 수준의 해양자원과 친환경 생태자원 보유 □ 서남해안 및 동북아 교통, 항공, 물류 요충지 □ 융복합 생명산업 최적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가용자원 한계 □ 산업기반 취약에 따른 활력저조 □ 농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 신북남방정책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체제 미흡 □ 관광상품개발 미흡, 낮은 국제인지도 |
| 기회(Opportunities) | 위협(Threats)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의지 □ 건강, 휴양 및 생태자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 □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외부 접근성 향상 □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증가 □ 지자체간 연계·협력 필요성 및 중요성 인식 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수요 증대로 지역개발 재원 감소, 대규모 개발 지양 □ 자치단체간 불균형 및 갈등요인 상존 □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경합으로 실행력 저하 우려 □ 지역개발에 따른 생태환경 및 지역정체성 훼손 우려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증대 |

| 강화(S-O)전략 | 보완(W-O)전략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황해권 교류협력거점 기능 강화 □ 섬·해양관광, 생명산업 특화 □ 해양수산 관련 인프라 확충 □ 자치단체간 자원 공동활용을 통한 규모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지도 향상을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 신북방, 신남방정책 연계 공동 대응전략 마련 □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여건조성 □ 주민소득 증대사업 기반 강화 |
| 극복(S-T)전략 | 방어(W-T)전략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 농수산 식품산업 육성, 웰니스산업 육성 강화 □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자원 훼손 방지 □ 해양자원 가치극대화 및 융복합산업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발굴사업의 연계개발을 통한 시너지 창출 □ 공동브랜드 개발 등 서남권 지역 동질성 확보 □ 자원 공동발굴 및 연계·협력체계 구축 □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육성 |

CHAPTER

03

서남권 비전 및 전략 방향

1. 서남권 비전 및 전략목표
2. 서남권 지역발전 구도

03

서남권 비전 및 전략 방향

1. 서남권 비전 및 전략목표

1) 계획의 비전

□ 비전의 도출

바다로 세계로, 하나된 미래로

-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공동체적 특성
 - 지역이 보유한 핵심자원과 가치(禮義味)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지역발전의 성장동인으로 활용
- 국도 1/2호선의 결절지이자 해로의 시작점, 해양진출의 관문
 - 섬, 갯벌, 바다 등 지역이 보유한 해양자원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해양문화의 가치극대화를 통해 신해양시대를 주도
- 육지의 끝이자 해양의 시작점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교두보
 - 정부의 신북방·신남방정책 추진의 시발점이자 지경학적 요충지로서, 글로벌 시대의 국토 성장거점으로 도약
- 미래 통일시대,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기폭제
 - 한반도 중심의 하나된 시장형성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동북아해양시대 미래거점으로 성장

- 각 지자체의 개별적 역량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 설정 및 성장 추구
-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개별적 한계를 공동의 추진력으로 전환하는 등 통합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시너지 창출

□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



-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딘 서남권 중심의 성장동인을 발굴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전략방향 마련
- 지역산업구조 및 보유역량 등에 기반한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
- 특정 지자체만의 독자적 사업을 지양하고, 각 지역의 적극적 참여와 발전방향 및 사업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역의 동반성장 유도
- 지역발전 자원 및 추진동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남권 지자체의 참여와 공감을 토대로 한 지역발전구상 제안 및 효율적 추진방향 제시
- 사업추진의 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의 공동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역참여형 프로젝트 발굴 및 효과 극대화 방향 제시
- 지역이 보유한 차별적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간 연계 및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광역적 지역발전역량 강화
- 사업추진 목적이 유사한 사업은 지역간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역량이 미흡한 부문은 타 지역이 보유한 역량 활용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체적 사업추진으로 성과 극대화 발현

2)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의 전략목표

☐ 모두가 잘 사는 서남권

- 지역특성 및 보유자원의 효과적 활용으로 성장잠재력 극대화
 - 서남권 9개 시군 모두 바다를 접한 지리적 특성과 지역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은 고유의 자원을 보유
 - 보유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및 보존을 통해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과제의 발굴과 추진 필요

☐ 누구나 머물고 싶은 서남권

-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역사문화관광거점 도약
 - 지역의 역사전통자원 및 천혜의 자연자원을 토대로 관광수요 창출 및 만족도 제고 등을 통해 단순 방문형 수요를 체류형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 풍부한 농수산자원 및 이를 활용한 전통 식품산업 육성 등으로 관광수요와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추진

☐ 미래를 함께 여는 서남권

- 지역 특화산업 연계 및 미래신산업 발굴·육성 등 지역성장동력 확충
 - 세라믹, 조선 등 다소 침체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방향 등을 반영한 신성장분야로의 사업다각화 방안 마련
 - 4차 산업혁명시대 신기술 패러다임 변화와 기술 융복합화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 발굴 및 육성방향 도출

(2) 전략과제 발굴 방향

□ 지역의 새로운 성장판, 그랜드디자인 발굴

- 지역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중장기에 걸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지역의 새로운 발전구도 형성이 가능
- 프로젝트가 전체 혹은 다수 시군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사업규모 또한 단위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커 지자체의 공동협력이 필수적인 과제
 - 특히 해양관광분야, 신재생에너지분야, 수산식품분야, 서남권 물류거점 등 SOC분야 및 중국, 남북 등 교류협력분야 등으로 대별하여 과제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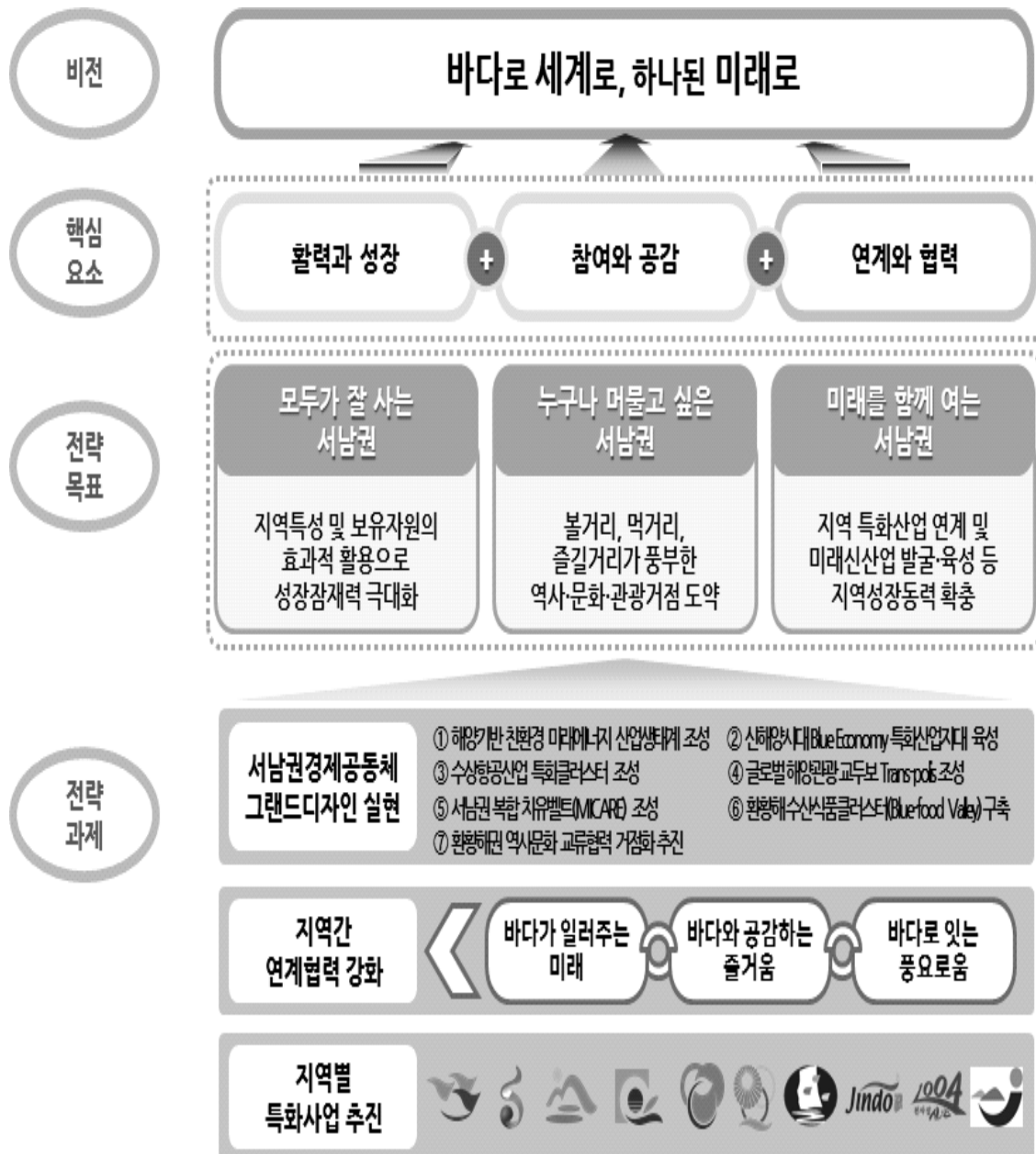
□ 지역간 동반성장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발굴

-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공동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중단기에 걸친 사업추진으로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견인
- 프로젝트가 다수 혹은 일부 시군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사업추진 역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과제
 - 지역별 특화자원 등에 기반한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원 등 사업추진 한계로 다수 시군 공동노력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과제 발굴

□ 차별성을 지닌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

- 지역특성 및 보유 특화자원 등 지역별 잠재자원의 차별화를 통해 지역의 도약을 이끄는 프로젝트로, 지역역량의 극대화를 통해 특화발전 추진
- 개별 시군의 성장과 함께 지역간 연계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미래 지역발전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

- 서남권역과 지역의 상생을 목표로 지역 숙원사업 등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제반 분야의 과제 제시



〈그림 III-1〉 서남권 비전 체계도

2. 서남권 지역발전 구도

1) 공간구도 설정의 기본 방향

- 서남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지역 각각의 특성과 잠재력 등을 토대로 구도 설정
 - 공간적인 동질성과 통합성을 토대로 동북아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 성장거점으로 육성
 - 차별화된 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구도 정립 및 이를 토대로 한 미래전략사업 발굴
- 지역별 특화자원 중심 산업구조 검토 및 국가광역지자체 차원의 주요 추진정책에 적극적인 대처 및 정합성 확보 필요
 - 서남권 사군별 보유자원과 입지적 특성에 기초하여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방향 제시
 - 특히 에너지, 조선, 관광, 친환경농수산물 등 대표적인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구도를 설정하는 한편, 집중 육성을 위한 지역발전 구도 정립
 - 지역특산물 중심의 산업 집중화와 가공·유통센터의 조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민의 소득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역별 자연·역사·문화자원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벨트 형성 등 자원연계 기반 수요지향적 발전구도 설정
 - 특화된 자원을 상호 연계한 통합루트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유도하며, 일회성 방문수요를 재방문 및 체류형 수요로 전환 유도

- 천사대교 개통, 관광케이블카 등 지역관광기반을 활용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유치효과를 서남권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기반 구축

2) 서남권 지역발전 구도 설정

□ 해양과 내륙이 조화되는 **커플**형 성장벨트 : C(ouple)

- 대상권역 시·군 모두 해양을 접하고 있으며, 해양자원과 내륙자원이 조화되는 연계 활용을 통한 권역발전 추진
- 해안권의 경관자원 및 섬, 해양, 갯벌 등 해양자원을 토대로 상호보완적인 활용가치 극대화로 상승효과 유도
- 해양환경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등 자원 잠재력과 이의 활성화를 위한 내륙권의 산업기반 조성 등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미래전략산업화 추진 필요

□ 해안역을 **연결**하는 노을빛으로(路) 관광축 : L(ink)

- 해안권을 따라 9개 시·군을 연결하는 국도77호선 및 해안일주도로를 기반으로 지역간 관광루트화 등 연계발전 유도
- 특히 국토 서남권 위치를 활용해 기 운영 중인 시·군별 낙조관광상품 등의 연계를 통해 통합관광수요 창출 및 경제산업분야 성장축으로 활용

□ 9개 시·군별 보유자원간 연계 및 효율적 **활용** : U(seful)

- 각 시·군은 차별화된 특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각각 자원의 차별성과 유사성을 토대로 자원간 연계를 통해 가치창출의 극대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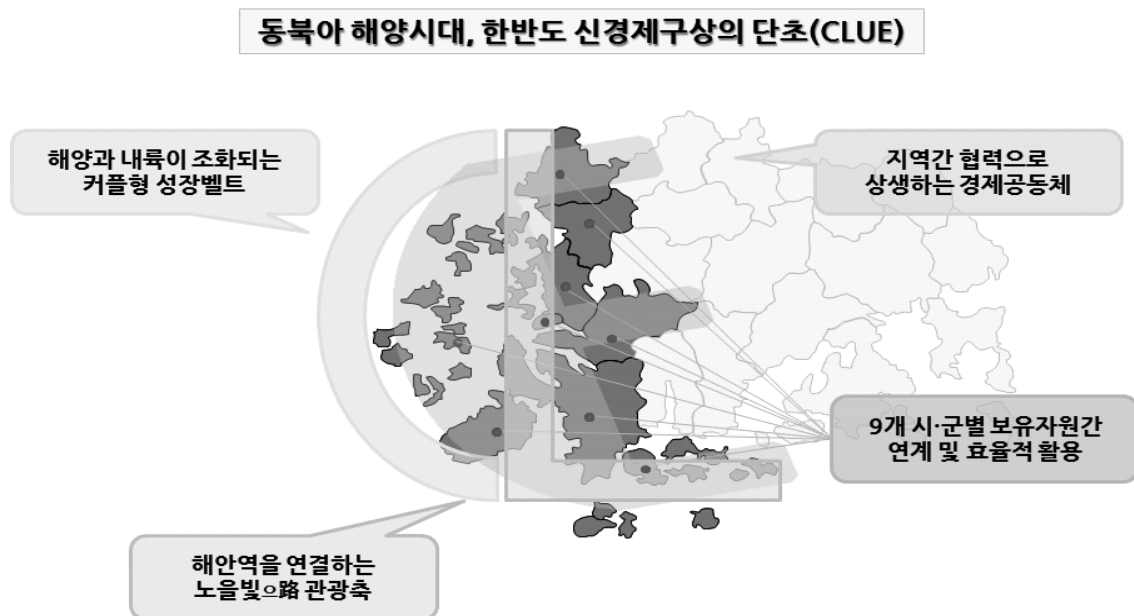
-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추진과 함께 가치사슬상의 역할 분담 및 집약체계 등 효율적·효과적 산업생태계 구축

□ 지역간 협력으로 **상생발전**하는 경제공동체 : E(volution)

- 지역별 독자적 사업추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지역간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토대로 연계·협력 기반의 경제공동체화 추진
- 지역간 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규모화를 통한 타 지역과의 교류·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등 지역발전 효과의 확산 유도

□ 시·군별로 산재된 보유자원(점), SOC 등 연결기반(선), 지역의 특성(면)이 결합하여 하나된 지역발전 구도 설정

- 조화(커플), 연결, 활용, 상생·발전 등 키워드를 토대로, 사건이나 이벤트를 풀어 나가는 첫머리란 의미의 단초(端初; CLUE)로 서남권 지역발전 구도의 공간화



〈그림 III-2〉 서남권 지역발전 구도

CHAPTER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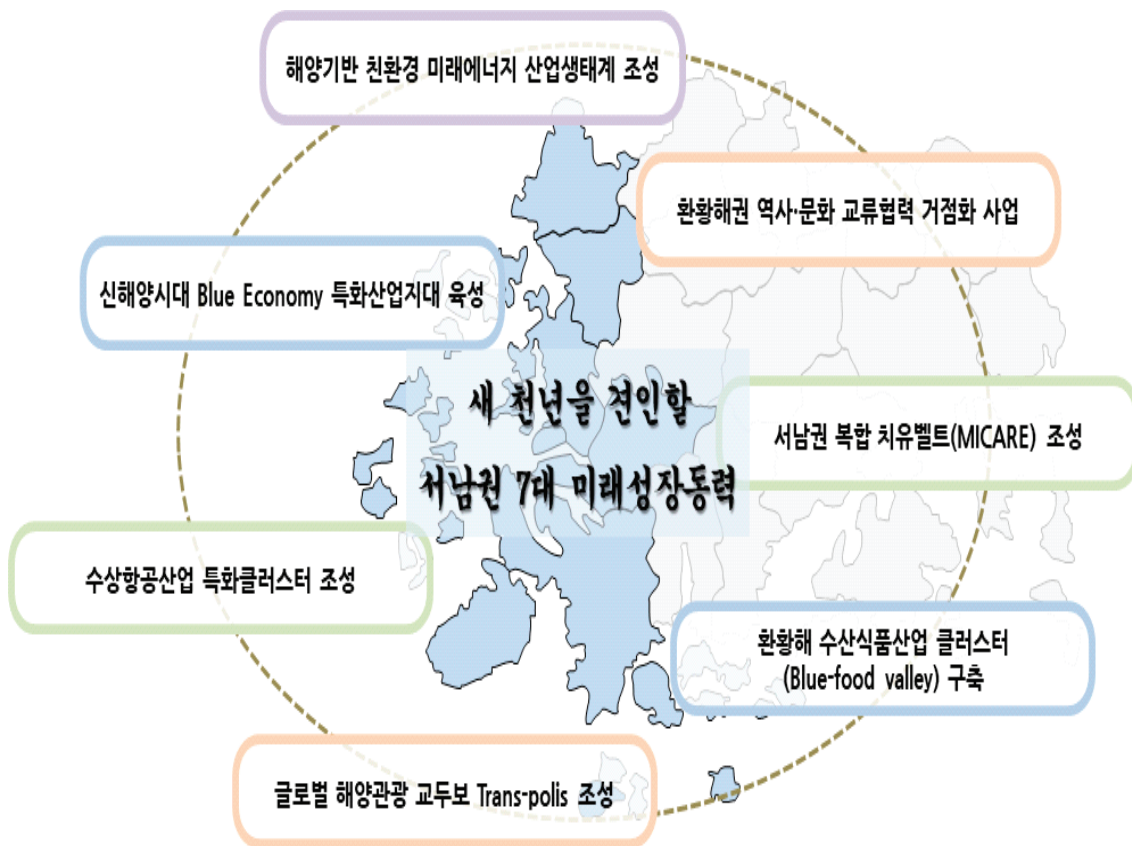
중점과제별 기본구상

1. 서남권경제공동체 그랜드디자인 실현
2.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3.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04

중점과제별 기본구상

1. 서남권경제공동체 그랜드디자인 실현



〈그림 IV-1〉 서남권 7대 미래성장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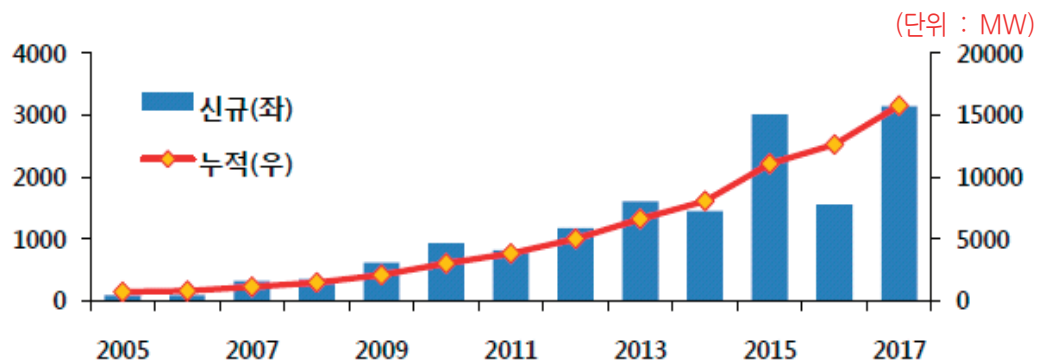
1) 해양기반 친환경 미래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

1.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

- 사업위치 : 목포, 신안, 완도, 영광, 해남
- 사업기간 : 2019 ~ 2030
- 핵심사업 :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자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민간투자유치 등

□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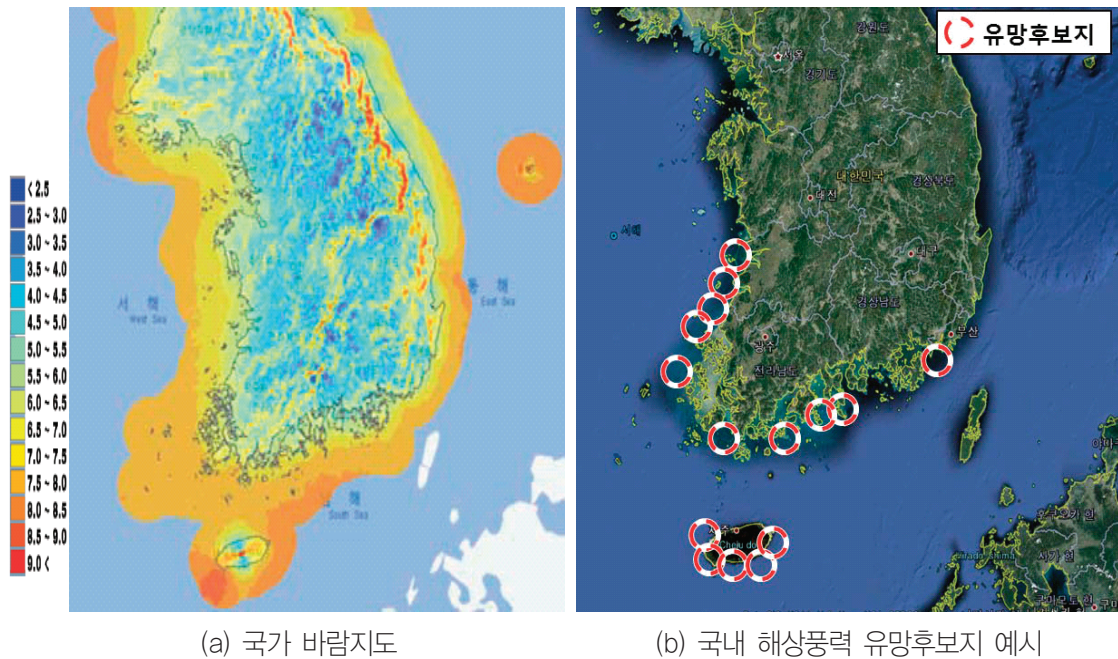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차세대 유망 에너지원으로 해상풍력이 급부상하고 있음.
- 풍력은 태양광과 함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원으로 각국의 친환경 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육상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 기존의 육상풍력발전은 소음 유발, 주변경관 훼손, 부지확보 어려움 등의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음.
-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양질의 풍력자원을 확보해 설비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대규모 단지 조성이 수월함.
-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하락으로 영국,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해상풍력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 중
- 2017년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18.8GW로 2011년 대비 4.6배 증가했으며, 2020년까지 신규용량 15GW 이상 추가 전망



자료 : 박정석, 남대엽(2018), 아시아에 불어오는 해상풍력-유럽 이을 차세대 성장 시장으로 부상 중

〈그림 IV-2〉 유럽의 해상풍력 신규 및 누적 설치 용량

-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대할 방침이며, 해상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달함.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제시한 전체 신규 설비용량은 48.7GW이며, 이 중 12GW를 해상풍력으로 충당할 계획
-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신규) : 태양광 30.8GW, 풍력 16.5GW(해상풍력 12, 육상풍력 4.5)
- 정부는 지역주도 해상풍력 단지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先단지 조성 - 後 사업자 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할 방침
- 서남권은 풍부한 풍력자원, 적정 수심 등 해상풍력 발전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필요
- 서남권은 평균 초속 7m/s 이상 풍황과 15~20m 수심지역이 넓게 형성되어 있음.
- 서남권의 해상풍력 잠재량은 12.4GW(전국대비 37%)인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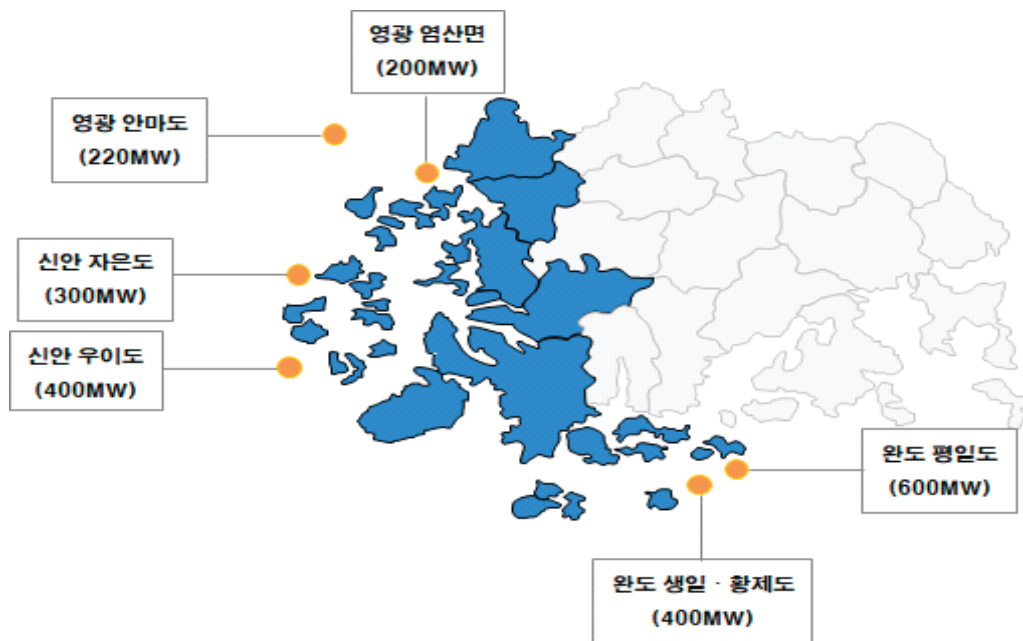
자료 : 송승호(2017), 해상풍력발전의 기반 조성·사회수용성 향상 방안, 국회신·재생에너지 포럼·해상풍력 산업화 전망과 과제(2017. 6. 8.)

〈그림 IV-3〉 국내 해상풍력 자원 분포

- 지역특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효과 극대화 전략 마련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및 투자활성화
 -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6개소, 2,120MW)
 - 사업 대상지 : 신안 2개소(우이도, 자은도), 영광 2개소(안마도, 염산면), 완도 2개소(평일도, 생일·황제도)



〈그림 IV-4〉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조성 사업 후보지

- 서남해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민간투자 유치
- 40MW 이상 대규모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민간주도형 해상풍력 개발사업 추진

〈표 IV-1〉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득 현황

| 발전단지 | 사업자 | 위치 | 용량(MW) | 허가 취득일 |
|------------|------------|----------------|--------|------------|
| 완도해상풍력 | 완도해상풍력 | 완도읍 완도읍 망상리 해상 | 148.5 | '18.11.21. |
| 완도 금일해상풍력 | 한국남동발전 | 완도군 금일읍 평일도 일원 | 200 | '18.11.21. |
| 영광 야월해상풍력 | 대한그린에너지 |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일원 | 49.8 | '18.09.27. |
| 칠산해상풍력 | 씨더블유엔알이 | 영광군 낙월·염산면 해상 | 151.2 | '18.09.27. |
| 전남신안해상풍력 I | 포스코에너지 | 신안군 자은면 서측 | 300 | '17.07.29. |
| 전남해상풍력 I | SK E&S | 신안군 자은면 북동측 | 96 | '17.07.29. |
| 증도 해상풍력 | (주)윈드파워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 33 | '16.05.31. |
| 압해풍력발전 | (주)압해풍력발전소 | 신안군 압해면 가용리 일원 | 40 | '15.07.10. |
| 압해풍력에너지 | (주)압해풍력에너지 | 신안군 압해면 가용리 일원 | 20 | '15.03.31. |

자료 : 전라남도 내부자료(2019)

○ 해상풍력 R&D 기반 확충

-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유치 및 해상풍력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대상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9개 도시 중 3개 도시가 집적된 서남권에 유치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영암 · 목포 · 해남, 전북 군산, 경남 거제, 경남 창원 (진해), 경남 통영, 경남 고성, 울산 동구

- 핵심기술개발지원, 기업지원, 실증 및 인증, O&M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해상풍력산업 육성

〈표 IV-2〉 해상풍력지원센터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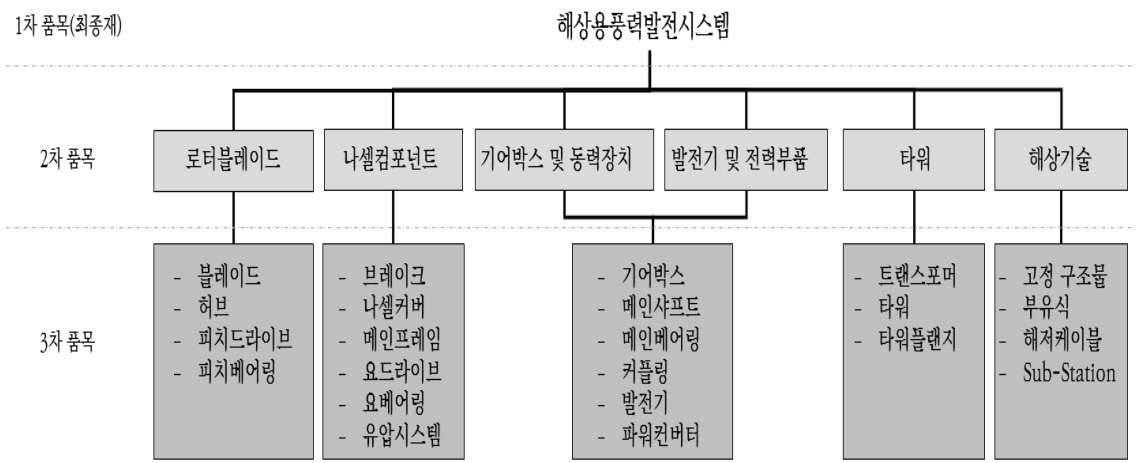
| 구 분 | 주요 기능 |
|---------|--------------------------------------|
| R&D 지원 | ICT 기반 해상풍력 관리시스템 개발, 유지보수용 로봇 개발 등 |
| 기업 지원 | 해상풍력 부품·시스템 업체간 연계 지원체계 구축, 마케팅 지원 등 |
| 인증 및 실증 | 해상풍력 부품·시스템 복합실증단지 운영 등 |
| 인력 양성 | 안전관리, 유지보수, 전문기술 교육 등 유지보수 전문가 양성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8),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사업 공고, 목포시 내부자료(2019)

○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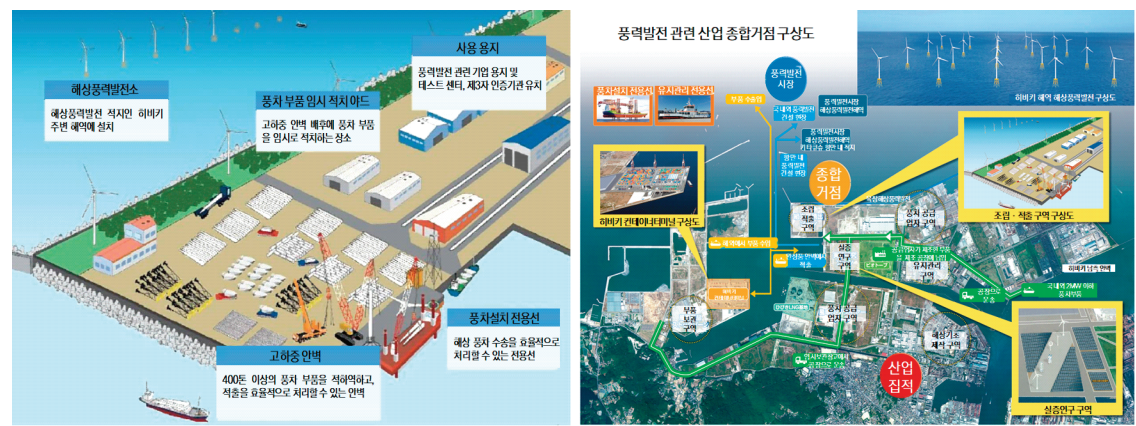
-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관련기업 유치, 산업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

※ 해상풍력 지원항만 구비 요건 : 입지(해상환경, 인접성), 관련산업 성장성(산업집적, 기술력), 사업 경제성(물동량, 건설 및 운영비용), 정책환경(정부의 정책적 의지, 지원 정도), 사회환경(민원) 등



자료 : 이종필 등(2018),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만 및 배후단지 활용방안 연구

<그림 IV-5> 해상풍력 부품 생산 구조



(a) 클러스터 거점 구축도

(b) 관련산업 종합거점 구상도

자료 : 이종필 등(2018),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만 및 배후단지 활용방안 연구

<그림 IV-6> 해상풍력발전산업 지원을 위한 거점항만 육성 계획 사례 (일본 히비키 항만)

- 한국형 스마트 야드(K-yard) 프로젝트 연계 추진
- 인력, 설비, 공간, 공정, 제품, 일정 등 항만 구성 6대 요소를 연결하여 지능화된 물류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분석, 딥러닝 기반 최적 공정 설계, IoT 기반 자재·블록 위치 및 상태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 개발

2.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 사업위치 : 목포 등 서남권 9개 시군
- 사업기간 : 2019 ~ 2030
- 핵심사업 : 에너지 자립섬 조성, 영농·염전·수상태양광 확충, 한빛원전 하체 에너지공사 설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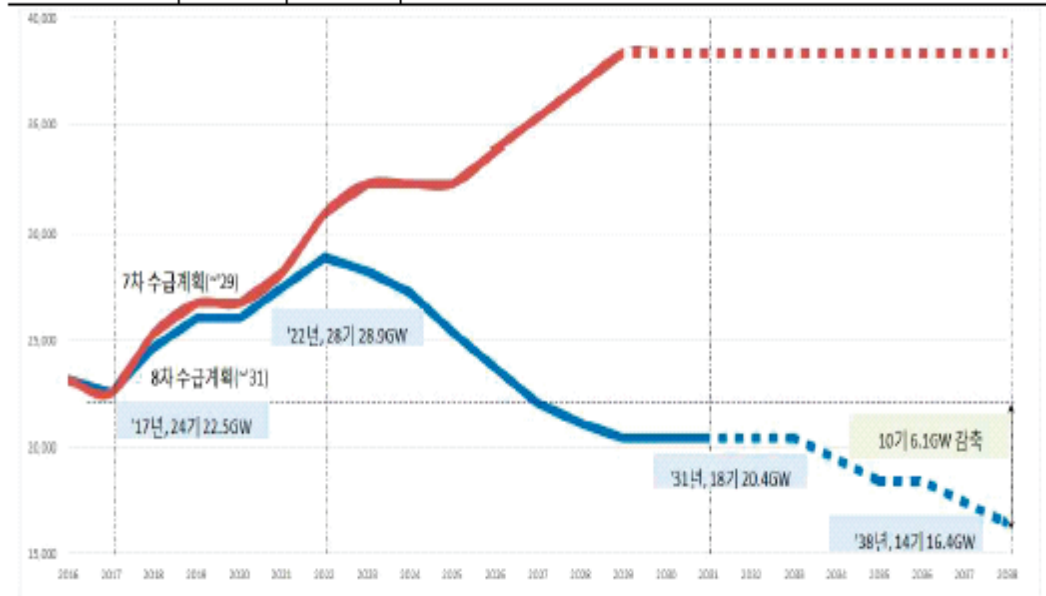
□ 필요성 및 목적

-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등을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 에너지전환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음³⁾.
 - 에너지전환은 석탄, 석유 등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일컫음.
 -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원전 및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 중이며, 미국, 일본 등도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전환 시도
 - 독일 메르켈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 조기실현을 위한 ‘에너지 패키지(Energy Package)’를 발표(2011. 6.)하고, 2015년 7월에는 ‘에너지전환(Energiewende)’ 목표 달성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 결정
 - 현재 58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등 세계 2위의 원전 국가인 프랑스는 원전의존도를 기존 75%에서 2025년까지 50%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높이기로 함.
 - 미국은 30여 개 주에서 태양광 및 풍력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9년에는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일본은 ‘에너지 혁신 전략(2016)’을 토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2~24%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조승희(2017), 에너지전환 패러다임과 광주전남의 대응 전략

-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을 담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2022년까지 전면 폐쇄 방침

| 구 분 | 호기수 | 용 량 | 대 상 |
|------|-----|--------|--|
| 신규원전 | 6기 | 8.8GW | · 신한울 3·4, 천지 1·2, 신규 1·2 |
| 노후원전 | 14기 | 12.5GW | · '38년까지 14기 * 고리2~4, 월성 2~4, 한빛 1~4, 한울 1~4 |
| 월성 1 | 1기 | 0.7GW | · 월성 1호기 |



* '17년 24기 → '22년 28기 → '31년 18기(8차 전력수급계획) → '38년 14기(3차 예비본)
 ('17년대비 신규 +5, 감축 △1) ('22년대비 감축 △10기) ('31년대비 감축 △4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 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

〈그림 IV-7〉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 서남권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 2기(한빛원전 1·2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지역임.
-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은 각각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임.

〈표 IV-3〉 한빛원전의 설계수명

| 구분 | 설비용량(MW) | 가동일 | 수명만료일 | 비고 |
|-----|----------|----------|----------|-----|
| 1호기 | 950 | 85.12.23 | 25.12.22 | 40년 |
| 2호기 | 950 | 86.09.12 | 26.09.11 | 40년 |
| 3호기 | 1000 | 94.09.09 | 34.09.08 | 40년 |
| 4호기 | 1000 | 95.06.02 | 35.06.01 | 40년 |
| 5호기 | 1000 | 01.10.24 | 41.10.23 | 40년 |
| 6호기 | 1000 | 02.07.31 | 42.07.30 | 40년 |

자료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nssc.go.kr/>)

- 서남권은 수평면 일사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해안가를 중심으로 고품속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음.
- 또한,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자립섬 조성 사업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임.



(a) 진도 가사도



(b) 진도 서거차도

자료 : 한국전력공사(2018),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에너지자립섬 구축방안 수립 연구

〈그림 IV-8〉 서남권 에너지자립섬 조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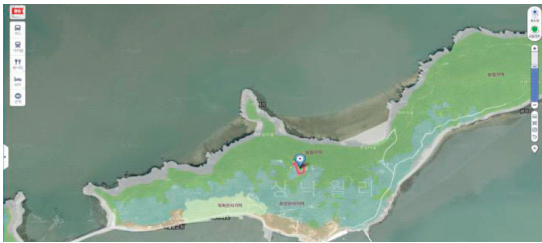
- 서남권의 에너지 분권 강화, 신재생에너지 메카 도약,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공급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재생에너지 기반시설 확충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 해양·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자립섬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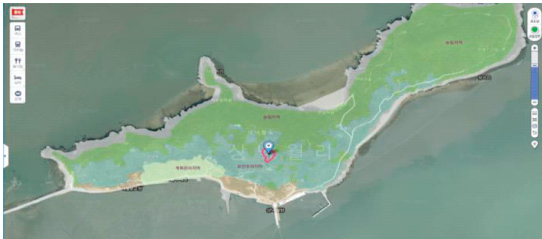
- 대상 유인도서 : 영광군(안마도·석만도·횡도·죽도, 대각이도, 상낙월도·하낙월도), 해남(상마도·하마도, 중마도), 완도(덕우도), 진도(혈도, 가사도, 상조도·하조도, 옥도, 관사도, 진목도, 갈목도, 나배도, 소마도, 모도, 대마도, 죽향도, 관매도, 서거차도·동거차도, 상죽도·하죽도), 신안(흑산도·다물도·대둔도, 홍도, 우이도, 상태도, 하태도, 가거도, 옥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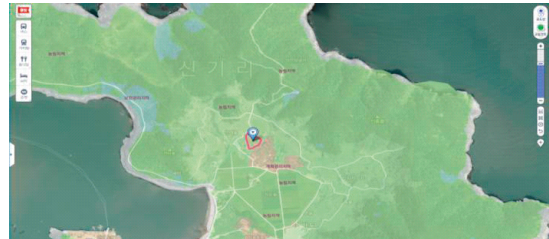
(a) 낙월도(상-풍력, 하-태양광)



(b) 안마도(상-풍력, 하-태양광)



(c) 덕우도(상-풍력, 하-태양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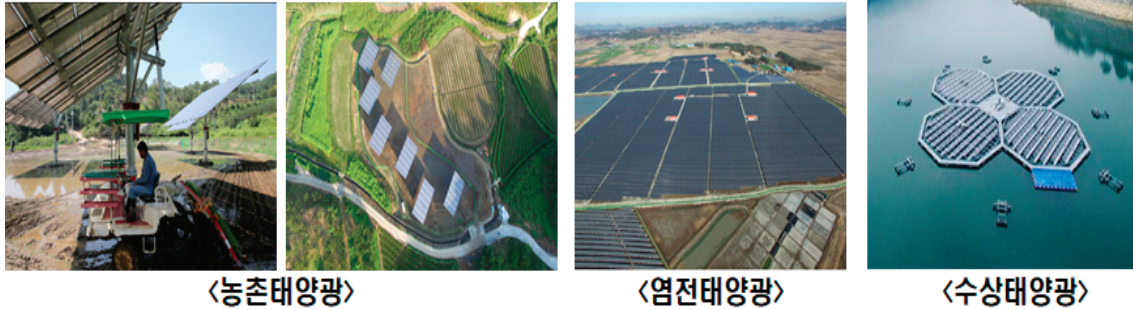


(d) 흑산도(상-풍력, 하-태양광)

자료 : 한국전력공사(2018),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에너지자립섬 구축방안 수립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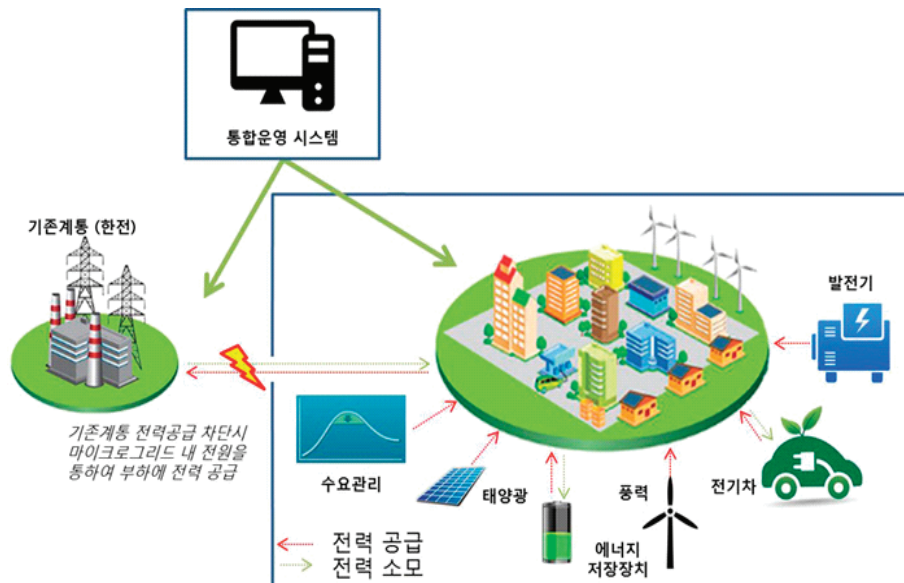
〈그림 IV-9〉 서남권 주요 도서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가능지역

- 농촌·염전·수상태양광시설 확충



〈그림 IV-10〉 농촌·염전·수상태양광 발전시설

- ICT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분산형 전원 확충
- 서남권의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 기상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사전에 예측해 제어·관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ICT 연계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전력저장장치(ESS),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한 산업단지·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추진



자료 : 방태웅(2017),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동향

〈그림 IV-11〉 마이크로그리드 개념도

○ 한빛원전 1·2호기의 안전한 해체 및 관련산업 육성

- 주민의견을 반영한 한빛원전 1·2호기 해체 로드맵 마련 및 지역주민 지원
- 설계수명 도래 전에 해체 로드맵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미국의 경우 5년 전에 예비견적서 제출)
- 해체 로드맵 : 해체계획서 마련 및 허가 → 사용후 핵연료 냉각 및 인출 → 시설물 해체 → 부지복원 및 해체완료
- 원전해체 충당금, 관련 기금 등에서 원전해체 지역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는 원전해체 지역주민 지원 근거 부재

- 원전해체산업 육성

- 원전해체 핵심기술 확보, 전문인력 양성, 원전해체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 수립
- 동남권 설립 예정인 원전해체연구소의 분원을 서남권(영광)에 설립

| 해체 준비 | 제염 | 절단 | 폐기물 처리 | 환경 복원 |
|--|--|--|--|---|
|  해체 공정 평가 기술 |  원전 일차계통 화학제염 기술 |  원격 해체 장비 내방사화 기술 |  방사화 탄소 폐기물 처리 기술 |  고방사성 폐기물 안정화 기술 |
|  해체 안전성 평가 기술 |  대형기기 나노 복합유체 제염기술 |  고하중 취급 원격 정밀 제어 기술 |  악티늄 함유 폐기물 처리 기술 |  대용량 고방사성 폐역 처리기술 |
|  방사능 재고량 평가 기술 |  제염에 의한 재료 건전성 평가 기술 |  3D Human Machine Interface 기술 |  유기혼성 폐기물 수증기 개질 처리 기술 |  우라늄 폐기물 처리 기술 |
|  표면 오염도 측정 기술 |  분사연마 제염 기술 |  열적 절단 기술 |  금속 폐기물 절단 및 제염 기술 |  콘크리트 폐기물 재활용 기술 |
|  핵종 분석 기술 |  전해연마/화학침수 제염 기술 |  고자유도 원격 절단 통합평가 기술 |  금속 용융 기술 |  콘크리트 폐기물 감용 기술 |
|  환경영향 평가 기술 | |  실감형 원격 절단 시뮬레이터 |  금속체 방사능 평가 및 재활용 기술 |  콘크리트 폐기물 안정화 기술 |
|  방사선 안전관리 기술 | |  기계적 절단 기술 | | |
|  품질 보증 기술 | | | | |
| | | | | 확보기술(27개) |
| | | | | 미확보기술(11개) |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2017), 안전한 원전 해체 첫걸음 뗀다, 보도자료(2017. 9. 4.)

〈그림 IV-12〉 원전해체 핵심기술 현황

- 친환경 지역에너지 전문기관(가칭, 전남에너지공사) 설립·운영
 - 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에 기반을 둔 지역에너지 정책 실행, 주민참여 확대 등 지역의 에너지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남에너지공사 설립·운영
 - (타 지자체 사례)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경기도에너지센터 등
 - (주요기능) 지역기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에너지시스템 효율 개선,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등

3. 재생에너지기반 그린수소 생산·실증단지 조성

- 사업위치 : 목포, 신안, 완도, 진도, 영광, 해남
- 사업기간 : 2019 ~ 2030
- 핵심사업 : 해상풍력연계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구축, 그린수소기반 친환경항만 조성 등

□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경제(Hydrogen Economy)를 선정하고, 수소차, 연료전지 시장 세계 1위 달성을 위한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전라남도도 국가 그린수소산업 중심지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전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계획을 발표함.
-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40년까지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비 전 >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 수소차·연료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 화석연료 자원 빈국에서 그린 수소 산유국으로 진입

목표

| | | 2018년 | 2022년 | 2040년 | |
|--|-----------------------|-----------------------------|-----------------------------|-----------------------------|---------------|
| | 수 소 차 (수출) (내수) | 1.8천대 (0.9천대) (0.9천대) | 8.1만대 (1.4만대) (6.7만대) | 620만대 (330만대) (290만대) | |
| | 연 료 전 지 | 발전용 (내수) | 307MW (전체) | 1.5GW (1GW) | 15GW (8GW) |
| | | 가정·건물용 | 7MW | 50MW | 2.1GW |
| | 수 소 공 급 | 13만톤/年 | 47만톤/年 | 526만톤/年 이상 | |
| | 수 소 가 격 | - | 6,000원/kg | 3,000원/kg | |

추진 전략

| 기본 방향 | <p>전주기 안전성 확보</p>  <p>중소·중견 산업생태계 조성</p> | | | | | | | | |
|--|---|---|----------|---|--|---|---|--|---|
| 추진 전략 | <p>'18 → '22 → '30 → '40</p> <table> <tr> <th>수소경제 준비기</th><th>수소경제 확산기</th><th>수소경제 선도기</th></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산업생태계 조성 제반 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적 기반완비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이용 비약적 확대 대규모 수요·공급 시스템 구축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수소 생산 및 수전해 본격화 탄소프리 수요공급 시스템 </td></tr> </table> | 수소경제 준비기 | 수소경제 확산기 | 수소경제 선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산업생태계 조성 제반 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적 기반완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이용 비약적 확대 대규모 수요·공급 시스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수소 생산 및 수전해 본격화 탄소프리 수요공급 시스템 | | |
| 수소경제 준비기 | 수소경제 확산기 | 수소경제 선도기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산업생태계 조성 제반 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적 기반완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이용 비약적 확대 대규모 수요·공급 시스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수소 생산 및 수전해 본격화 탄소프리 수요공급 시스템 | | | | | | | |
| 민관 역할 분담 | <table> <tr> <th>정 부</th><th>민 간</th></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및 규제완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기술 내재화 투자확대 </td></tr> </table> <table> <tr> <th>산업생태계 보완</th><th>수소사회 이행</th></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표준 선점 상업적 생산 체계구축 수소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리더십 확보 민간 주도 시장 확대 글로벌 시장 선도 </td></tr> </table> | 정 부 | 민 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및 규제완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기술 내재화 투자확대 | 산업생태계 보완 | 수소사회 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표준 선점 상업적 생산 체계구축 수소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리더십 확보 민간 주도 시장 확대 글로벌 시장 선도 |
| 정 부 | 민 간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및 규제완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기술 내재화 투자확대 | | | | | | | | |
| 산업생태계 보완 | 수소사회 이행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표준 선점 상업적 생산 체계구축 수소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리더십 확보 민간 주도 시장 확대 글로벌 시장 선도 | | | | | | | | |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그림 IV-13> 수소경제 활성화 비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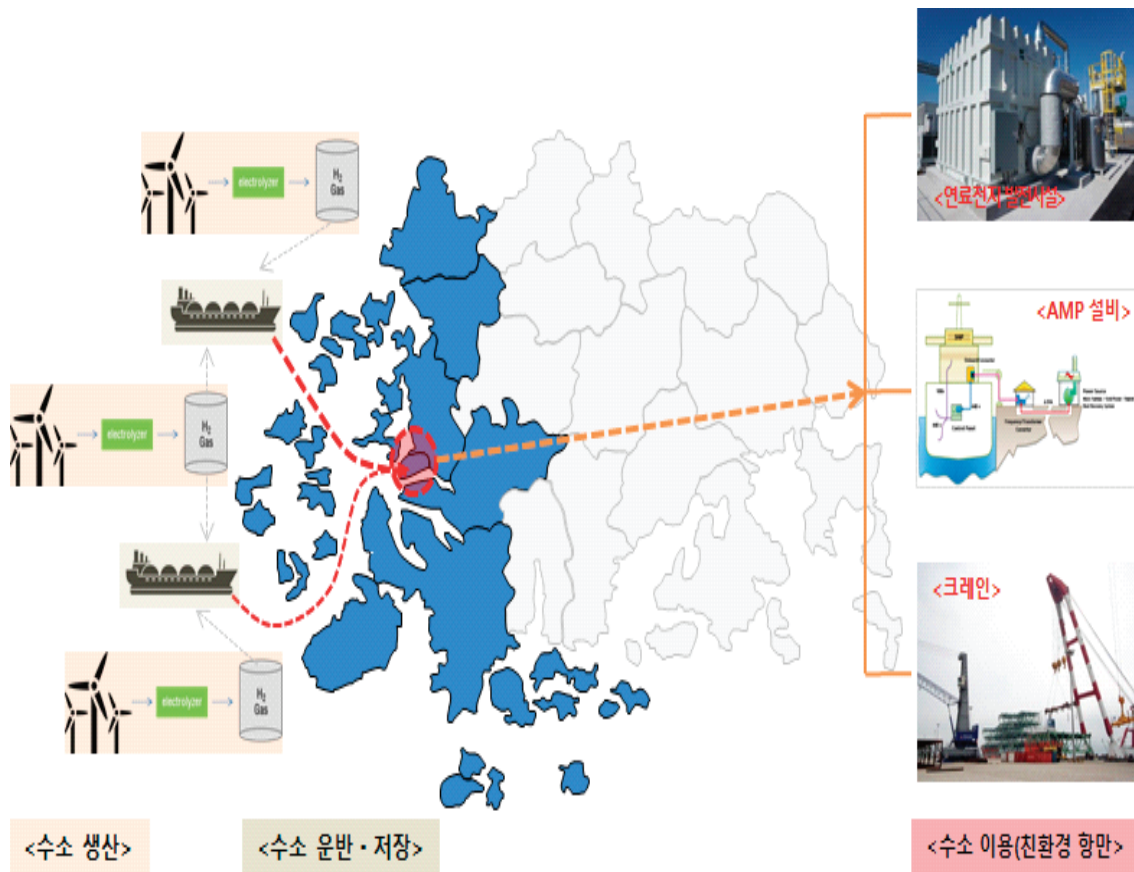
- 전남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3대 목표 : ① 그린수소 연구개발 및 생산·실증 거점 육성, ②수소 연료전지 및 부품·소재 생산기지 구축, ③ 수소 차·수소충전소 보급 및 수소 시범도시 조성



자료 : 전라남도 내부자료(2019)

〈그림 IV-14〉 전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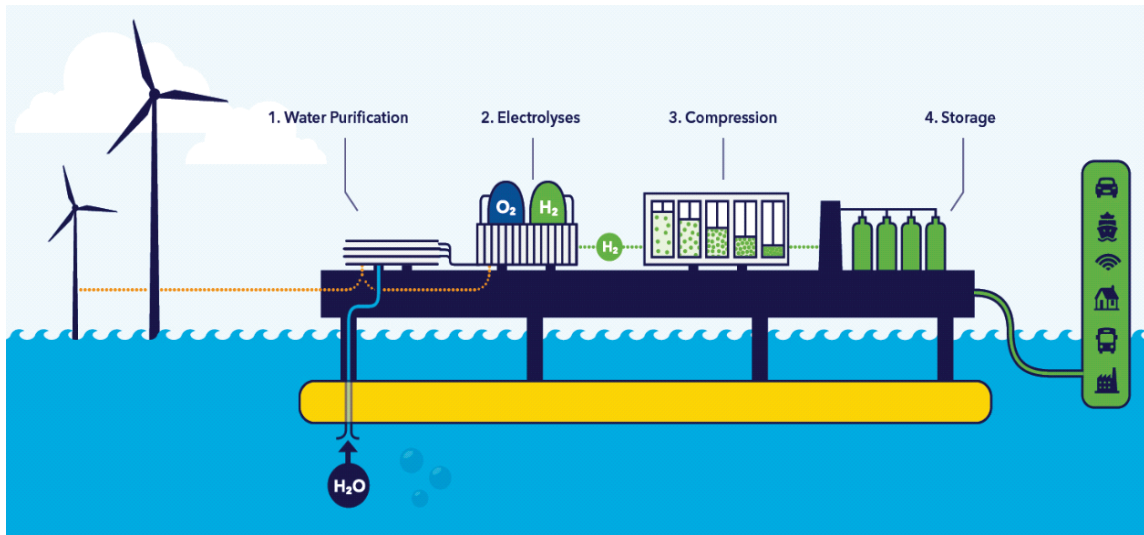
- 서남권은 그린수소 생산·실증의 최적지로 ‘생산-저장·이송-활용·실증’ 등 그린수소 전과정 밸류체인(Value chain) 구축 및 특화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수소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견인 필요
 - 서남권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및 잠재량이 전국 최대인 지역으로 그린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 ※ 그린수소(Green Hydrogen) :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된 친환경 수소. P2G(Power to Gas)라고도 표현하며,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청정수소



〈그림 IV-15〉 서남권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밸류 체인

□ 주요 사업내용

-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구축
 -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하고 연계한 P2G 기술개발 및 실증 test-bed 구축
 - 수처리, 수전해, 압축, 저장 등 핵심 단위기술 개발 및 서남해안 특성에 맞는 최적 공정 개발



〈그림 IV-16〉 해상풍력 연계 수소생산(P2G) 공정

- 그린수소 기반 에너지자립섬 고도화
 -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수소연료전지를 연계한 도서지역 복합 재생에너지 시스템 개발
 - 에너지자립섬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자동차, 선박 등 이동수단 친환경 연료 공급
 -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위한 통합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연계한 친환경 항만 조성
 - 생산된 그린수소를 액화수소 운반선을 통해 목포신항으로 집적화
 - 수소연료저장·공급시설, 수소연료 발전시설, 육상전력공급설비(AMP) 등 설치 운영
 - 항만 크레인, 지게차, 야드트럭 등을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구동
- e-모빌리티용 소형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실증
 -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 드론, 지게차 등에 적용을 위한 1~5kW급 소형 연료전지 개발 및 실증 테스트베드 및 평가시스템 구축
 - 안전성·신뢰성 확보(1단계), 제품 출시(2단계), 양산 체계 구축(3단계) 등 단계별 전략 마련·추진

2) 신해양시대 Blue Economy 특화산업지대 육성

1. 해양 MRO (중소형선박 수리조선) 전문단지 조성

- 사업위치 : 목포신항 배후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30
- 사업비 : 2,985억원(국비 1,507, 도비 1,418, 시군비 50, 민자 10)
- 핵심사업 :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기반 구축,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소 설립, 해양 MRO 특화 클러스터 구축,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 구축

□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최대의 수리조선국가로 인정받던 시기가 있었으나, 조선업체들이 수익성이 좋은 신조선 시장에 집중하면서 중대형선박의 수리조선 사업을 중단
- 신조선장이 장기간 불황에 빠지고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산업생태계 유지측면에서 수리개조 조선을 되살릴 필요성 대두
- 수리조선 시장은 급격히 증가된 선박량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환경규정 강화로 선박 수리뿐만 아니라, 친환경 설비의 장착, 추진시스템의 개조를 위한 시장이 빠르게 형성
- * Clarkson에 의하면 전 세계 선박 수리시장은 2016년 기준 77억 달러 규모로 2013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7억 달러 성장. 2016년에는 선박 1척당 수리비용으로 평균 14.5만 달러 지출

〈표 IV-4〉 주요 선종별 세계 선박수리 시장 규모

| 구분 | 선복량(척) | 척당 After Market 규모 (만 달러) | 수리조선 비중 | 척당 수리조선 규모 (만 달러) | 수리조선 규모(억 달러) |
|--------|--------|---------------------------|---------|-------------------|---------------|
| 벌크선 | 11,226 | 49 | 34% | 16.7 | 18.7 |
| 탱커 | 6,634 | 67 | 32% | 21.4 | 14.2 |
| 컨테이너선 | 5,230 | 56 | 29% | 16.2 | 8.5 |
| LNG운반선 | 531 | 103 | 37% | 38.1 | 2.0 |
| 합계 | 23,621 | | | | 43.4 |

자료 : 김형구 외(2017),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After Market 진출방안”

- 배기가스 배출규정 강화, 친환경 설비 장착의무화 등 환경규제로 선박 개조 (retrofit) 시장 활성화

〈표 IV-5〉 주요 선종별 세계 선박수리 시장 규모

| 항목 | 연간 대상 척수 | 연간 시장규모 | 비고 |
|-----------|------------|------------|-------------------|
| BWTS | 4천척 | 약 6조원 | 2019년 ~2024년(5년간) |
| Scrubber | 500~1,000척 | 약 1~2조원 | 2020년 내외로 단기간 |
| 해양 플랜트 개조 | 6~9기 | 50억~60억 달러 | 2020년 내외로 단기간 활황 |

자료 : 산업연구원 보도자료, 2018. 9. 7., 「대형선박 수리·개조산업 재건을 통한 국내 조선산업 혁신 성장 모색」

○ 선박 수리·개조 산업의 특성과 싱가포르 사례

- 해운사는 선박의 검사·수리 기간을 단축할수록 추가적인 선박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가능하므로, 항로·항구 위주의 영업과 일정관리가 중요
- 수리조선은 현장에서의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현장 대응역량이 높은 인력 필요

〈표 IV-6〉 수리조선 사업과 신조선 사업의 비교

| 항목 | 수리조선 | 신조선 |
|------|--------------------------|---------------------|
| 시설 | 소형 장비, 높은 도크회전율, 긴 안벽 | 대형 생산 상지 빔 작업장 |
| 영업 | 항로, 항구 위주의 현장영업 | 전 세계를 대상 |
| 기술 | 현장관리 위주 | 설계·생산·자재 고급 관리 |
| 생산관리 | 내주 및 직영체계, 운항일정에 따른 일정관리 | 아웃소싱 위주, 생산 일정관리 주요 |
| 대금회수 | 작업 종료 시 인금, 단기 | 계약기준 진도 배분, 장기 |
| 원가구성 | 자재비 20%, 인건비 50% | 자재비 60%, 인건비 20% |
| 수익률 | 15~25% 내외 | 5~15% 내외 |

자료 : 송하철 외(2010), “한국 수리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4권, 제10호, pp. 799~805.

- 싱가포르는 2017년 3,360만 TEU를 처리한 세계 2위의 수리조선 지역으로 주변국 저임금 노동자의 활용이 가능하고, 태풍이나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경우가 없어 수리 일정에 유리
- 싱가포르 정부는 조선해양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판단하여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진행
- 싱가포르 직원 1명당 3.5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 방글라데시 인력을 활용
- 최근 조선산업 침체기 탈출, 다만 삼호 현대조선을 중심으로 LNG 등 대형선박 위주로 수주량이 증가 추세
- 장기 불황으로 유휴상태에 있는 조선산업의 설비와 부지를 활용해 LNG선 등 첨단·친환경 선박처럼 수리 난도가 높은 중대형 선박수리·개조부문 역량을 확보해 선박 유지·보수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서남권 조선해양산업의 활성화
- *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 침체에 빠져있는 전남 서남권(목포, 해남, 영암)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기간 2년간 연장(~2021. 5. 28.)
-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남권 소재 대한조선, 고려조선 및 소규모 선박수리업체의 클러스터화 추진 필요

- 선박수리·개조뿐만 아니라 선용품 및 연관 관광산업에서 생산 증가와 고용 창출을 위한 중대형 선박의 수리개조 클러스터 조성 필요
- 선박안전기준 강화 및 노후화로 인해 중소형 선박의 수리 수요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수리기관 및 업체가 부재한 상태로 고가장비 수리는 부산에서 실시하는 상황
- 전남 서남권의 열악한 수리장비 및 시설 부족으로 인해 부산·경남지역에서 선박 수리 진행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손실 증가
- 신조(新造) 중심 산업생태계에서 수리·개조 중심의 고부가가치 특화 산업으로 조선기자재 산업 구조 전환 요구
 - 선박수리·개조업계는 2017년 기준 157억달러 규모인 세계 시장규모가 국제해사기구(IMO)의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LNG를 연료로 하는 엔진 개조 수요 등을 고려하면 2023년에는 25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시장침체로 구조조정 중인 신조시장과 다르게 선복량 증가와 환경규제로 대형 선박의 수리·개조 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
 - 기술적 우위, 공기, 수리·개조를 위한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중국, 싱가포르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필요
 - 조선산업 구조조정에서 발생한 유휴설비와 기술력 높은 인력을 최대한 용한다면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
 - 수리 전문인력 부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형선박의 수리조선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조선 및 기자재 산업을 개조시장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유휴설비 및 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기반 구축 필요
- 조선 및 기자재산업을 개조시장 분야로 사업다각화하고, 유휴 설비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지원기반 구축 필요
 -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발효로 5년간 약 40조원 규모의 시장 형성이 예상되는 BWMS 개조 분야 선점을 통해 전남도내 조선산업 사업다각화 기반 마련

- *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국제운항선박에 대하여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 탑재를 의무화한 협약
- 전남은 조선해양산업 집적도는 높으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관련기관은 부재
- * 대전(본부), 경남(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부산(심해공학수조), 강원(해수플랜트 연구센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분소를 계획 중으로 선박해양산업 불황 극복을 위한 지자체별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분소 유치 요구
- 선박해양 H(Health), S(Safety), E(Environment) 분야의 신산업 창출 필요
- 대형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소형선박산업을 시급히 육성하여 실업인력을 흡수하고 지역경제 안정화 도모 필요
- 소형조선소의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시운전 시 각종 사고대응 및 건조과정의 기술 문제점 대응 미숙
- 소형조선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조, 성능평가 등 열악한 기술적 환경에 대응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선박수리 지원시스템 구축사업('18~'22) 연계, 중소형 수리조선 및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BWMS) 기반 구축
- 중소형 선박 BWMS 엔지니어링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 * BWMS :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
- 사업기간 : 2019 ~ 2023(5년)
- 위 치 : 목포시 죽교동(목포해양대학교 인근)
- 사 업 비 : 21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민자 10)
- 규 모 : 부지 9,000㎡, 건축 3,800㎡
- 주관기관 : 목포해양대학교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분소 유치
 - 서남권 미래성장동력으로서 HFS(Health, Safety, Environment) 분야 신산업 창출
 - HFS 기술개발,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상용화 등 기술지원, 전문기술인력 양성
 - 사업기간 : 2019 ~ 2023(5년)
 - 위치/면적 : 목포지역내 / 부지 132천㎡, 건축 3천㎡
 - 사업비 : 295억원(국비 180, 지방비 115)
 - 주관기관 :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 사업내용 : 센터 건립, 선박해양 HSE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HSE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상용화 등 기술지원, 전문기술인력 역량강화
- 해양 MRO(Maintenance, Repairing, Overhaul) 특화 클러스터 구축
 - Green, Leisure Vessel 및 해양레저장비 등 대상으로 유지보수·수리·정비·개조, 부품·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 선박 MRO 관련, ‘(가칭)국제레저선박박람회’ 등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특화클러스터 위상 제고
 - 사업기간 : 2021~2030년
 - 위치 : 목포신항 배후부지 일원
 - 사업비 : 2,300억원(국비 1,150, 지방비 1,150)
- 소형선박해상테스트 기반 구축
 - 신조 및 수리선박의 안전성 종합 해상테스트, 안전, 친환경 선박 개발 핵심기술 확보, 연관산업의 엔지니어링 기반 고부가가치화
 - 사업기간 : 2019 ~ 2021
 - 위치 : 목포신항 배후부지(목포시 달동 1336)
 - 사업규모 : 부지 5,400㎡, 건축 2,026㎡
 - 사업비 : 180억원(국비 77, 지방비 103)
 - 주관기관 :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사업내용 : 해상시험장비(28종), 시험·검사 지원동, 연구동, 기술지원 등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전남 서남권의 조선산업 여건과 서계 선박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수리·개조 조선의 시장개척을 통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시장 회복도 가능
- 개조작업은 수리보다 조선소에서 작업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도 중요하지만 기간의 단축과 기술력이 중요
- * 벌크선 시장은 중국, 다른 선박이나 개조시장은 싱가포르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경쟁국에 비해 차별화된 강점을 확보해야 함.
- 기술적 우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LNG 선박 관련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대형조선사의 우량 고객을 중심으로 개조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 공략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대형선박 대상으로 효율적인 수리·개조를 위한 설비 구축도 필요하며, 서남권의 조선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력 유지·강화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유휴 설비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업장과 기자재 조달이 가능한 배후단지를 갖추고, 수리조선업 전문가, 과거 수리조선 인력,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숙련공이 대형수리조선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

□ 재원확보 계획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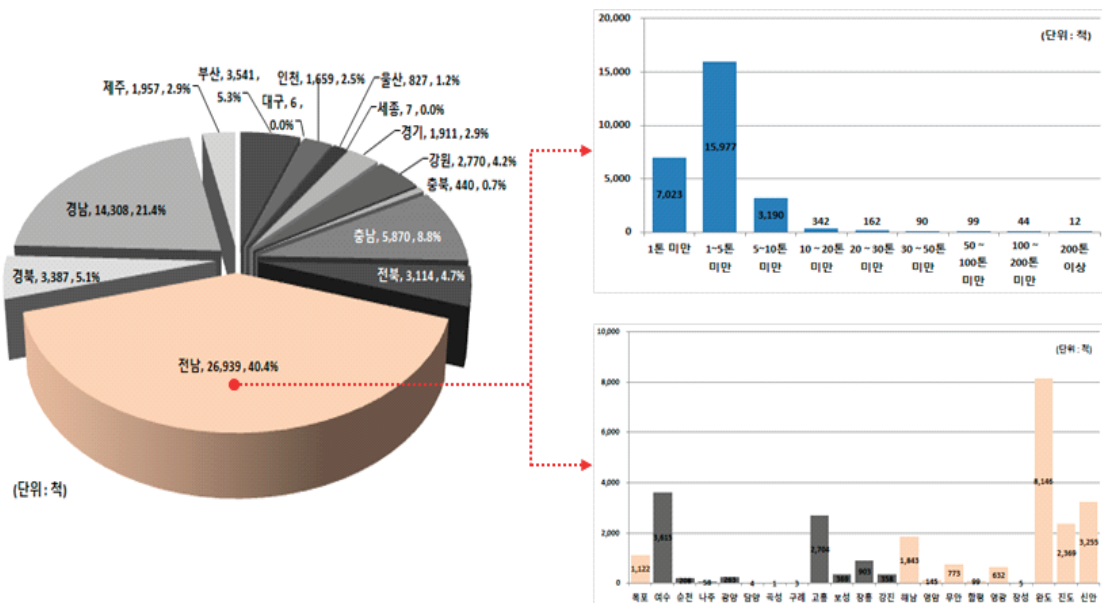
|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재원별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 타 |
|---------------------------|----------------------|-----------|--|-------|-------|-------|-----|-----|
| | | 연도별 | | | | | | |
| 해양MRO(중소형선박 수리조선) 전문단지 조성 | | 계 | | 2,985 | 1,507 | 1,418 | 50 | 10 |
|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 기반구축 | 부지 9천㎡, 건축 3.8천㎡ | 2019~2023 | | 210 | 100 | 50 | 50 | 10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본소 설립 | 부지 132천㎡, 건축 3천㎡ | 2019~2023 | | 295 | 180 | 115 | | |
| 해양 MRO 특화 클러스터 구축 | | 2021~2030 | | 2,300 | 1,150 | 1,150 | | |
| 소형선박해상테스트 기반 구축 | 부지 5,400㎡, 건축 2,026㎡ | 2019~2021 | | 180 | 77 | 103 | | |

2. 중소형 친환경선박 산개조 복합단지 조성

- 사업위치 : 목포, 영암, 해남
- 사업기간 : 2019 ~ 2030
- 핵심사업 : LPG 추진선박 산개조 기반 구축, 중소형 수소 연료전지 추진선 개발 등

□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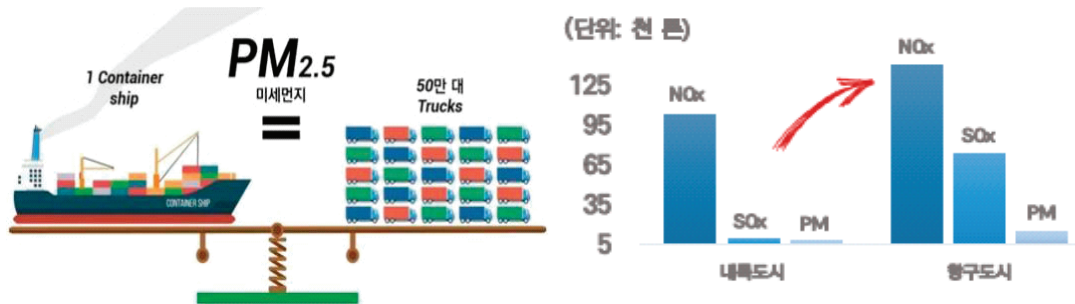
- 서남권은 벙커C유 등 저급연료를 사용하는 중소형 어선이 집중된 지역으로 초미세먼지, 황화합물(SOx)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됨.
- 2017년 기준, 전남은 국내 중소형 어선의 40.4%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 68.4%가 서남권에 소재
- 도내 중소형 어선 중 97.2%가 10톤 미만



자료 : 해양수산부(2018), 2018년 해양수산통계연보, 전라남도(2018), 2018년 전라남도 통계연보

〈그림 IV-17〉 전남 및 서남권의 중소형 어선 등록 현황

- 선박은 자동차보다 환경규제가 느슨한 편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심각한 수준
- 선박용 연료인 벙커C유의 황 함유량(최대 3.5%)은 차량용 경유의 황 함유량(최대 0.001%)에 비해 약 3,500배 높음.
- 선박은 자동차 대비 많은 연료소비로 인해 대형 컨테이너 1척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양이 디젤트럭 50만대가 내뿜는 초미세먼지 양과 비슷(이성우, 2019)⁴⁾
- 국내 항구도시의 SO_x, NO_x, 미세먼지 발생량은 내륙도시에 비해 각각 8.2배, 1.4배, 1.8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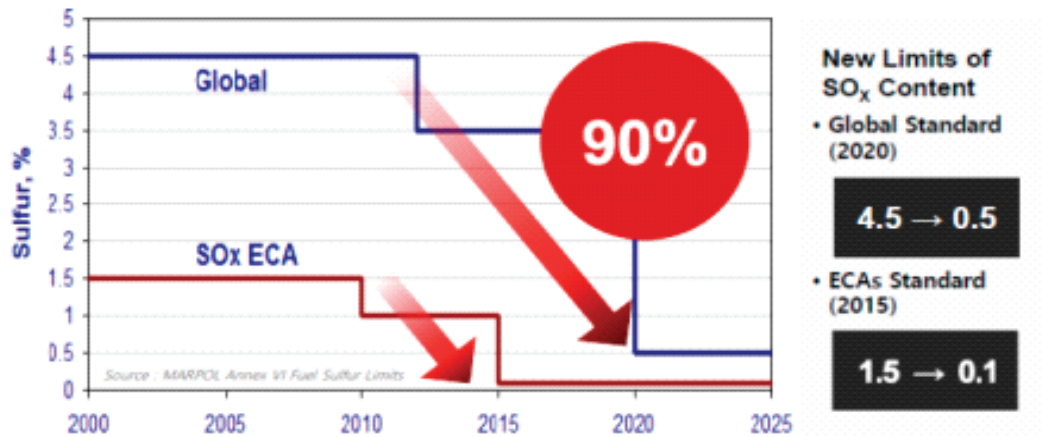


자료 : 이성우(2019), 항만도시의 새로운 선택, 살고 싶은 공간으로, 월간 물류와 경영, LG
 챌린저스(2018), 선박 메탄올을 더해 미세먼지를 빼다

〈그림 IV-18〉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국내·외적으로 선박 기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선박, LNG연료추진선박, 수소연료전지선박 등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
- IMO는 2020년 1월부터 전세계 모든 해역을 지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의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하기로 함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부속서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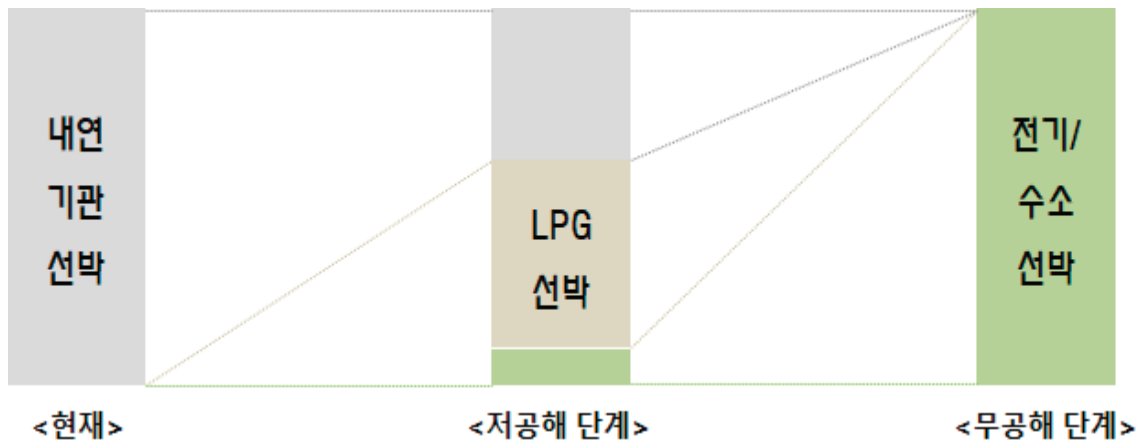
4) 이성우(2019), 항만도시의 새로운 선택,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자료 : 이호춘(2019),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그림 IV-19〉 IMO의 단계별 SO_x 규제 기준

- 국회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수립·시행을 통해 항만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3월 통과시킴.
- 환경규제 강화로 전기선박, LNG 추진선박, 수소선박 등 친환경선박의 발주는 증가추세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
 - 전기 및 수소선박은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력적인 기술이지만 아직은 연구개발 단계로 내구성·안전성 확보, 실증, (수소)연료의 수송 및 저장, 병커링 인프라 구축 등을 해결해야 함.
 - LNG추진선박의 경우 건조비 상승, 높은 리스크, 병커링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친환경선박으로의 유연한 전환을 위해 LPG 선박 중심의 저공해 단계(Low Emission, 단기·중기), 전기·수소선박 중심의 무공해 단계(Zero Emission, 장기) 등 단계적인 접근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LNG 선박 대비 경제성, 기술개발속도, 상용화 가능성 등에 우위가 있는 LPG 연료 추진선박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서남권 조선산업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화



〈그림 IV-20〉 서남권의 친환경선박 전환 추진전략(안)

〈표 IV-7〉 LNG 선박과 LPG 선박의 비교

| 구분 | LNG 추진선박 | LPG 추진선박 |
|---------|---|---|
| 병커링 | 대단위 설비 투자 필요 |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설비 구축 가능 (상온 조건에서 연료공급 가능) |
| 연료 탱크 | 고가의 탱크 필요 (-120~-162℃ 보관 또는 상온 고압) | |
| 예산 건조비용 | 기존 선박 대비 40~60% 증가 | 기존 선박 대비 5~10% 증가 |
| 기타 | - (연구개발) 중소형 선박 적용, 가재 국산화 등 필요 - (안전관리) 선박 운항시 별도의 안전관리자 필요 | - (연구개발) 차량에 적용된 기술을 바탕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실증 및 상용화 가능 - (안전관리) LPG 차량 운전자용 교육훈련 이수 가능 |

- 전기·수소선박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LPG 기반 지역 조선업 재활성화 필요
- 현재 부울경에서 추진 중인 LNG선박 기반구축사업은 10만톤급 이상 대형 선박에 적합하며, 이에 대응해 서남권은 중소형 LPG 선박으로 특화 전략 수립·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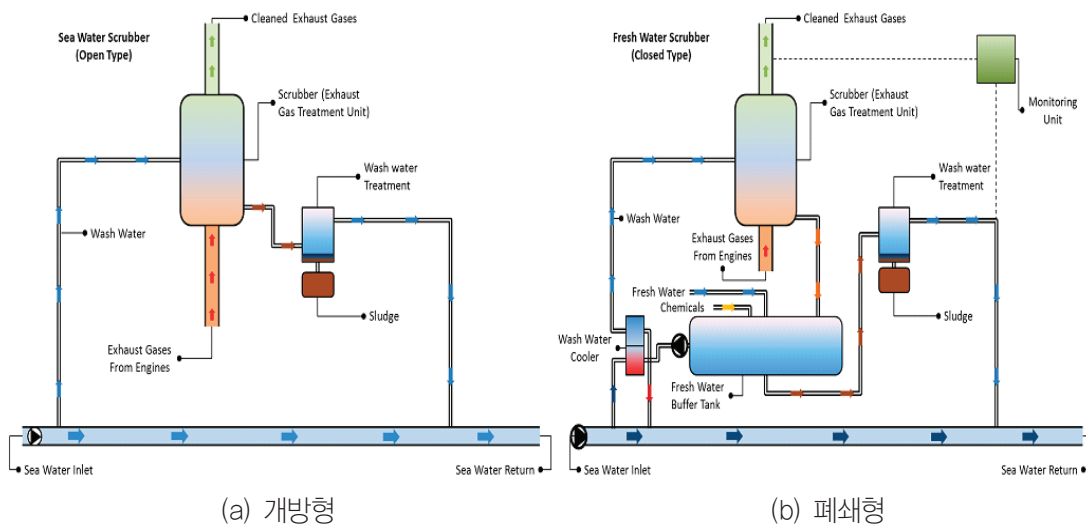
□ 주요 사업내용

- LPG 추진선박 중심 신·개조 기반 구축

※ 2020년 시행 예정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연계 추진

- 친환경선박 실증센터 설립·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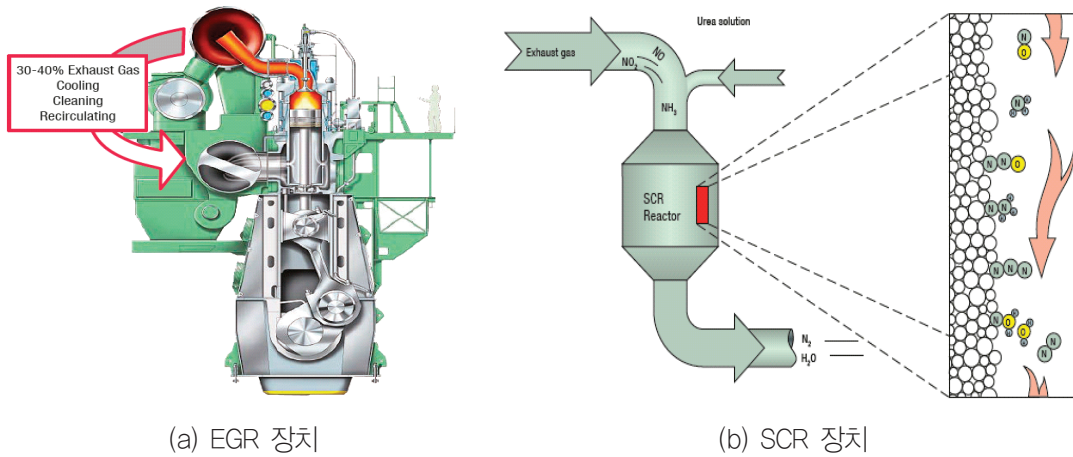
- 기존 중소형 내연기관 선박을 LPG 추진선박으로 개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중소형 LPG 추진선박 설계·건조기술 개발
 - LPG 추진선박 안전관리 기준 마련
 - LPG 연료공급을 위한 병커링 시설 구축
 - LPG 선박 교육·훈련 기반 구축
 - LPG 선박 전문 교육·훈련기관 선정 및 교육과정 개발
 -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특화산업 연계 교육 훈련 수행
- 중소형 선박 배기가스 제어장치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
- 중소형 선박기인 SO_x, NO_x 처리장치 개발
 - (SO_x) 개방형·폐쇄형·하이브리드형 배기가스세정장치(Scrubber) 개발



자료 : shippedia(<http://www.shippiedia.com/>)

〈그림 IV-21〉 선박용 스크러버 종류

- (NO_x)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등
- 통합모니터링·제어·통신기술 개발
- 센서(pH, PAH, 배기가스 농도 등), 첨가물 제어, 세정수 배출량 제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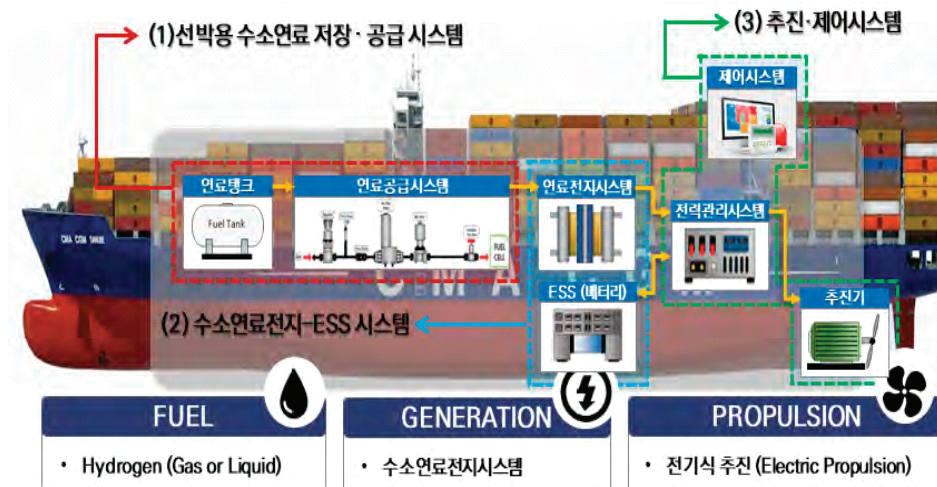


자료 : <https://steemit.com/kr/@tolany/3-2>

〈그림 IV-22〉 선박용 탈질장치

- 관련기업 유치

- 선박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수요가 많은 서남권에 SOx, NOx,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처리장치 개발기업 유인



자료 : 이제명 등(2019), 수소연료전지선박 개요 및 기술개발 동향 소개, 대한조선학회지 제56권 제1호

〈그림 IV-23〉 수소연료전지선박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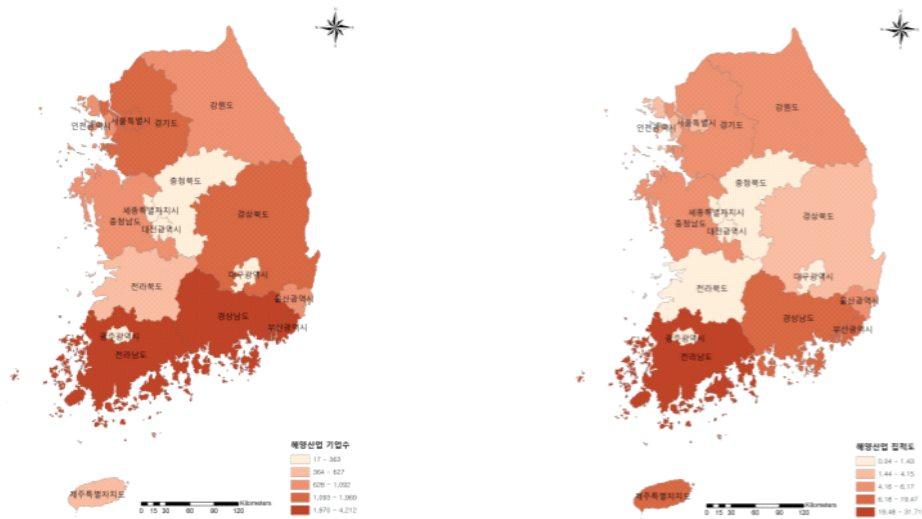
- 중소형 수소 연료전지 추진선 개발 및 인프라 확충
 - 수소선박은 발전효율, 환경성 등을 고려해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임.
 - 연료별 엔진 발전 효율(%) : 가솔린 25%, 디젤 35%, 연료전지 47~60% 등
 - 연료전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배출량이 거의 없는 가장 친환경적인 수단이며, 대형 엔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소음·진동도 거의 없음.
 - (연구개발) 중소형 선박용 수백kW급 수소연료전지-ESS 시스템, 수소연료 저장용 극저온·고압 소재 및 시스템, 전기 추진시스템, 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설계·건조기술 등 개발
 - (인프라) 수소연료 공급시설(고압수소, 액화수소 등) 구축, R&D 및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성능평가 및 실증시설 구축, 기술선진국(독일, 스위스 등)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

3. 차세대 해양레저장비 클러스터 구축

- 사업위치 : 목포 신항만 배후단지, 평화광장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3
- 사업비 : 2,975억원(국비 2,638, 도비 87.5, 시군비 50, 민자 200)
- 핵심사업 : 해양레저장비 생산기반 단지 개발,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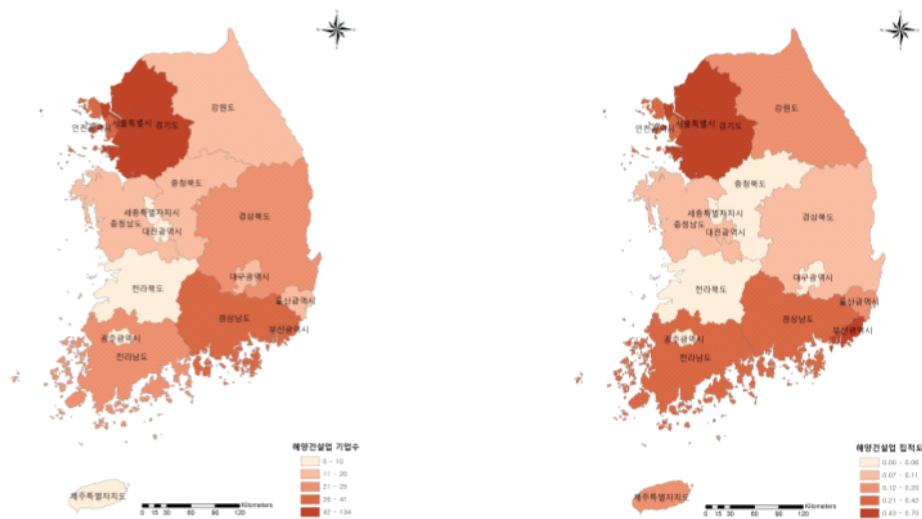
- 정부는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마리나 관련 산업을 미래 해양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하고 마리나 활성화 정책을 추진
 -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2019) 및 수정계획을 통해 현재 34개소의 마리나항만을 구축·운영 중이며, 내수면 마리나 개발과 어촌과 마리나가 융합된 마리나역(域)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제2차 마리나 활성화 기본계획을 추진 중
 -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 해양레저 산업은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어 마리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이 되는 해양레저장비 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임.
- 국내 해양산업은 전남, 경남, 부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집적도 기준에서는 전남의 해양산업 집적도가 가장 높음.
 - 해양수산부의 해양산업 10대 분류 항목 : 수산업, 해양건설업, 해양기기장비제조, 해양레저관광, 해양수산공공활동, 해양수산서비스, 해양자원개발업, 해양환경업, 해운항만물류업
 - 전남은 해양산업 10대 분류별 집적도는 높으나, 수산, 조선, 수산공공 등의 분야에서 기업체수와 기업체 집적도가 높는데 기인하며,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는 기업체수와 기업체 집적도가 낮게 나타남.



자료 : 해양수산부, 2017, 제1차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p.63

주 : (좌)기업 수 기준, (우)집적도 기준

〈그림 IV-24〉 국내 해양산업의 분포 현황



자료 : 해양수산부, 2017, 제1차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p.64

주 : (좌)기업 수 기준, (우)집적도 기준

〈그림 IV-25〉 국내 해양레저 산업의 분포 현황

- 국내 요트·보트 제조업체는 '16년 기준 169개 업체로 '0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 지역별로는 부산·경남 지역이 3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남·전북이 58개 업체로 34.3%를 차지함.
- '09년 대비 '16년 타 지역 요트·보트 제조업체 수는 감소 또는 소폭 상승에 그쳤으나, 전남·전북 지역은 13.5%p. 상승함.

〈표 IV-8〉 국내 요트·보트 제조업체 현황

| 구분 | 2009 | | 2016 | | | | | |
|------|------|-------|------|-------|-----------|-------|------------|-------|
| | | | 합계 | | 통계청 자료 기반 | | 국제보트쇼 자료기반 | |
| | 업체수 | 비율(%) | 업체수 | 비율(%) | 업체수 | 비율(%) | 업체수 | 비율(%) |
| 서울경기 | 8 | 15.1 | 28 | 16.6 | 19 | 15.4 | 9 | 19.6 |
| 부산경남 | 19 | 35.8 | 60 | 35.5 | 32 | 26.0 | 28 | 60.9 |
| 전라도 | 11 | 20.8 | 58 | 34.3 | 54 | 43.9 | 4 | 8.7 |
| 기타 | 15 | 28.3 | 23 | 13.6 | 18 | 14.7 | 5 | 10.9 |
| 전국 | 53 | 100.0 | 169 | 100.0 | 123 | 100.0 | 46 | 100.0 |

자료 : 해양수산부, 2017, 제1차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p.65

- 국내 레저선박 등록대수는 '07년 3,944척에서 '13년 10,257척으로 7년간 약 2.6배 증가
 - 레저기구 보유비중은 4,875명당 1척('09년 기준)으로 여전히 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요트·보트 수입물량 중 일본이 35.8%를 차지하나, 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중고 요트·보트가 대부분을 차지
 -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 요트·보트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IV-9〉 국가별 요트·보트 보유 현황 비교

| 국가 | 인구(만명) | 레저기구보유(천척) | 레저기구보유비중(명/척) |
|-----|--------|------------|---------------|
| 미국 | 30,100 | 15,454 | 20 |
| 일본 | 12,778 | 231 | 552 |
| 독일 | 8,240 | 500 | 166 |
| 호주 | 1,925 | 784 | 28 |
| 스웨덴 | 911 | 815 | 11 |
| 한국 | 4,875 | 10 | 4,875 |

자료 : 해수부, 2015.12.,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

〈표 IV-10〉 주요 국가별 요트·보트 수입 현황

| 순위 | 국가 | 수입액(A) (천\$) | 수입량(B) (톤)(%) | 톤당 수입액(C=A/B) (천\$/톤) |
|----|-----|--------------|---------------|--------------------------|
| 1 | 일본 | 2,757 | 1,245 (35.8) | 2.2 |
| 2 | 미국 | 10,714 | 693 (19.9) | 15.5 |
| 3 | 중국 | 5,566 | 611 (17.6) | 9.1 |
| 4 | 프랑스 | 2,690 | 162 (4.7) | 16.6 |
| 5 | 캐나다 | 3,149 | 118 (3.4) | 26.7 |
| 기타 | | 13,758 | 649 (18.7) | 21.2 |
| 총계 | | 38,634 | 3,477 (100) | 11.1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6.10.

-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장비 및 레저선박 중심의 발전거점 구축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 중심 지대로 도약
 - 지역 중소조선업체 등과 연계를 통한 해양레저장비 유지·보수 및 차세대 해양레저장비 개발·상용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
- 세계적인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 무연료 전기 등 신에너지 원을 활용한 선박 등 친환경 레저선박 개발 필요
 - 내수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 동시 추진으로 중소조선업체의 성공적 구조 전환과 수출산업화를 통한 조선산업 활성화 유도
- 해양레저 관광, 생산, 문화교육, 인프라를 겸비한 해양레저 클러스터 조성 필요
 - 단순 해양레저에서 생산과 유지보수, 교육·문화를 융복합한 해양레저 클러스터 조성으로 전남 서남권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도입하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해양관광레저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육성과 우수기업 유치 노력 필요
 - 정부의 해양레저 산업 관련 정책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목표를 중심으로 서남권 해양레저 산업 기술력을 집적화한 거점공간 조성 필요

- 클러스터 구성에 앞서 해양관광레저를 선도할 수 있는 선도사업 도출 및 해양관광레저 클러스터 구성을 위한 기업유치의 중점적 추진
- 동북아 및 인근지역과의 효율적 연계와 전남 서남권의 산업 및 혁신역량 간 융복합을 통해 추가적인 부가가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 이탈리아는 마리나, 조선소, 유헤향만시설 등을 활용하여 요·보트 제조, 판매, 수리 등 다양한 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업이 입주하여 클러스터를 구성
 - 비아레지오(Viareggio)는 유헤 조선소 및 향만시설에 30여개 레저선박 제조업체 및 1,000여개의 부품업체가 밀집한 클러스터 조성
 - 세계 슈퍼요트의 22%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변경, 수리, 부품 교체 등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앙코나(Ancona)도 마리나를 중심으로 레저보트 제작, 수리, 서비스 등 관련 업체들이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기술 및 대외 경쟁력 제고



〈이탈리아 비아레지오 해양레저 클러스터〉



〈이탈리아 앙코나 해양레저 클러스터〉

- 호주 퀸즈랜드주는 2013년 총 3억 9천만 호주달러 규모의 Gold Coast Marine Precinct(골드 코스트 국제해양구역) 사업을 승인

- 기존 요트·보트 특구 인근에 요트·보트 제조 및 유지보수 시설 등 확장 (635,000㎡)하여 60여개 관련 기업 입점과 약 2,500명의 고용효과 창출



〈호주 기존 골드코스트 해양특구〉



〈호주 골드코스트 (新)국제해양구역〉

□ 주요 사업내용

- 연안·수변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장비 생산기반 집객화(Future Marine Leisure Cluster) 추진
 - 해양레저장비 기술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해상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 해양레저장비 생산업체 유치, 발굴,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시대에 대응한 친환경 장비 생산기반 마련
 - 에너지 절감을 위한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적용 등 차세대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체계 및 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19 ~ 2022년 (4년)
- 위 치 : 목포 신항 배후단지 일원
- 사 업 비 : 2,500억원(국비 2,500)
- 사업내용 : 해양레저장비 생산 단지 조성,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등
- 기술응용을 통한 틈새시장 창출 등 목표시장 확대 추진 및 전·후방 연관 제품군 판매시장 확대

- 해양 MRO 산업단지, 수상항공산업 클러스터 및 모터산업 육성사업과 연계를 통해 해양기자재 산업분야 신시장 발굴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연관산업 육성 등 사업다각화 추진
- *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는 배터리, 엔진, 점화플러그 등 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영광 e-모빌리티 산업, 영암 모터산업 육성 등과 연계
 - 사업기간 : 2019 ~ 2022년 (4년)
 - 사업비 : 400억원(국비 100, 도비 50, 시군비 50, 민자 200)
- 태양광 활용 친환경 전기보트 등 차세대 해양레저장비 기술 개발 및 제작화
- * 디젤, 가스, 태양광 활용 하이브리드 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연근해 어업용 중소형 어선으로 기술적용 범위 확대
- 목포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 천혜조건을 갖춘 목포 평화광장 수역을 해양레저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서남권의 해양레포츠 저변인구 확대 및 수상안전 교육시설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19 ~ 2022년 (4년)
 - 사업비 : 7,500백만원(균특 3,750, 지방비 3,750)
 - 사업내용 : 철재함선(B=40m, L=24m, H=2.6m) 1기, 연결도교(B=3.0m, L=80.0m) 1기, 계류시설 20척, 교육장 : 연면적 803㎡(1층 261㎡, 2층 339㎡, 3층 203㎡)
 - 해수부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통하여 지자체에서 사업추진 (균특 50%, 지방비 50%)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해양레저장비 보급과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현행법상 3억원 이상 요트 구입시 취득세 11%, 재산세 0.5% 과세, 3억 미만의 요트를 구입시 취득세 2%, 재산세 0.3%의 감면혜택을 받는데 감면혜택의 범위 조정이 필요(현행 3억에서 5억으로 향상)

- 요트 구입비용 대출, 요트 담보대출, 요트 대상 리스금융, 요트 보험 등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요트 수리, 정비, 급유 서비스 등의 종합적 제공 및 레저 선박 제조, 유통, 수리, 정비 등 연계산업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건의
- 정부가 추진하는 마리나 활성화 정책이 인프라·시설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향후 연계 업종과 동반 성장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이 필요
- 해양레저 동력보트의 핵심인 선외기, 엔진, 항해통신장비 등 연관산업 육성

□ 재원확보 계획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재원별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 타 |
|--------------------|-------------|-----------|-------|-------|------|-----|-----|
| | | 연도별 | | | | | |
| 차세대 해양레저장비 클러스터 구축 | | 계 | 2,975 | 2,638 | 87.5 | 50 | 200 |
| 해양레저장비 생산기반 집객화 | | 2019~2023 | 2,500 | 2,500 | | | |
| 전·후방 연관제품군 판매시장 확대 | | 2019~2023 | 400 | 100 | 50 | 50 | 200 |
| 목포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 계류시설, 교육장 등 | 2019~2023 | 75 | 37.5 | 37.5 | | |

위치도(조감도)



〈목포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조감도〉

4.

동북아해양시대 조선방위산업 전진기지 구축

- 사업위치 : 목포, 해남, 영암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30
- 사업비 : 2,578(국비 100%)
- 핵심사업 : 서남권 조선방위산업 육성,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군력 증강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동북아 지역
 - 일본은 이지스 탑재 구축함, 최신예 잠수함, 수직이착륙기 탑재가 가능한 대형 상륙함을 건조하는 등 지속적인 해군력 증강
 - 중국은 본격적인 해군전력 현대화가 시작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60여척의 함정을 실전배치하는 등 해군력 증강
 - 러시아 역시 과거 소련 당시 수준 이상의 강한 태평양 함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에도 국산 원자력추진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조만간 실전배치하는 등 해양전략 강화
 - 우리나라도 동북아 지역의 해군력 증강에 맞춰 함정분야 정책수립, 기술기획, 연구개발과 함께 국가별 함정 수출전략 추진이 필요
- 2045년 해군창립 100주년 대비, 지역 소재 방위사업체(목포: 80~90개 업체) 연계한 조선방위산업 육성 필요
 - 우리나라 조선방위사업체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STX조선, 두산중공업, 강남조선소, 삼강엠앤티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표 IV-11〉 우리나라 조선방위 사업체 현황

| 분야 | 주요방산업체 | 일반방산업체 |
|----|---|--------|
| 함정 | 강남조선소, 대우조선해양, HSD 엔진, 삼강엠앤티, 한국특수전지,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효성, STX조선해양 | 스페코 |

주 : HSD 엔진은 비회원사, 효성은 준회원사

자료 : 한국방위사업진흥회(<http://www.kdia.or.kr>)

-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방위산업 생산규모는 약 16조 4,000억원으로 이 중 함정분야는 전체 생산규모의 약 20%를 차지
-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목포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 경비함정의 신속한 정비와 해양경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서남해와 제주권을 관할하는 해경 제2정비창 건설 필요
 - * 해양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함정의 정비·수리를 부산에 소재해 있는 정비창에서만 담당하고 있어, 서남해권을 아우를 수 있는 제2정비창 설치 필요
 - * 서해와 남해, 제주권의 해경 경비함정 약 200척을 전남 서남권에서 수리함으로써 경비함정의 효율적 운영 및 신속한 출동 대응 가능
 - 중국어선 영해침범 빈발 및 국내 선박해상사고에 대응한 해상순찰 등 영해수호의 중요성 증대
 - 주요 추진 상황 : 서부정비창 신설 추진계획 수립('17. 9.), 서부정비창 사전타당성 용역 조사결과 보고('18. 1.), 서부정비창 신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18. 4.), 신항만 기본계획 반영 요청('18. 4.)
- ※ 경제성 분석 결과 B/C 1.98로 사업 타당성이 큰 사업으로 분석됨.
- '90년 부산에 정비창 신설 이후 함정 증가에 따른 함정의 적기수리가 어려워지고 대형함정의 상가수리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서남권 제2정비창 설치 필요
- 목포에서 부산 정비창 까지 이동 거리는 약 400km로 1,000톤급 함정기준 연료비용만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등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

- 서남권 중소형 수리조선소와 연계한 기술력 향상과 지역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서남권 조선방위산업 육성

- 1단계 : 초계함(500~1천톤급), 고속경비정(4백톤 이하) 중심으로 진행, 권역내 조성 예정인 수상항공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모터, 통신, 보완, 관제 기술 융합
- 2단계 : 호위함(2~4천톤급), 구축함(5천~1만톤급), 순양함(1만톤급 이상)으로 확대 (*해군3함대 협의)

* 군용함선 건조 등 방산 관련사업 참여(방사청에서 매년 함정 10척 이상 발주 예정)

○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 해양 경비함정의 신속한 정비와 해양경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서남해제 주권을 관할하는 제2정비창 건설
- 위 치 : 목포 신항
- 사업기간 : 2019~2024년(6년)
- 사업규모 : 부지 15.6만㎡(4.7만평), 건축(1.2만평)
- 사업내용 : 도크 3(드라이도크 1기 5,000톤급, 플로팅도크 2함 700톤급), 안벽 등
- 총사업비 : 2,578억원 (전액국비)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국내 조선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조선업 자체의 내부적 경영효율성 향상 노력 필요
- 국내 방산조선소가 신규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신기술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동자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

- 현재 국내 방산조선소가 함정이나 잠수함을 수출할 경우 방산원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정 부분 이상의 수출액을 초과하여야만 경영노력보상의 일부 가점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과거 실적에 기반 한 최근 실적의 비율 정도를 계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업체가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한 실정
- 국내 방산조선소가 외국으로 함정 및 잠수함 등을 수출할 경우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경영노력 보상이 가능하도록 방산원가 규정의 개선이 필요
- 방산조선소가 원활한 RG(Refund Guarantee;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이 가능토록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 정부에서 기금 마련을 주도하고 필요시 방산조선업체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은 예타와 동시에 해수부의 항만기본 계획 변경 추진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최종 선정을 위해 해양경찰과 사전 협의 및 정보 공유 등 유기적 공조 체계 구축
 -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해경)
- 군용함선 및 해경 경비정 부품 조달 및 기술개발에 지역 중소형 수리조선소 참여로 해양 MRO 기술고도화 및 지역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 재원확보 계획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재원별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 타 |
|-------------------------|--------------|-----------|-------|-------|----|-----|-----|
| | | 연도별 | | | | | |
| 동북아 해양시대 조선방위산업 전진기지 구축 | | 계 | 2,578 | 2,578 | | | |
| 서남권 조선방위산업 육성 | | 2021~2030 | | | | | |
|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 부지 15.6만㎡ | 2019~2024 | 2,578 | 2,578 | | | |

위치도(조감도)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예정부지〉

3) 수상항공산업 특화클러스터 조성

1. 수상항공산업 특화지대 육성

- 사업위치 : 목포, 신안, 영광, 영암
- 사업기간 : 2019 ~ 2030
- 사업비 : 1,600억원
- 핵심사업 : 서남권 수상비행장 설치, 무안국제공항 배후부지 및 인근산단 연계형 수상항공산업 기술집적화단지 및 정비산업 기반 구축 등

□ 필요성 및 목적

- 수상항공산업은 해양소재 교통오지의 교통난 해소 및 항공레저 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적 특성 보유
 - 수상항공산업은 첨단기술이 융합된 시스템산업으로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산업으로 각광
 - 수상비행기는 일반 비행기에 플로트(float)를 장착하여 물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비행기를 말함.
 - 수상비행기는 기존 육상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하천이나 호수, 바다 등 적정 수변 공간만 확보되면 어디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 수상항공기 시장 확대에 부응하여 향후 수상항공 정비산업(MRO)도 동반성장 기대감 고조
 - 경량소재, 세라믹, 조선, 전자제어, 드론기술 등 서남권항공 MRO산업 기반을 활용 연계하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 기대
 - MRO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향상 지원을 위한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 사업
 - MRO 시장규모는 '16년 2.9조원(민수 1.9조, 군수 1조)에서 '25년 4.3조원(민수 2.6조, 군수 1.66조)로 연평균 5.1% 성장 예상

- 수상드론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되며, ICT 융합 기술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특히 민수·산업용 수상 무인기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
- 섬이 많은 서남권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항로 구축, 수심 측정, 하천 관리 등 정기적 운용체계 구축 필요
- 서남권 미래발전을 위해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고 지리적·산업적 잠재력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수상항공관련 클러스터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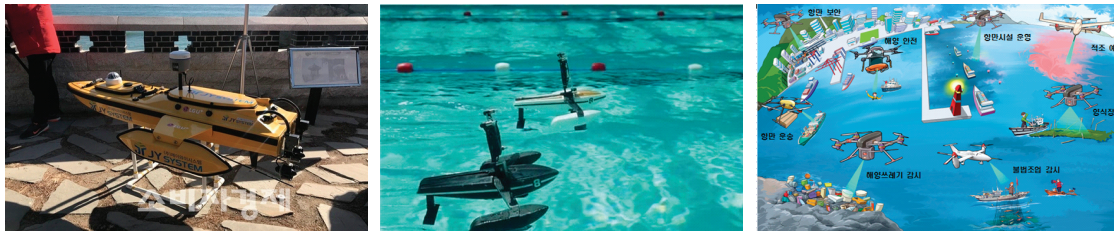
□ 주요 사업내용

- 서남권 정온수역 내 수상비행장 구축 및 거점별 수상비행기 기항지 확대
 - 삼포지구(영산호), 평화광장 수변 등 대상, 수상비행장 시설 설치기준 및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남권 거점 수상비행장 조성
 - 관광연계 및 섬 지역간 교통망 구축으로 서남해안 성장벨트를 연결하는 신개념 교통운영체계 개발 및 신산업 육성
 - 수상비행기는 경량비행기 타입으로 되어 있어 운행비가 적게 들며, 가변적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항공, 해양 관광 및 레저용 다목적 수상기 운영으로 연관사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캐나다 밴쿠버와 인접 빅토리아 섬 주변 조지아 해협에는 곳곳에 수상비행기 공항이 분포하고 있어 빠른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IV-26〉 수상비행기 운영사례(밴쿠버)

- 수상항공산업기술 집적화단지 조성
 - 삼포지구 배후지역 및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에 수상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모터산업, 항공통신, 항행시설유지보수, 항공보안, 항공관제 등 수상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 F1서킷 연계 수상비행기, 자동차, 해양레저보트 등 부품제조기술을 통합한 스피드산업 육성 기반 확충
- 수상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
 - 항공정비(MRO) 산업을 고부가가치-기술 집약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재도약 및 혁신 요구
 -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정비(MRO)산업에 있어서 개도국과 항공 선진국과 비교해 임금 경쟁력 및 기술력 모두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
 - 정부(국토부)는 낙후된 항공정비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15년 1월 항공정비산업(MRO)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민간항공 정비전문업체 설립지원을 추진
 -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MRO단지를 조성하고 분양 혹은 임대를 통하여 항공정비 관련 기업들을 집적화 추진
 - 호주는 멜버른 항공단지, 싱가포르의 셀렉타 항공 우주단지, 멕시코는 에어로텍 산업단지, UAE는 니브라스 알아인 항공우주단지, 중국은 톈진 공항산업단지 개발 추진 중
- 수상드론 비행시험 실증단지 조성
 - 섬이 많은 서남권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항로 구축, 수심 측정, 하천 관리 등 정기적 운용체계 구축 등 특화모델 실증 거점 조성
 - IoT기반 수상드론을 통한 저수지, 하천, 연안의 수심측량 등 다양한 수요를 바탕으로 지상에서 관제 및 운용할 수 있는 무인시스템 개발
 - 환경 센서가 장착된 수상드론을 이용해 불법조업 단속, 항만·도서지역 물품 배송, 해양쓰레기 감시, 항만보안, 항만시설물 관리, 항만 수역 관리, 해상 교통시설 관리, 공유수면 관리, 적조·녹조 예찰, 수질관리, 양식장 모니터링



〈그림 IV-27〉 수상드론 활용 해양 적용 사례

- 수상비행기와 수상드론을 체험하고 전시·교육을 병행하는 ‘오션 드론 (Ocean Drone) 테마공원’ 조성



〈그림 IV-28〉 드론 실증사업 분야 예시

□ 주요 사업내용

- 정부 주도(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등) 국가사업 및 타 지자체 사업과 연계추진을 시너지 창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화모델 발굴
- 수상항공산업은 개발 및 생산자를 지원하는 산업부와, 운전자 측면에서 국토부 및 해수부, 방위사업청 연계 필요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교통기술개발사업) 시범사업 및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
- 항공산업 정비분야별로 특화도시는 운항정비(인천·김포), 엔진정비(창원·부천), 기체정비(김해)로 지정되어 추진 중이지만 수상비행기 관련 정비는 서남권에서 추진토록 중앙정부에 건의

- 수상비행장 및 시험장을 거점으로 시험·성능 인프라 시설 구축 추진
 - 수상비행기 및 드론의 비행시험 및 성능시험, 환경영향 시험 등 성능평가 실내외 인프라를 갖춘 안전성 인증센터 구축 추진
 - 해상 드론과 연계한 체험·전시·교육 중심 특화센터 구축 및 해양 MRO산업과 동반 성장 추진
- 무안국제공항 배후 부지를 활용한 항공정비산업 기반 구축
 - 사천 항공 MRO산업단지 조성 및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항공정비(MRO)산업 육성과 연계 추진
 - 항공 선도기업 KAI와 협력하여 무안공항 인접 지역에 수상항공 MRO 및 생산단지 조성으로 연구개발, 생산, MRO 복합수상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와 국토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정비(MRO) 전문업체 설립과 연계하여 수상항공부문 특화 추진
- 국내 LCC의 외국정비를 통한 자본유출을 축소하고 해외 항공기 정비물량 소화로 수익창출 기대
 - 세계 유수의 MRO 전문업체 수준의 규모로 성장시켜 항공 안전제고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 향상 견인

□ 재원확보 계획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재원별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 타 |
|------------------|-----|--------|-------|-----|-----|-----|-----|
| | | 연도별 | | | | | |
| 수상항공산업 특화기술단지 육성 | | 계 | 1,600 | 800 | 200 | 200 | 400 |
| | | 2019 | 50 | 30 | 10 | 10 | |
| | | 2020 | 150 | 80 | 30 | 30 | 10 |
| | | 2021 | 200 | 120 | 30 | 30 | 20 |
| | | 2022 | 300 | 150 | 40 | 40 | 70 |
| | | 2022이후 | 900 | 420 | 90 | 90 | 300 |

위치도(조감도)



2. 수상항공 특화 항공기술훈련원 분원 유치

- 사업위치 : 목포, 무안, 영광, 영암
- 사업기간 : 2019 ~ 2030
- 사업비 : 350억원
- 핵심사업 : 국가지정 항공전문교육기관 설립, 항공 안전기술 아카데미 및 수상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 필요성 및 목적

- 수상 및 육상 항공관계기관에 필요한 항공기 안전운항 정보 제공 및 항공인재 육성 수요 급격히 증대
 - 산업계 수준을 파악하여 항공정비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하기 위해서 고급기술인력 양성 필요
- 수상비행 관련 최신 교육장비 보유 및 수상항공기 정비, 생산기술 발전 추세에 대응하는 실무형 전문가 양성 필요
 - 국내 기술역량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수상항공기 장치에 대한 수리공정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항공정비인력 조달 체계 마련
- 수상항공기 기술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술자격 취득 교육훈련 및 현장 작업자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항공기 인증 전문기관 및 산업체의 기술적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배가함으로써 항공안전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 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설립 및 유치 추진
 - 한국공항공사 운영, 민간항공 전문교육기관인 '항공기술훈련원(청주시 소재)' 분원 유치 추진

- 수상항공안전기술훈련원 신설 및 초당대 등과 연계한 특화학과 운영 등 인력양성체계 구축
- 수상항공기 인증 전문기관의 인증인력 확보, 핵심인증기술 및 시험평가기술 습득, 해외 전문화 교육 및 기술연수를 통해 전문성 강화



〈그림 IV-29〉 수상항공안전기술훈련

- 수상항공을 포함한 항공 안전기술 관련 항공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 항공통신, 항공보안 및 관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항행시설 유지보수 및 항공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 항공산업 활성화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연계 및 확대 : 영암소재 민간항공훈련학교 및 양성시설(영암읍 송평리 영암천 고수부지) 연계 교육장 활용
 - 수상항공인증 분야별 항공안전감독관 교육과정 개발·시험 운영
 - 교육·훈련 정비시뮬레이터, 가상현실(VR) 활용 정비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그림 IV-30〉 항공 안전기술 관련 항공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 수상항공정비(MRO)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 수상항공기 부품 제조 및 수리·개조 기술자료 인증기술 교육 훈련

- 수상항공기 설계·제작 및 정비산업(MRO) 육성과 인증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 수상항공전문인력(기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항공안전기술원과 연계하여 수상드론 비행시험 운영통제센터 구축 추진
- 기술집약형 수상부품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정비조직 승인 및 해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정비조직인증(AMO)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인증 법령 및 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선진화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제고에 기여
- 인력양성 지원제도로 국토교통부 항공전문인력 양성지원프로그램과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제도 연계 추진
- 국가 인증체계 구축과 MRO업체의 수리공정 기술개발을 연구단으로 구성하여 운영
- 수상항공기 인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자문위원회 구성 또는 자문을 수행하고, 교육진의 참여율을 높여 집중도 제고

□ 재원확보 계획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재원별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 타 |
|-----------------------|-----|--------|-----|-----|----|-----|-----|
| | | 연도별 | | | | | |
| 수상항공 특화 항공기술훈련원 분원 유치 | | 계 | 350 | 290 | 20 | 20 | 20 |
| | | 2019 | 10 | 8 | 1 | 1 | |
| | | 2020 | 50 | 40 | 4 | 4 | 2 |
| | | 2021 | 50 | 40 | 4 | 4 | 2 |
| | | 2022 | 50 | 40 | 4 | 4 | 2 |
| | | 2022이후 | 190 | 162 | 7 | 7 | 14 |

위치도(조감도)



4) 글로벌 해양관광 교두보 Trans-polis 조성

1. 해상형 관광기반, 환황해크루즈 활성화

- 사업위치 : 목포 중심 신안, 완도, 진도 등
- 사업기간 : 2019~2030
- 핵심사업 : 연안크루즈 통합운영체계 구축, 환황해만 및 평화크루즈 확대 운영, 국제크루즈 운영기반(전용부두 등) 확충 등

□ 필요성 및 목적

- 국내 크루즈관광객 (20년 350만명, 연평균 22% 증가) 증가추세에 대응한 크루즈 관광기반 구축을 통해, 서남권의 최인접국이자 최대 관광시장인 중국의 방한관광객 수요 창출 및 글로벌 해양관광거점으로 도약 필요
- 지역에 산재한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 및 향후 통일시대 대비 남북과 중국을 잇는 환황해 국제크루즈 운영을 위해 부산, 여수와 함께 서남권 거점 크루즈 기반 구축으로 남해안관광벨트 완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 주요 사업내용

- 한반도 신경제구상(신남방) 시발점으로서 서남권 거점 크루즈 전용부두 구축 : 15만톤급 1선석(선석 연장 460m)
-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30)에 목포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반영 추진 : 삼학도 → 목포신항으로 위치 변경

- 항만계획 반영 건의와 동시에 국제크루즈 대비 세관 등 통관시설 및 관광객 대상 복합 편의시설 등 조성계획 수립 추진
- * 2020년까지 전국 7개 항만에 크루즈 전용 부두 조성 계획 중

| 항만명 | | 접안능력 | 시설규모 | 현황 |
|---------|-----|-----------|----------------------|---|
| 여수신항 | | 15만톤급 1선석 | 안벽 400m | • 8만톤급 확보 완료 (운영) |
| 제주외항 | | 8만톤급 1선석 | 안벽 360m | • '11.8월 크루즈부두시설 완공(운영) |
| 제주민군복합항 | | 15만톤급 2선석 | 해군기지방파제 | • '18년 크루즈터미널 완공 |
| 부산항 | 북항 | 10만톤급 1선석 | 안벽 360m | • '12.8월 국제여객터미널 착공 • '11.8월 국제여객부두 착공 |
| | 동삼동 | 22만톤급 1선석 | 안벽 400m (기존 360m) | • 8만톤급 (운영) • 22만톤급으로 확장(360→400m) |
| 목포항 | | 3만톤급 1선석 | 안벽 280m | • 3차 기본계획 반영 |

- 중국 상해, 연운, 청도 등을 연결하는 한·중 국제 ‘황해만크루즈’로 확대 운영
 - 지근거리(진도~상해 567km, 목포~상해 671km) 이점 및 국제카페리 운영 경험(목포~상해)을 토대로 한·중 순환형 국제크루즈 노선 구축 및 운영
 - 연안크루즈 노선 정비를 통해 국제크루즈 관광객의 연계수요 창출과 함께 추후 군산, 평택·당진, 인천 등 서해안권으로 확대
- 통일시대 대비 북한 남포, 중국 연태·대련·천진 등을 연결하는 ‘평화 크루즈’ 노선 망 확대 및 글로벌 크루즈 기항지 연계노선 확보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목포 신항 크루즈부두 건설 계획 반영
 -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된 목포 삼학도 크루즈부두는 목포대교 통행 높이 제한(50m)으로 5만톤 이상 크루즈 입항이 불가능
- 서남권 소재 주요 무역·연안항을 연결하는 연안크루즈 노선 망 구축 및 통합 운영

- 기 운영 대형선사 중심 법인 규모화 추진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 크루즈 규모에 부합한 주요 항구별 다목적 크루즈 접안시설 구축
- 글로벌 크루즈선사와의 협약 추진 등을 통해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으로 국제크루즈 확대
- 과거 목포~중국(연운항)간 카페리 운영 경험을 토대로 환황해권의 운항 가능지역을 중심으로 환황해만 크루즈 운영 추진
- 중장기적으로 국제크루즈 대비 세관 등 통관시설 및 편의시설 부지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크루즈 선사의 기항지로 도약



〈그림 IV-31〉 단계별 크루즈노선 운영계획(안)

2. 수상비행장 조성 및 관련산업 기반 구축

- 사업위치 : 영암 중심 목포, 해남, 신안 등
- 사업기간 : 2019 ~ 2025
- 핵심사업 : 수상비행 운영기반(계류시설, 착륙대 등) 및 체계 구축, 수상비행기 유지관리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

□ 필요성 및 목적

- 섬, 해양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新)교통망 구축으로 국토활용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필요
 - 무안국제공항 및 조성예정인 흑산공항 등과 연계를 통한 국내외 관광수요 창출 및 서남부권 소재 섬 지역 등을 잇는 고속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간 교류·협력 확대 등 경제공동체 구축
- 국토 미래성장거점이자 동북아해양시대 전초기지로서의 도약을 위해 서남권을 중심으로 수상비행장 건립 및 전·후방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서남권 수상항공산업 기반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서남권 소재 정온수역(ex. 영산호 등)을 중심(hub)으로 수상비행기 운영기반 구축
 - 계류시설, 착륙대, 터미널(탑승동) 등 단거리 소형 수상비행기 운영체계 및 인프라 구축 (*충북 청풍호 수상비행장 `19.상반기 운영 예정)
 - 삼포지구 배후지역 혹은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활용 수상항공산업 집적지대 조성

- 각 거점 조성이전, 아착륙지가 동일한 서남권 순환형 항공관광프로그램 운영
- 서남권 각 지역(spokes)을 연결하는 수상비행 노선망 구축·연결
 - 수륙양용 비행기 운영으로 무안국제공항, 흑산공항 및 지역내 주요 거점간 수상비행 루트 확대
 - 서남권 소재 연안항(지방어항) 등 섬 지역을 대상으로 조성 가능성 검토
 - * 환경문제 등으로 지연 중인 흑산공항 조성문제 해결대안으로 검토 필요
- 서남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인접지역으로 연계 교통망 확대
 - 제주국제공항 및 중국·일본 등 인접지역 국제선으로 노선 확대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수상비행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법 제정 등 국비지원 근거 필요
 - 수상비행장 건립지원 법안 및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기반 마련
 - 해군3함대, 무안국제공항 등을 고려한 수상비행 가능구역 검토 선결
 - 수상비행기 운영(의향) 항공사와 연계한 사업타당성 확보
- 항공을 이용한 해양관광 및 레저용 다목적 수상기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서남권~전국~인접국 항공기반을 연결하는 항공 해양관광 네트워크 구축
 - 관광목적 이외에 해상관제, 방재, 운송 등 다양한 목적의 수상비행기 활용
- 영암권 모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수상항공 전·후방산업 육성
 - 제트엔진의 추력이 아닌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회전체인 모터와 항공유를 이용한 프로펠러를 활용하는 기술적 유사성에 기반, 삼포지구 중심의 모터 산업과 연관산업 육성효과 발현
 - 지역내 수상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3. 연륙연도교 조기 완료 및 도로망 연결 개선

- 사업위치 : 9개 시군 전역
- 사업기간 : 2019 ~ 2025
- 핵심사업 : 연륙연도교 조성사업(기 추진사업 완료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연결교통망 확포장 및 선형개량사업 등

□ 필요성 및 목적

- 서남권 지역민의 교통편의성 제고 및 국내외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 추진 중인 연륙·연도교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조기 구축 완료 필요
- 의료·문화·교육 등 지역민의 생활수요 충족을 위한 접근 편의성 제고를 목표로, 사업 완료(예정)된 연륙·연도교의 고속국도, 국도(지방도) 등과의 연결성 향상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 대응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서남권 소재 연륙·연도교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지속
 - 기 조성 교량의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 증가 및 인프라 노후화 등에 대응하여, 지역민의 안전성 확보 및 지역경쟁력 향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보강·재생 등 관리시스템 운영
- 지역간 연결이 요구되는 연륙·연도사업의 추가 발굴 및 도로망 연결성 향상을 위한 교통망 연장, 확·포장 추진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기조에 부합한 신규사업 발굴 및 하위 계획(『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립시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국가 건의 추진 (ex. 국도 18호선 연장,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 등)
- 아시안 하이웨이 지선 기점화 사업을 통해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사업 추진의 서남권 역할 확대
-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 국내 경유지인 부산~서울구간 외에 국도 1호선(목포~신의주)을 활용한 아시안 하이웨이 1-1호선 지정 추진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완료를 위한 국비지원 지속 건의
 - 장기간 고비용 투입이 요구되는 서남권내 연륙연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완공 필요
- 지역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존 및 활용을 기조로, 연륙연도사업의 추가 발굴 및 관련계획에 포함
 - 지역민의 편의성 증진 및 섬을 포함한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목표로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 계획과 연계한 국가 건의 추진
- 고속국도 및 국도(지방도) 등과의 연결성 향상을 위한 지역내 도로교통체계 검토를 통해 연결구간의 연장, 확포장 등 당위성 도출 및 국비지원 요구

4. 서해안·남해안철도 구축 및 열차페리 연계

- 사업위치 : 9개 사군 전역
- 사업기간 : 2019 ~ 2030
- 핵심사업 : 서해안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남해안철도 조기완공, 대불항 기점 열차페리 기반 조성 등

□ 필요성 및 목적

- 미래 통일시대 대비 한반도 신경제 구상(H경제벨트)의 시발점이자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신북방정책의 결절지 완성을 위한 철도망 연계 필요
- 정시성을 확보한 대량 수송수단인 철도 중심 교통시스템 연결을 통해 서남권 물류 효율성 증대와 동시에 연안 인접형 철도루트를 활용한 관광수요 창출
- 균형발전 차원에서 5대 벨트 관광열차 노선에 서해낙조열차(서해철도)신설 및 남해해양열차 S트레인(남해안철도)연장 필요



자료 : 한국철도공사

〈그림 IV-32〉 5대 벨트 관광열차 노선도

□ 주요 사업내용

- 목포~군산간(141.4km) 서해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동 구간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미반영)
 - 서해안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국토균형발전 및 효율적 물류·관광기반 확보 (*군산~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
- 전 구간 전철화시 목포~부산간 2시간 44분 만에 왕래가 가능한 임성~보성간 남해안철도(82.5km) 조기 완공 추진

- 최근 사업계획 적성성 재검토가 확정된 임성~보성간 전철화 사업 조기 완
공으로 영·호남 등 남해안권 교류 확대 및 서남해안 관광활성화 교두보로
활용 (*보성~장동~장흥~강진~해남~영암~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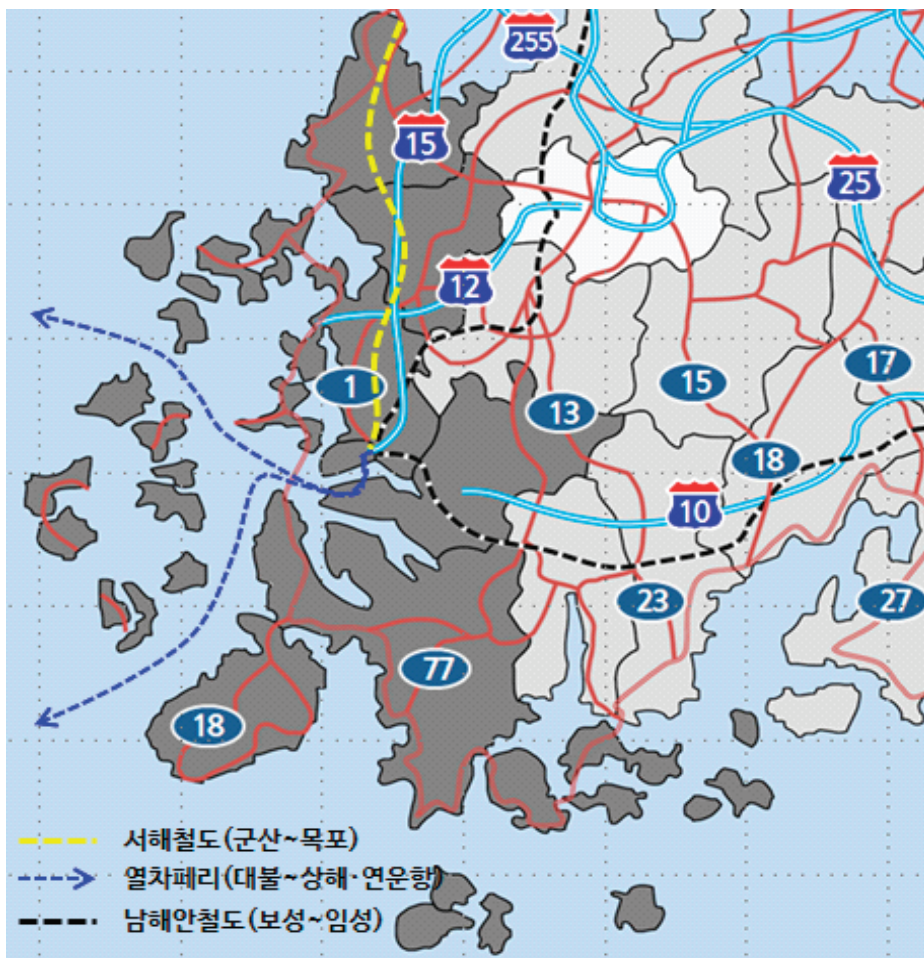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그림 IV-33〉 서·남해안철도 노선계획 및 추진현황

- 대불역(영암)의 항만 연장 추진과 함께 서해철도 및 남해안철도의 기착지를 항만(대불항)으로 최종 연결함으로써 대중국 열차페리 기반 조성
- 단계적으로 목포신항 배후철도 건설사업(대불역~목포신항: 8.645km)과 연계함으로써 서남권 중심 물류체계 개선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반영 추진
 - 서남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한 남해안철도 복선전철화 및 사업 조기 완공 등을 위해 합리적 근거 마련 및 지속 건의
- 열차페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 열차페리 운영을 위한 사중점 연결사업 추진과 함께 수출입 지원을 위한 통관시스템 등 관련 기반시설 및 물류시설 정비 등 추진
 - 한중 물류분야 상생협력 체계 구축 및 물류관련 법·제도적 개선 추진과 함께 물류 관련 기술개발 병행 추진



〈그림 IV-34〉 서·남해안철도와 연계한 열차페리 계획(안)

5) 서남권 복합 치유벨트(MICARE) 조성

1. 해양 MICE 관광벨트 구축(크루즈 연계)

- 사업위치 : 목포, 완도, 해남, 신안, 영광, 무안
- 사업기간 : 2019 ~ 2024
- 핵심사업 : 휴양형·목적형 MICARE 산업 육성

□ 필요성 및 목적

- 서남권 해상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상형 MICE산업 육성 필요
 - MICE alliance 구축으로 MICE 기반 조성을 위한 연관 산업 및 지역기반형 컨벤션기획업 등 육성
- 해양역사유적, 해양역사문화공간, 전통축제, 전통 어로문화, 음식문화 등 해양문화자원 연계 체류형 Incentive tour 상품 발굴

* MICARE: MICE(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Exhibitions)와 Healthcare의 융합

□ 주요 사업내용

- 휴양형·목적형 웰니스 관광 MICARE 산업 육성
 - 웰니스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MICARE산업 성장 모색
 -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부대사업 허용범위가 확대로 의료, 웰빙, 관광, 요양, 스파, 회의 서비스 등 패키지화된 상품 출시 가능

- MICE 기반 해양스포츠 및 관광 프로그램 발굴
 - 산업시찰 및 산업체 연수, 국제회의, 전시, 박람회 참석자 등 대상
 - 문화·휴양·레저스포츠 연계 관광콘텐츠 확충 및 해안형 Exhibition 발굴
 -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컨벤션 관광 수용태세 개선
 - 숙박, 교통연계, 쇼핑, 위락, 식음,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
- 연안크루즈 연계 해상형 MICE 프로그램 발굴
 - 전용부두 등 접안시설을 비롯한 국내외 방문객 편의제고를 위한 터미널, 통관시설 등 인프라 확충
 - 크루즈 부두 개발 및 기항지 관광상품 개발
 - 도서 및 연안 연계 크루즈 루트 발굴
 - 주요 기항지 크루즈관광 기반시설 확충
 - 크루즈 연계 소규모 회의 및 incentive tour



〈CPP 크루즈 2018 부산〉



〈홍콩 카이탁 크루즈 터미널〉

〈표 IV-12〉 서남권 연안크루즈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안)

| 주 제 | 주요 프로그램 |
|---------------|--|
| 낙 조 크 루 즈 | 서남권 다도해의 낙조 감상, 선상 해맞이 축제 등 |
| 컨 벤 셴 크 루 즈 | 소규모 국제회의 및 국내회의, 창립기념행사, 각종 세미나, 강연회, 음악회 등 |
| 해 양 레 저 크 루 즈 | 낚시, 요트, 패러글라이딩, 스노클링 등 |
| 이 벤 트 크 루 즈 | 각종 기념식, 선상 결혼식, 특정행사 개최 등 |
| 패 밀 리 크 루 즈 | 가족의 배, 노인의 배 등 |
| 먹 거 리 크 루 즈 | 전남 향토음식 및 세계 유명 요리 등 |
| 시 푸 드 크 루 즈 | 전남지역 대표적 해산물 요리 등 |
| 웰 빙 크 루 즈 | 전통한방 건강요법, 해수 및 온천욕 등 |
| 전 통 문 화 크 루 즈 | 전남의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진도아리랑, 서편제·동편제 등 판소리, 국악, 사물놀이, 전통악기 공연·체험 등 |
| 기 업 상 품 크 루 즈 | 기업 신상품 발표회, 패션쇼, 전시회, 보석, 예술품 경매 행사 등 |
| 청 소 년 크 루 즈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여행, 졸업여행,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 |
| 해양아카데미크루즈 | 해양교육체험 등 |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숙박, 교통 등 관련 산업 연계 강화를 통한 웰니스 산업 부가가치 창출
- 해양관광 자원 연계 MICE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 창출

2. 해양치유자원 연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 사업위치 : 목포, 완도, 신안, 영광, 해남
- 사업기간 : 2019 ~ 2028
- 핵심사업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치유관광벨트 조성

□ 필요성 및 목적

- 고령화 사회로 인한 휴식과 치유,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헬스케어 및 치유프로그램 확산
 - 만성질환, 환경성 질환의 급증으로 인한 의료비 등 국가재정부담 증가
 - 스트레스 관리, 정신적 치유, 통합의학 등 예방의학적 접근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필요
- 웰빙, 힐링 수요 증가에 따라 자연자원을 활용한 재활·치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증대
 - 의료서비스와 스파, 마사지, 해수치료, 음식, 물리치료, 기치료, 아로마테라피 등과의 결합과 양·한방 협진 등 연계
- 건강, 휴양, 관광, 환경을 연계할 수 있는 서남권 치유모델 및 벨트 구축 필요
 -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해양경관을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발굴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해양 치유 관광벨트 조성
 - (목포) 의료보건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의·관광·치유기반의 의료허브 조성
 - 백년로 메디컬 스트리트 중심
 - (신안) 증도 엘도라도를 기반으로 천연자원 및 시설 중심 치유형 해양헬스케어 리조트 조성
 -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따라 치유로드 형성(*해수찜 기능 활용 등)
 - (해남) 해양자연사박물관, 대섬 어촌복합 체험공원 등
- 산림 치유 생태관광벨트 조성
 - (진도) 난대림 자원 활용 휴양 치유 숲, 진도자연휴양림, 국립 난대산림치유단지 연계
 - (해남) 치유 기능성 농수산물 개발·생산,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 땅끝해남 치유숲 조성, 두륜산 선 체험센터 건립, 권역별 치유음식 개발 특화단지 조성 등
 - (장흥)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 해역별 해양치유자원 연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 해양치유자원 연구기반 확충 및 인프라 구축
 - 해양수산물 유래 바이오메디컬 소재 기술 개발
 - 해양 치유마을 및 해양치유센터 조성
 - (완도) 해양치유 산업 클러스터 조성
 -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 추진
 - 지역발전 투자시범사업으로 해양치유 블루 존 조성 사업 선정
 - 조선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연계
 - (해남)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국립김산업연구소 포함)
 - (신안) 갯벌, 천일염, 해송숲, 해수, (무안군) 갯벌, (완도) 해조류



〈쿠어하우스 이마바라〉



〈해양치유 프로그램〉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사업 연계
 - 관광객 이외에도 지역주민,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 가능 프로그램 발굴로 해양자원 및 공간을 활용한 해양복지서비스 제공
- 산림치유는 숲 자원을 중심으로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 정부와 치유사업 발굴 및 운영
- 지역별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모델 발굴로 해양 관광 분야 지역 경쟁력 제고 및 관광산업 부가가치 제고
-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한 기술 개발 및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건강 증진 및 관광객 유치
 - 문화와 자연자원 연계 체류형 상품 및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을 통해 해양치유관광 수요의 지속적 창출 도모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

3. 서남권 대표 MICE 시설 조성 및 국제대회 유치

- 사업위치 : 목포 남항부지, 목포신외항 배후부지 등
- 사업기간 : 2022 ~ 2024
- 핵심사업 : 서남권 대표 MICE 시설 조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

□ 필요성 및 목적

- 국제 전시회가 수도권지역으로 밀집되는 관계로 터널효과에 따른 지역의 전시·컨벤션산업의 축소 및 쇠퇴현상 발생
 - 균형발전의 논리에 의해 수도권 제외 지역 소재 전시시설 필요
- 전남 동부권 대비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위한 서남권 소재 국제규모의 MICE 시설 부재로, 지역성장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 절실
 - 동남권 BEXCO에 대응한 서남권 컨벤션시설 건립 필요
 - 스트레스 관리, 정신적 치유, 통합의학 등 예방의학적 접근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목포시 남항부지(해수부 소유)를 활용한 해안형 MICE 시설 구축
 - 크루즈 접안부두 조성사업 부지 확정시, 크루즈항 연계 MICE 시설 조성
 - 2005년 APEC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조성(11/18~19 행사)된 BEXCO 및 누리마루 사례 활용
 - 남항부지 이외에 인근 울도, 달리도, 외달도(관광·숙박시설 기 조성), 고하도(케이블카 하차 인근부지 및 신외항 배후부지 등) 등 연계방안 고려

○ 국제대회 및 행사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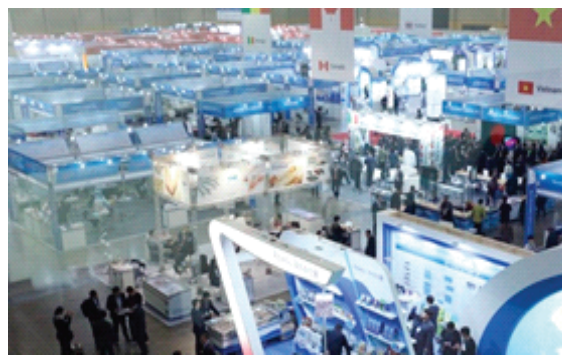
- 시설 건립 타당성 확보 및 SOC 등 관련 인프라 재정비
- 지역특성과 미래발전방향을 고려한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MICE 시설 도입 타당성 확보 및 조기 구축 목표 수립
- MICE 행사 유치와 개최를 위한 컨설팅, MICE 주관기관 지원 및 주요 마이스박람회 공동참가와 공동광고, 공동 관광상품 개발, MICE 참가자에 대한 원스톱 정보제공, 참가자들의 소비촉진 강화 방안 모색
- 국제크루즈박람회(Seatrade Cruise Asia Pacific), 국제 조선 및 해양산업展, 국제해양경찰대회 등 국제행사 유치·개최, Blue Flag 인증 및 Summit 유치 등

* Blue Flag :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인증 제도

- 휴양객과 마리나 이용객을 위한 자연조건과 안전관리요소에 대해 일정한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장하는 국제친환경인증
- 2018년 기준 45개국 4,558개(해수욕장, 마리나&보트) 인증
- 2016년 아시아 최초로 일본 2곳(와카다 와사 해수욕장, 유이가 하마 해수욕장) 인증 획득 및 운영 중
- 2017년 완도군 명사십리해수욕장 파일럿 인증 후 2019년 4월 24일, 대한민국 최초 인증 획득



〈누리마루 APEC 하우스〉



〈국제 수산무역 EXPO〉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연계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 후 사업 추진
 -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결과 중앙투자심사 후 실시설계 및 착공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회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추진
- 전시컨벤션과 관광·문화·상업 등 시너지를 통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 대규모 전시공간 확보로 국제행사 유치 등 국제경쟁력 제고
 - 서남권 MICE산업 육성으로 숙박, 쇼핑, 공연 관람 등 관련 시설의 연계로 국제회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 유도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유치·개최 지원 등 MICE산업 육성 사업으로 추진

6) 환황해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Blue-food valley)구축

1. ‘수산식품 수출단지’ 연계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 사업위치 : 수산식품 수출단지(목포)중심 산지거점 연계
- 사업기간 : 2019 ~ 2023
- 핵심사업 :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산식품화 R&D기반 구축, 기업협력 및 특화 지원체계 구축 등(*산지 가공시설 개선 지원)

□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1월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으로 ‘서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확정되면서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화를 통한 수산자원 활용 고부가가치화 추진으로 수산분야 성장거점화 추진 필요
 - 서남권 소재 시·군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가공·유통·수출 마케팅에 걸친 애로사항 해결 및 협력을 통한 수산식품 글로벌 전진기지로 육성
- 수산물 연구·가공시설, 냉동·냉장시설 등 복합시설 확충을 통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식품 공동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수산식품분야 스마트 가공시스템 도입으로 지역특화 수산물(가공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현재까지 지역 수산업은 수산물 생산 종사자의 고령화, 단순한 가공기술, 영세한 경영규모, 마케팅 능력 및 업체간 연계·협력시스템 부족으로 수출 경쟁력 저하

□ 주요 사업내용

-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시설 구축
- 수산식품 고품질화 및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해 R&D, 가공 및 유통 기능을 복합화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로 육성
 - 가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제품의 품질, 주문 및 생산관리, 재고관리 등을 위한 맞춤형 생산 공정 시스템 개발
 - 거점단지 내(혹은 인접지역) 국내·외 주요 식품기업 및 부설연구소 유치 등을 통해 '수산식품수출단지' 및 연관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 산·학·연·관 협력활동을 주도하는 한편,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클러스터 지원기관 운영 등 추진
- 전략식품, 글로벌 식품, 일반식품 개발 및 물류·유통, 수산식품 연관 산업 관련 R&D 확대 및 창업·교육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활동 지원
- 수산업의 미래전략산업화를 목표로 목표시장(수출·내수)별 전략품목 발굴, 가공식품 개발 및 유통 선진화와 함께 수산식품 관련 R&D 확대, 창업·교육 지원 등을 통해 서남권 소재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 생산·제조·판매 부분의 수평·수직적 협력 구조 구축
 - 전남도 추진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2020년; 총사업비 51억원)과 연계를 통해 수산분야 창업부터 기업육성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19년도 스마트공장 시스템 지원 시범사업 신청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으로 인한 쏠림현상 등 산지 생산자(단체)들의 우려해소를 위해 산지 거점간 역할 분담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효율적 연계 체계 구축

- 생산·제조(가공)·유통·판매 등 마케팅 전 분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주요 거점산지는 원물 생산 및 1차 가공에 중점을 둔 냉장·냉동설비 및 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원물의 고급화, 고차 가공 등 R&D, 판로 확대, 수출 사업화, 마케팅, 컨설팅(창업기술지원) 추진 등 수평·수직적 기능 분담체계 구축 및 운영
- 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클러스터 구성원간(관련종사자간)네트워크 확대, 기술 및 정보 확산, 대외 홍보업무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수산식품 산업단지 조성
- 지자체와 기업간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를 통한 One-Stop 맞춤형 수출업무 지원 체계 구축
- 수입국 통관·검역제도 등 수출정보 제공과 함께, 고충상담 및 기업별 맞춤형 수출업무 지원
- 영세 수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융, 수출 보험 등 지원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ICT 융합 시스템 도입 및 자동화로 저비용·고효율 물류체계 구축 및 수출 식품의 안전·위생수준 관리 강화로 품질 신뢰도 제고
-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수출인프라 구축으로 수산식품산업의 글로벌 제고 및 소비확대

2. 수산부산물(魚粉·魚油) 활용, 신소득원 발굴 및 사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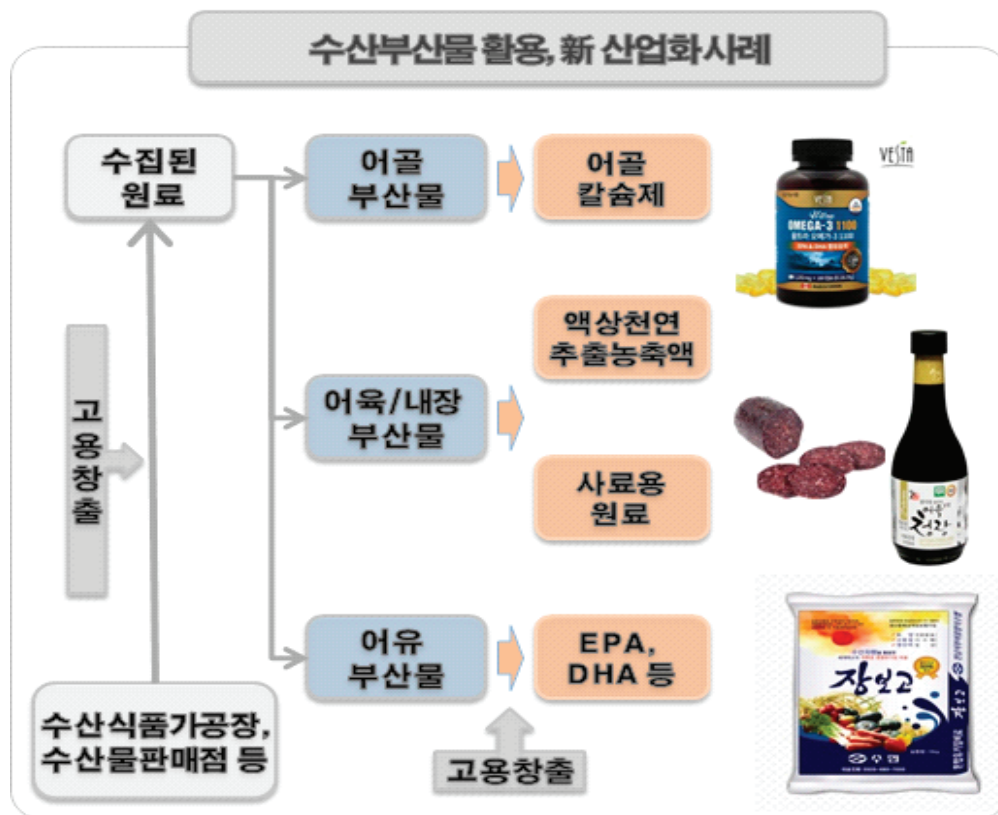
- 사업위치 : 목포, 신안, 완도, 영광, 해남, 영암
- 사업기간 : 2019 ~ 2022
- 핵심사업 : 수산부산물 취합 및 처리시스템 구축, 수산부산물 활용 R&D 기반 구축 등 (*수산식품수출단지 연계)

□ 필요성 및 목적

- 양식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어분의 가격급등 및 품귀현상으로 세계 각국이 수산양식용 어분 확보 경쟁심화
 - 국내산 어분은 약 4만 톤 생산, 외국산 어분 연간 5만 톤 수입사용
- 첨단화 및 환경친화적 양식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자동 먹이 공급 등 첨단 양식 시스템에 적합한 배합사료 중요성 증대
 - 원물(수산물) 어획 및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뼈·지느러미·내장과 패류의 껍질 등)을 이용한 고품질 어분·어유 등 안정적인 사료자원 공급 필요
- 양식업계의 생(生)사료 선호 등에 따른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등 어장환경 개선을 이한 배합사료 사용 확대 촉진
 - 해양수산부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 발표 및 2022년까지 양식용 배합사료 의무화 추진
- 전 세계 어분 및 어유 시장에서 의약품 응용 활용산업 분야 높은 성장률
 - 어유는 신경계 발달 및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EPA 및 DHA를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양질의 저비용 고효율 어분·어유 개발을 위한 R&D 인프라 구축
 -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어분 사용 기반 확충을 통해 국내산 어분 품질 향상
- 양어용 어분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국내산 어분을 양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 등 관련대책 마련 및 수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리를 위해 지자체 어류양식업 동향과 배합사료 사용 실태 파악 등 선제적 추진
- 어분·어유 기반 신물질 추출 및 효능 개발을 위해 R&D를 통한 신사업 아이템 발굴로 사업다각화 추진
 - 해양수산과학원, 생물산업진흥원 등 수산관련 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효소 등 신물질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 퇴비 원료 및 고차가공을 통해 DNA, DPA, EPA, 콜라겐, 콘드로이틴, 클루코사민 등으로 상품화(ex. 일본, 캐나다 등)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어분 생산국과의 수산협력 강화 및 현지 진출(원료 확보 등)
 - 세계 최대 어분 생산국(수출국)인 페루와 칠레 등
- 배합사료 사용 확대 정책과 연계 추진
 - 어분 및 사료 관련 제도 정비
- 연근해 수산자원 보전 및 생산 단가 절감을 통한 양식사업 경쟁력 강화
 -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재활용 및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3. 패류 클러스터 구축 및 신소재산업화

- 사업위치 : 목포, 신안, 완도, 영광, 해남, 영암
- 사업기간 : 2019 ~ 2021
- 핵심사업 : 패류산업 연구 지원센터 구축, 산지별 특화단지 조성(굴, 바지락, 전복, 참고막, 백합, 맛조개, 키조개 등)

□ 필요성 및 목적

- 안정적 종자확보, 식품 안정성, 활패 의존 유통구조 개선 및 전통적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종묘 대량 생산체계 확립
- 전복, 꼬막, 바지락 등 전남도내 대표적인 패류 양식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 패류양식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수출시장 개발, 확대 및 고차가공을 통한 상품다양성 확보로 목표시장 다변화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친환경 기술기반 종자생산, 우량품종 육성 및 종 보존, 친환경 및 첨단 패류 양식기술 연구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국제갯벌연구소, 전복연구소 등 산·학·연 협의체 구성 맞춤형 종자생산 개발·보급
- 10개 시·군 특성을 고려한 생산, 가공, 위생, 유통, 수출통합형 패류 양식산업 특화단지 조성
 - 지자체별 주력 생산품종을 중심으로 가공·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생산~가공~유통기능이 집적화된 패류산업 육성단지 조성

- ‘(가칭)패류산업 연구지원센터’ 신설로 생산기술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D등 지역 대표산업으로 육성



- 무인도서를 활용한 양식품종 적지 확대 및 품종 다변화를 위해 기존 사업과의 연계 추진
 - 기후변화 대응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 및 자원회복(전복, 바지락, 꼬막 등) 사업 연계
- 패각 등을 활용한 신소재산업화 추진으로 타 산업과의 연계사업화 가능성 검토
 - 패각 처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패각 구성성분에 대한 연구체계 구축으로 신소재 추출 등 타 산업(ex. 굴 패각 펄 성분의 미용 재료화)과 연계 추진

- 김 양식의 사상체 배양에 국내산 굴 패각 이용 (*국내 굴 생산량 24만톤 중 18만톤이 패각이나, 김 종자 배양을 위한 우각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을 국내 굴 패각 활용방안 검토 절실)
- 굴 패각을 활용 탈황 물질 제조 기술 개발

〈표 IV-13〉 패각 활용 신소재사업화 사례(일본)

| 분야 | 주요 품목 | 업체 사례 |
|-------|---------|-----------------|
| 비료·사료 | 패각비료 | (주)그린맨 / 도바시 |
| | 토양개량재 | 북해도스칼럽 / 후루사토 |
| | 양계용 사료 | 우라베산업 |
| | 석회석 대용품 | 시타마석회 / 핫츠시 |
| 고차가공품 | 식품첨가물 | 주고쿠 / (유)아마고 |
| | 세정제·정화재 | 솔리드 / 위츠 / 후루사토 |
| | 도료·도장제 | 아사히토목 / 차프스칼럽 |
| | 미용재 | 미키모토 / 다이헤이지기 |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산·학·연 연계 강화를 통한 고부가 패류양식 기술 선도 및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별 성장전략 차별화
- 패류양식업 고도화, 경쟁력 확보로 수출시장 전략적 개발 및 수출 증대
- 패류양식 산업 활성화로 고용창출 증대 및 전남 수산 대표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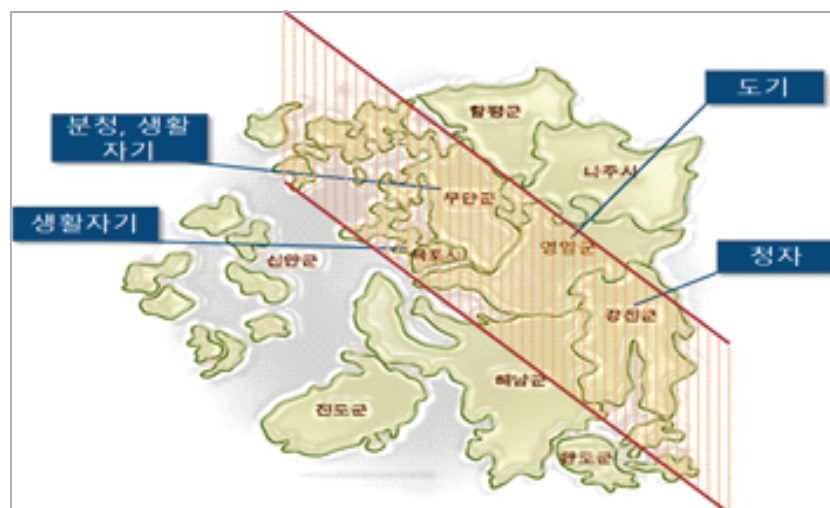
7) 환황해권 역사문화 교류협력 거점화 사업

1. 환황해권 도자문화 교류벨트 구축

- 사업위치 : 목포, 무안, 영암 등
- 사업기간 : 2019~2026
- 사업비 : 260억원(도비 25, 사군비 75, 민자 160)
- 핵심사업 : (목포) 도자기 테마파크 조성
(무안) 무안요 등 생활도자, 초의선사 차(茶禪一味) 체험
(연계) 남도문예르네상스(목포·진도)~생활도자~차문화 연계

□ 필요성 및 목적

- 서남권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중·일 삼국이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토대로 환황해권의 문화가치를 부각하고, 서남권의 관광객 집객효과 증진 및 선도 교류거점 구축 필요
- 국도2호선 중심의 도자 발달사(도기~청자~분청사기~백자~생활도자) 및 도자를 활용한 차 문화를 연계하여 도자벨트 구축 및 도자교류 국제화 사업 추진(*분산된 도자 축제의 통합을 통한 개최효과 극대화 추진)



- 환황해권 도자문화 콘텐츠 발굴 및 집적화를 위한 서남권 중심의 교류·축제·학술행사 프로그램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도자문화를 연계한 도자벨트화 추진 및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한·중·일 도자교류축제’ 추진
- 임진왜란의 경우, 일본을 통해 조선의 도자기 기술이 유럽에 소개되는 등 ‘도자기 전쟁’으로 해석되고 있음
- 장시성 징더전 도계천 단지(중), 아리타 포세린 파크(일)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도자기 테마파크 조성
- 영암요무안요/목포(舊조선내화행남자기) 등 서남권 생활도자(세라믹) 클러스터와 일본 가라쓰·이마라·아리타, 중국 장시성 징더전과 생활도자기 산업 교류
- 한·중·일 3국 도자기 교류전 정기 개최 : 한(무안, 영암 등)~중(장시성 도계천)~일(사가현 아리타)
- (1단계) 도자기 역사변천 과정, 일본 전수 과정, 유럽 도자기 산업과의 연관성 등을 기반으로 하는 도자기 테마파크 추진
- (2단계) 도자기 테마공원 표현기법으로 ‘트렌카디스’ 방식을 적용하는 등 도자기의 표면과 색 등의 디자인 요소를 충분하게 활용
- * ‘트렌카디스’ 기법은 도자기를 깨서 모자이크 형태로 붙이는 방법(바르셀로나 구엘공원 사례 참조)



〈아리타 포세린 파크〉
(일본 사가현)



〈도계천 문화혁신단지〉
(중국 장시성)



〈구엘공원 트렌카디스기법〉
(스페인 바르셀로나)

- 헬스케어 기능 접목 등 신수요 창출을 통한 생산고도화 및 생활도자 사업 확대
 - 도자문화 거점지대 구축을 위해 목포·무안·영암 등 서남권 생활도자산업 및 건강·웰빙형 생활도자 생산 지원
 - 도자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재 트렌드를 고려한 공공가로 건축(스트리트 퍼 니처)에 도자재료 활용
 - 생활도자기와 도자기를 이용한 음식로 시식·시음행사, 도자 아울렛 개최



〈생활도자 컬렉션〉
(아리타 1616)



〈도자기 축제〉
(아리타&이마리)



〈아리타 에키벤〉
(아리타역 도시락)

- ‘남도문예르네상스 2.0’의 핵심 선도사업 추진(*남해안 신성장 관광 벨트사업으로 확대)
 - ‘국립 차(茶) 박물관’ 설립 추진과 함께 도자(陶器) 문화와 차(茶) 문화를 결합한 체험중심 프로그램 개발·운영
 - ‘차 문화’ 플랫폼을 통해 복식, 다식, 음식, 정신수양, 장식 등과 연계한 다양한 남도문화의 영역으로 확장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도자기 테마공원의 경우, 도자기 연관기업 등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 추진

- 목포 조선내화기업, 행남자기 등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투자가능성을 상호 논의하는 협력체계 구축
- 도자기 일본 전수 및 유럽 전파 과정, 도자기 역사 관련 VR·AR 문화콘텐츠 제작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 CGI센터 등과 연계하여 정부 공동사업으로 추진
- 남도문예르네상스 광역화를 위해서는 목포와 진도이외 참여 지자체를 공모하여 상호 연계사업 프로그램 추진
 - 차문화(무안)~생활도자(무안요, 영암요, 목포시) 연계
 - 일본(사가현), 중국(장시성)과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생활도자 정기교류전 프로그램 운영 및 남도문예르네상스 사업의 국제화 추진

□ 재원확보 계획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재원별 연도별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 타 |
|---------|-----|------------|-----|----|----|-----|-----|
| 도자기테마파크 | | 계 | 200 | - | - | 50 | 150 |
| | 1식 | 2019 | - | - | - | - | - |
| | | 2020 | - | - | - | 20 | 20 |
| | | 2021 | - | - | - | 20 | 30 |
| | | 2022 | - | - | - | 10 | 50 |
| | | 2022 이후 | - | - | - | - | 50 |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재원별 연도별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 타 |
|-----------------|-----|------------|----|----|----|-----|-----|
| 남도문예르네상스 국제화 | | 계 | 60 | - | 25 | 25 | 10 |
| | 1식 | 2019 | 12 | - | 5 | 5 | 2 |
| | | 2020 | 12 | - | 5 | 5 | 2 |
| | | 2021 | 12 | - | 5 | 5 | 2 |
| | | 2022 | 12 | - | 5 | 5 | 2 |
| | | 2022 이후 | 12 | - | 5 | 5 | 2 |

2. 환황해 교류역사문화 체험거점 조성

- 사업위치 : 목포, 신안 등
- 사업기간 : 2019 ~ 2025
- 사업비 : 300억원(국비 170, 도비 25, 사군비 105)
- 핵심사업 : (목포) 근대역사문화 체험거리 활성화, (신안) 환황해교류역사관 건립

□ 필요성 및 목적

- 과거 대륙과 해양의 진출입 관문 역할을 수행한 한반도 서남권지역은 무역문화교류전쟁수탈 등의 역사적 주요 공간으로 그 중요성과 가치가 두드러짐
- 한반도 서남권을 중심으로 과거 한중일 3개국의 교류역사와 각 국의 대표 문화자원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조성 필요
- 한중일 3개국이 공통으로 연계할 수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국제적 이벤트화 하여 3개국 방문객 집객효과를 유도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육성

□ 주요 사업내용

- 중국 중심 ‘황해역사교류관’의 위상을 일본을 포함한 ‘환황해문화권’으로 확대
- 왕인박사, 청해진 장보고, 최부 표해록 등 환황해권 3국과 교류협력의 역사 자취를 남긴 지역 선인들의 선양사업 추진
- 전남의 해양농업박물관과 장시성 박물관, 저장성 영파박물관, 큐슈 박물관 등과 상호교차 전시프로그램 사업 추진

- 환황해권 3개국의 주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화거리와 한·중·일의 생활문화와 특화음식, 건축물 등이 집적된 가로 조성
- 목포 근대역사문화 거리를 기반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집적된 중국·일본 문화가로 구축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환황해교류역사관은 균특사업과 지방비를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상설·기획전시교류관, 전시품 수장고, 편의시설 등을 배치
- 중국·일본 관련 인물과 문화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등을 집약적으로 전시하여 서남권의 한·중·일 3개국 문화교류 거점 지대 조성
- 현재 추진 중인 목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조성사업을 활용하여 방문객의 집객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근대 생활문화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건축자산형,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역사문화형 등 지역특화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재원확보 계획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재원별 연도별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 타 |
|-------------|-----|------------|-----|----|----|-----|-----|
| 환황해교류역사관 건립 | | 계 | 100 | 50 | 25 | 25 | - |
| | 1식 | 2019 | 55 | 25 | 15 | 15 | - |
| | | 2020 | 45 | 25 | 10 | 10 | - |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재원별 연도별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 타 |
|----------|-----|------------|-----|-----|----|-----|-----|
| 근대역사문화거리 | | 계 | 200 | 120 | - | 80 | - |
| | 1식 | 2019 | 50 | 30 | - | 20 | - |
| | | 2020 | 50 | 30 | - | 20 | - |
| | | 2021 | 50 | 30 | - | 20 | - |
| | | 2022 | 50 | 30 | - | 20 | - |

3. 통일시대, 국토 남·북단 교류협력 사업화

- 사업위치 : 목포, 무안, 해남 등
- 사업기간 : 2019 ~ 2025
- 핵심사업 : (목포) 아시안 하이웨이 지선 시점 지정
(무안) 무안국제공항 남북한 셔틀공항화
(해남) 땅끝 교류협력 사업 추진

□ 필요성 및 목적

-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작은 단위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필요
 - 독일의 통일정책은 콘라드 아데나워 초대 총리가 통일의지를 표명한 이후, 지방정부간 작지만 실천적인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강조한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그 결실을 맺음
 - 유엔 대북제재 환경 하에서 한 민족간 청소년·스포츠·문화·예술 제분야의 교류협력사업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추진 필요
- 서남권의 지정학적 위치를 지역발전의 강점요소로 활용하고, 남북화해 협력시대 한반도경제권의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필요
 - 남북 중심의 한반도경제권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새로운 ‘유라시아 평화경제권’ 조성 검토
 - 2019년 4월 초,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북미간 양자관계에서 한미북중러 등의 다자간 관계로 다변화
- 서남권 중심의 관광·해운·물류산업을 특화하여 ‘유라시아 경제권’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한 육·해·공 인프라 구축

- 서남권과 북한, 서남권과 아세안, 서남권과 극동을 연결하는 육·해·공 3축의 복합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대륙과 해양의 결절지역으로서 위상 강화
- 유라시아 경제권 편입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소득 창출
-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을 위해 지자체간 자매결연 사업 전략적 검토
 - 남측의 땅끝인 해남과 북측의 땅끝인 온성간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
 - 영암·해남 기업도시와 나진·선봉시 경제특구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대북 경제 제제가 완화될 경우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검토

□ 주요 사업내용

- (목포) 아시안 하이웨이 지선 기점화 사업
 - (1단계)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 국내 경유지인 부산~서울구간 외에 국도 1호선(목포~신의주)을 이용하여 아시안 하이웨이 1-1호선 지정
 - (2단계) 국도 1호선과 아시안 하이웨이 1-1호선을 기념하고 상징성을 강화하는 정기적 행사 추진 및 아시안 하이웨이 경유도시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해당 도시간 교류협력 사업추진
- (무안) 무안국제공항의 남북한 셔틀공항 사업 추진
 - 무안국제공항과 북한 삼지연 공항 직항로 개설을 통해 남북 하늘길을 활용한 백두산 관광사업 추진
 - 무안국제공항과 태국싱가포르 연결 및 삼지연 공항과 길림성, 시베리아(연해주) 연결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권의 연계성 강화
- (해남) 땅끝 교류·협력 사업 추진
 - 남측 땅끝 해남과 북측 땅끝 온성간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한반도의 해양과 대륙 진출 교류사업 추진
 - 양 지역 경제특별지구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와 나진·선봉 경제특구간 경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준비 검토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서남권 남북평화인프라 조성사업은 유엔의 결의사항이 완화된다는 가정하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중앙정부 지원하에서 추진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에 반영되어 국가적 사업으로 관련 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
- 남북평화인프라를 위한 육해공 3축 조성 및 관련 기능 부가가치 제고사업을 통해 한반도 서남권의 가치 상승 및 국제적 평화교류 협력권역으로 이미지 개선 가능
 - 육해공 3축을 통해 아세안극동, 러시아북한 등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 확보



〈그림 IV-35〉 서남권 7대 그랜드프로젝트 단계별 사업계획

〈표 IV-14〉 서남권 그랜드프로젝트 공약사항 연계 현황

| 그랜드 디자인 | 관련내용 | 공 약 사 항 |
|---|---------------------------------------|---|
| ① 해양기반 친환경미래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 | 1-1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 | ㉔ 1-2-2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해상풍력 배후단지 내용, 마을기업형 에 너지자립마을, 영농형 태양광 등 포함) ㉕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 산업 |
| | 1-2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 |
| | 1-3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실증단지 조성 | 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1/18, 울산) ㉕ 전남 수소경제 선포식(5/22, 여수) |
| ② 신해양시대 Blue Economy 특화산업지대 육성 | 2-1 해양 MRO(중소형 수리조선) 전문단지 조성 | ㉔ 목포에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 조선특화산업단지 조성 |
| | 2-2 중소형 친환경선박 산·개조 복합단지 조성 | ㉕ 1-2-6 해경서부정비창 유치 및 수리 조선 특화 육성 |
| | 2-3 차세대 해양레저장비 클러스터 구축 |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 진에 관한 법률』2020년 시행 |
| | 2-4 동북아해양시대 조선방위산업 전진기지 구축 | |
| ③ 수상항공산업 특화클러스터 조성 | 3-1 수상항공산업 특화지대 육성 | |
| | 3-2 수상항공 특화 항공기술훈련원(분원) 유치 | |
| ④ 글로벌해양관광 교두보 조성 | 4-1 해상형 관광기반, 환황해크루즈 활성화 | ㉕ 4-1-3 목포 크루즈항 개발 |
| | 4-2 수상비행장 조성 및 관련산업 기반 구축 | |
| | 4-3 연륙·연도교 조기완료 및 도로망 연결 개선 | ㉕ 2-3-4 연륙·연도교 확충으로 도서민 의 교통편의 개선 |
| | 4-4 서·남해안철도 구축 및 열차페리 연계 | ㉕ 1-1-7 서해안철도 건설 ㉕ 2-3-2 남해안철도(목포~보성) 전철화 사업 추진 |
| ⑤ 복합치유벨트 (MICARE)조성 | 5-1 해양 MICE 관광벨트 구축(크루즈연계) | |
| | 5-2 해양치유자원 연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 ㉕ 2-2-4 해양치유단지 조성 ㉕㉕ 2-2-3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구축 |
| | 5-3 서남권 대표 MICE 시설 조성 및 국제대회 유치 | |
| ⑥ 환황해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 (Blue-food valley) 구축 | 6-1 '수산식품 수출단지' 연계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 ㉕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 업생산기지 조성 ㉕ 3-2-5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 ㉕ 1-1-6 해양식품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
| | 6-2 수산부산물(魚粉·魚油) 활용, 신소득원 발굴 및 사업화 | ㉕ 2-2-3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구축 |
| | 6-3 패류 클러스터 구축 및 신소재산업화 | ㉕ 3-2-3 수산자원 조성 및 해양환경 정 비 |
| ⑦ 환황해권 역사문화 교류 협력 거점화사업 | 7-1 환황해권 도자문화 교류벨트 구축 | |
| | 7-2 환황해 교류역사문화 체험거점 조성 | |
| | 7-3 통일시대, 국토 남·북단 교류·협력 사업화 | ㉕1-1-1 한반도 평화시대 실현 남북교류 협력 ㉕1-1-5 영산강 간척지 통일농업단지 |

* ㉕-국정과제(대선공약), ㉕-민선7시 도지사 공약

2.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1) 연계협력 전략 방향

□ 범위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설 복합화 등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 및 사업추진의 효과성 증대
- 특화된 지역잠재자원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재원이나 추진조직 등 사업추진 역량의 한계를 연계·협력을 통해 보완
-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자산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산재된 유사자원의 통합 활용 등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회 마련

□ 사업분야별 지역간 협력사업 추진

- 경제산업분야 : 가치사슬 단계별로 분화된 기능의 수직적·수평적 통합화를 통해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문화관광분야 : 문화관광사업의 연계·협력 등 각 지역이 보유한 잠재자원의 공동 활용 및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농림·수산분야 : 자원의 가치 창출 및 지역의 정위화(Positioning)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 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쟁력 제고
- 생활기반 조성분야 : 광역차원의 생활 기반시설 조성 및 공동이용 추진 등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

□ 공동자원인 ‘바다’를 키워드로 3대 분야 연계·협력사업 제시

- 바다가 일러주는 미래 : 지역의 특화자원 및 산업특성 등을 토대로 경제산업분야의 공동 추진사업 제안
 - 서남권의 지경학적 우위요소를 토대로 지역보유 잠재자원 및 특징점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 추진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성으로 사업효율성 극대화
 -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에너지, 친환경 농수산물 중심 바이오·식품산업, 조선·항공산업 등 전략적 육성 추진
- 바다와 공감하는 즐거움 : 지역이 보유한 자연자원, 역사·전통유산, 문화·관광자원을 토대로 미래 핵심성장산업인 문화·관광분야의 공동 추진사업 제안
 - 천혜의 자연자원과 전통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연계 개발을 통해 동북아 최고의 해양관광지대로 변모
 -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패턴과 다양한 소비수요에 부합하는 지역관광 거점 육성 및 보유자원의 세계화 추진
- 바다로 잇는 풍요로움 : 지역특성에 부합한 생활 인프라의 공동조성 및 활용과 함께 기반시설 조성 및 관련한 공동 추진사업 제안
 - 미래시대 국토성장의 핵심 지대로 도약을 위해, 지역(생활)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방문객의 만족도 증대 유도
 - 해양 기반의 교류문화 거점이자 신북방·남방정책의 시발점으로써 서남권의 역할과 기능 극대화 추진



〈그림 IV-36〉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사업 구상도

2)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1) 바다가 일러주는 미래

1. 서남권 특별행정협의체 구성·운영

□ 필요성 및 목적

- 서남권경제공동체 중심의 그랜드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시 기능 및 역할분담, 자원배분, 사업추진 등에 따른 상설화된 의사결정협의체 필요
-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 등 전라남도 및 정부 추진사업과의 혼선 최소화 및 협의·조정 등을 위한 서남권 대표 의결기구 설립·운영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9개 시·군
- 기 간 : 2019~
- 사업내용
 - 서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Control Tower 구축 : (가칭)서남권특별행정협의체
 - 시·군(의회) 및 지역민 대표가 공동 참여하는 의사결정지원조직 구성·운영
 - 사업추진 관련 공동의사결정시스템 구축 및 공동사업지원
 - 정부공모사업 등 지역사업 반영 공동대응을 위한 실무반 편성·운영 등

□ 추진방향

- 서남권 9개 시·군별 실질적인 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설기구 구성으로 서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Control Tower 구축
- 지역대표사업 및 연계사업 추진에 따른 의사결정 수행체계 마련

- 서남권 공동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공동사업화 추진과 함께 국비지원 사업 및 주요 (법정)계획 수립시 지역사업 반영 등 공동 대응

2.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유치

□ 필요성 및 목적

- 정부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추진에 대응, 서남권을 미래성장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역발전방향 및 특성을 고려한 R&D기반 조성
- 목포 중심의 서남권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자, 해상풍력단지 개발 잠재력, 기존 인프라 연계 및 연관산업 활성화, 해상풍력 잠재량 등 높은 지역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연구센터 유치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목포, 해남, 영암
- 기 간 : 2020~2024 (*사업비 450억원: 국비 300, 지방비 150)
- 사업내용 (*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핵심사업)
 - R&D지원 : ICT활용 해상풍력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 로봇 개발 등
 - 기업지원 : 해상풍력 부품-시스템업체간 연계 지원체계 구축, 마케팅 지원 등
 - 인증실증 : 해상풍력 부품/시스템 복합실증단지 운영 등
 - 인력양성 : 안전 및 유지보수관리, 전문기술 교육 등 유지보수 전문가 양성

□ 추진방향

- 지자체 협의체 구성 및 전남도 공동 센터건립 후보지 건의 및 유치 추진

☞ 설립후보지 예비타당성 용역 : 군산대·KIET (19년 6월 완료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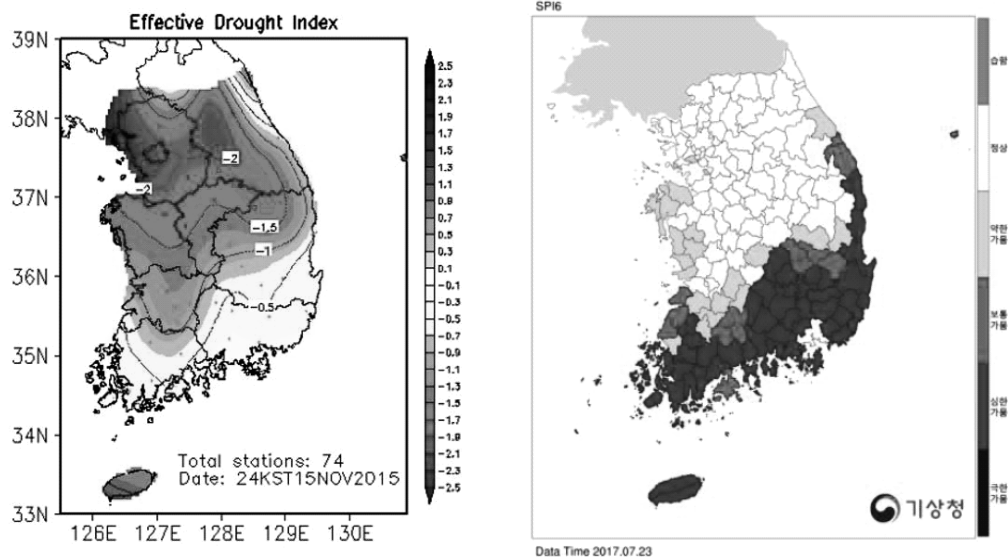
| <입지 및 타당성 분석의 공간적 범위> | |
|-----------------------|--------------|
| ㉠ 울산광역시 동구 | ㉡ 전북 군산시 |
| ㉢ 전남 영암군·목포시·해남군 | ㉣ 경남 거제시 |
| ㉤ 경남 창원시 진해구 | ㉥ 경남 통영시·고성군 |

- 입지적합성 평가기준 중 지역차원에서 충족가능한 정성적·정량적 지표요인 선별을 통해 정비 및 개선 추진 (*대부분 지표에서 상대적 우위)
- 평가기준 : 정책적합성(에너지정책 일관성/지역균형발전), 산업연계성(산단 규모/관련산업연계성), 인프라기반성(접근성/기반조성 경제성/부지개발 용이성/지자체 및 주민 수용성), 발전가능성(실증용이성/R&D기관 접근성)

3. 해상이동형 해수담수화 플랜트산업 육성

□ 필요성 및 목적

-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 가뭄 등의 강도 및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서·해안지역의 물 공급 여건 악화



(a) 2015년 11월

(b) 2017년 7월

자료 : 이상호(2017), 해상 이동형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 기획

〈그림 IV-37〉 극한가뭄 발생 현황

- 완도, 신안, 진도 등 전남 도서지역은 2017년 여름부터 2018년 봄까지 물 부족으로 제한·운반급수 시행
- 정부는 신안·완도, 속초 등 도서지역에 식수 전용저수지 축조, 도서지역 해저관로 연계 생활용수 공급, 수원(빗물저류조, 지하수댐 등) 개발 등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억원을 긴급 지원(제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8. 2.)

〈표 IV-15〉 전남 도서지역 제한·운반급수 현황

| 지 역 | | 세대/인구 | 상수원 최저저수율(%) | 비상급수 실태 |
|-----|---------------|-------------|--------------|-------------|
| 완도 | 보길도·노화도 | 3,623/7,924 | 11.6(부항제) | 2일 급수/6일 단수 |
| | 소안도 | 1,337/2,714 | 19.2(미라제) | 2일 급수/4일 단수 |
| 신안 | 안좌도·팔금도 | 2,407/4,312 | 26.0(오동제) | 격일 급수 |
| | 임자 | 1,762/3,316 | 34.0(부동제) | 격일 급수 |
| 진도 | 대마도 | 62/104 | 지하수 | 1일 5시간 급수 |
| | 관사도 | 51/76 | 지하수 | 1일 1시간 급수 |
| | 외병도 등 21개 섬지역 | 209/311 | 운반급수(급수선) | |

주 :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자료임.
자료 : 전라남도 내부자료(2019)



자료 : 이상호(2017), 해상 이동형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 기획

〈그림 IV-38〉 해상 이동형 해수담수화 플랜트 개념도

- 해수담수화 시설은 도서지역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안이지만, 유지·관리, 높은 에너지 소비량 등의 단점으로 인해 보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는 기존의 해수담수화 시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상 이동형 해수담수화 플랜트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
- 도서지역이 많아 물부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서남권은 진행 중인 정부 R&D 사업 결과를 토대로 도서지역 물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조선 산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목포 중심 서남권 섬 지역 대상
- 기 간 : 2020~2023(*전액 국비지원)
- 사업내용
 - 해상 이동형 자향식 담수화 플랜트 개발 및 실증
 - 수리조선과 연계한 중고 선박 개조 및 전후방 부품기자재산업 육성

□ 추진방향

- 해상 이동형 해수담수화 플랜트 개발사업 실증
 - 해상 자향식 담수화 플랜트 설계 및 제작(300톤/일 규모)
 - 해남, 진도, 신안 등 서남권 도서지역 물 공급 실증
- 해상 이동형 해수담수화 플랜트용 중고 선박 개조 및 관련 부품업체 육성
 - 기존 선박을 다목적용(물류수송(평시), 물 공급(가뭄시) 등)으로 개조
 - 담수화 장치, 해수 전처리 및 취·배수 장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업체 육성

4. 스타트업 투자벨트 구축

□ 필요성 및 목적

- 세계 각국은 창업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확대하고 있음
-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창업 콤플렉스 조성 확대 추세
- 서남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스타트업 환경 조성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일하고 싶은 미래형 창업지대 조성
-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 지역특화자원 활용 및 지역산업 연계를 통해 차별화된 창업생태계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목포(대양산단), 영암(대불산단)
- 기 간 : 2020~2027
- 사업내용
 - 스타트업 투자벨트 구축 및 지원을 위한『글로벌창업투자센터』설립
 - 지역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글로벌펀드’ 조성
 - 지역자원 활용형 창업 공모전 개최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KOTRA 등 연계, 글로벌 권역별 투자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글로벌 인재들이 참여하는 국제창업대회 정기 개최 등

□ 추진방향

- 지역내 산업특성에 기반한 창업자원 발굴 및 인재 육성체계 마련
- 전남중소기업진흥원과 연계한 창업지원 환경 조성
- 지역특성을 반영한 창업생태계 조성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심 각 부처간 모태펀드 및 크라우드펀딩 등 활용

5. 슬로시티 연계 치유상품 발굴·육성

□ 필요성 및 목적

-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인증된 청산도, 증도(2007년)와 함께 최근 인증된 목포(5/22) 중심 연관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쟁력 향상 필요
- 슬로시티 이념과 철학에 부합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토대로 차별화된 사업 발굴 및 사업화로 지역이미지 개선 및 경제 활성화 유도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목포, 완도, 신안
- 기 간 : 2020~2022
- 사업내용
 - 역사문화 및 예향미향 이미지 기반, 슬로시티 유관상품 개발 및 사업화
 - 보유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 등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보급
 - 슬로시티 가치를 활용,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통합된 마케팅 추진

□ 추진방향

- 음식을 통한 치유 ‘테라푸드(Thera-food)’ 개발 및 보급
 - 로컬푸드 기반, ‘예방의학적 차원의 치유음식’ 메뉴 개발 및 보급 확대
- 해양치유자원 연계, 휴양-요양-치유 복합프로그램 운영
 - 해양자원 효능활용+체험 프로그램 등 토대로, 자연친화적 치유효과 제공
- 유기농 슬로푸드 상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
 -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연계상품 발굴과 함께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한 판매시설 운영 등

6. 친환경농수산물 활용, 미래식품산업 육성

□ 필요성 및 목적

- 서남권 친환경농수산물을 활용, 고령친화식품, 영유아식품 등 특수용도식품산업 및 전통발효식품산업 등 차별화된 특화산업 육성 추진
- 전통식품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의 식품소비 추세 변화에 맞춘화된 미래식품산업 육성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9개 시·군 전체
- 기 간 : 202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수산물 활용, 식품소재 R&D 및 사업화 추진 주체 설립
 - 미래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지역소재 산단 및 식품기업 등과 연계한 신규시장 개척 및 제품 다양화 추진
 - 고령친화, 영·유아, 임산부 및 수유부, 체중조절용 등 시장유형별 맞춤형 식품소재 개발 및 사업화 추진
 - 식품중심 향노화 관련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 R&D, 상품화 지원

□ 추진방향

- 생산인과 권역내 중소기업간 유기적 상생관계를 통한 원료조달, 제조가공, 기술개발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견인
 - 생산·가공·유통·판매과정에서의 농공상 융합 등 6차산업화 육성 추진
- 구성원간 융합의 유형별 사례발굴을 통한 성공모델 구축
 - 유통제휴형, 외식제휴형, 부가가치 기술개발 및 소재 개발형, 문화마케팅형, 공동사업형 등

7. 서남권 통합브랜드 개발·활용

□ 필요성 및 목적

- ‘서남권 경제공동체’의 정체성 확보 및 통합된 이미지 구축·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로써 통합(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 추진
- 통합브랜드를 공간(지역성)개념과 연계시킴으로써 농축수산물, 특산물 등 상품과 지역축제, 이벤트 등 관광, 그리고 지역 자체의 이미지화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대 상 : 9개 시·군 전체
- 주 체 : 서남권 특별행정협의체
- 주요사업
 - 서남권경제공동체의 차별적 특성 및 공동목표 등에 기반한 통합브랜드 구성요소 개발(*목표, 슬로건, 로고, 심벌, 캐릭터 등)
(예시) 해(海)너미, 노을향(鄉/香), 낭만파(波) 등 (*노출 효과에 의한 지역 이미지 확산을 목표로 브랜드공모전 등 추진)
 - 통합브랜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프로모션 추진
(예시) 브랜드명(*노을 등) 혹은 지역출신(*송가인 등) 가수 활용
 - 서남권 상품, 관광자원 등 브랜딩으로 차별적 이미지 구축 및 확산 추진

□ 추진방향

- 서남권 소재 개별브랜드 실태조사를 통한 경쟁우위 요소 발굴
 - 타 지자체 대비 차별적 우위요소 발굴 및 이에 기반한 브랜드 개발방향 정립

- 9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공동브랜드 개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공동브랜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규약 정비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 통합브랜드 구성요소를 접목한 이미지 마케팅 및 상품화 추진
 - 지역특성을 반영한 브랜드 활용을 통해 지역정체성 확립 및 긍정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상품 출시와 연계한 브랜드마케팅 추진
 - 시·군과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홍보 및 이벤트 추진으로 지역상품의 본원적 가치 향상

〈참고〉 서남권 시·군별 상표권 보유현황

(2015년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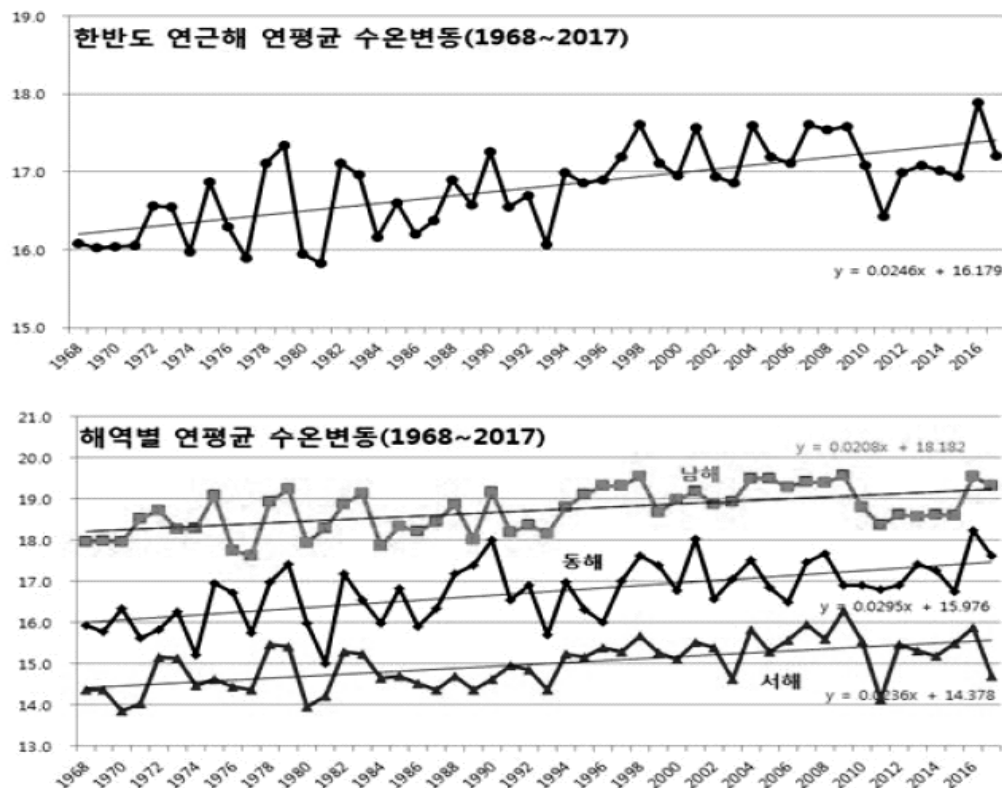
| 구 분 | 상 표 권 | | | 합 계 |
|-------|-------|------|------|------|
| | 업무표장 | 상 표 | 서비스표 | |
| 전라남도 | 17건 | 119건 | 46건 | 182건 |
| 목포시 | 8건 | 9건 | 3건 | 20건 |
| 해남군 | - | 76건 | 22건 | 98건 |
| 영암군 | 4건 | 72건 | 5건 | 81건 |
| 무안군 | - | 83건 | 19건 | 102건 |
| 함평군 | 4건 | 91건 | 12건 | 107건 |
| 영광군 | 4건 | 49건 | 2건 | 55건 |
| 완도군 | 1건 | 77건 | 38건 | 116건 |
| 진도군 | 6건 | 30건 | 8건 | 44건 |
| 신안군 | 9건 | 61건 | 5건 | 75건 |
| 서남권합계 | 36건 | 548건 | 114건 | 698건 |

자료 : 특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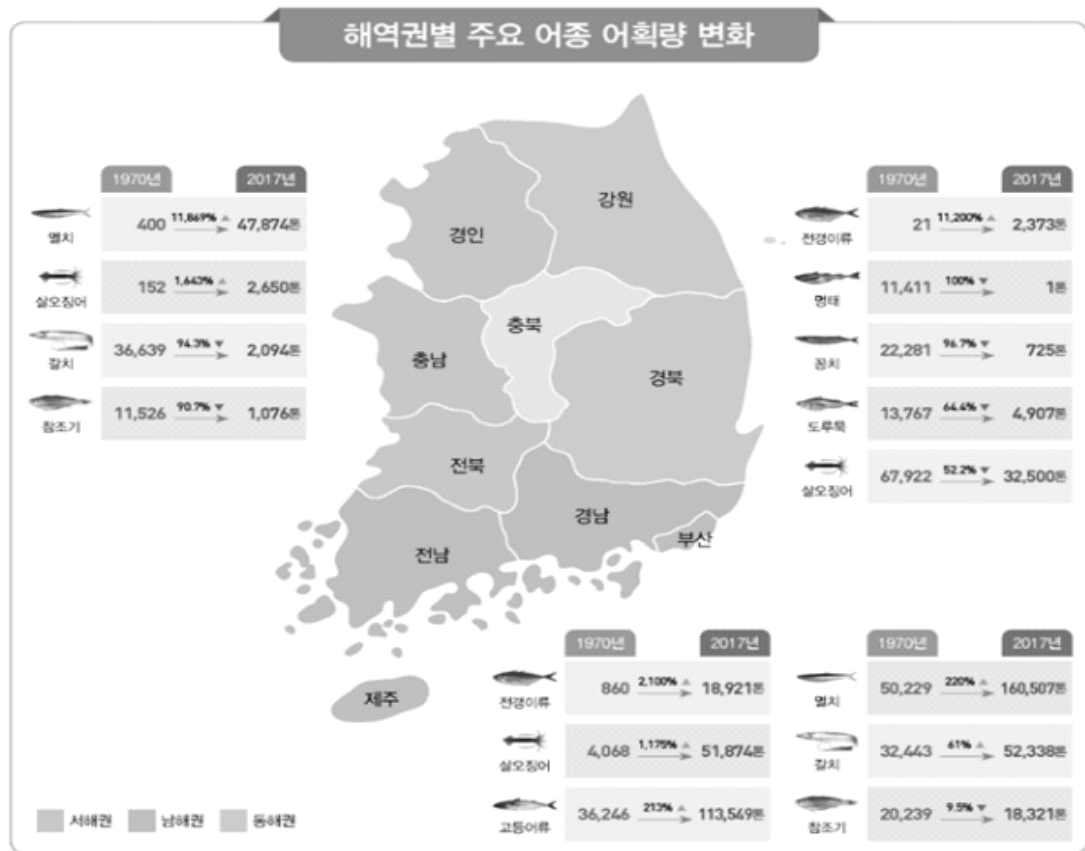
8. 기후변화 대응 Blue Seed Project 공동내용

□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연평균 표층수온은 최근 50년('68~'17)사이 1.23℃ 증가해 전 세계 평균(0.48℃)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수온상승은 주요 어종들의 생리 및 생태 변화로 산란시기와 산란장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 외에도 적조 또는 해파리의 대량 번식, 패독, 유해성 해양생물 출현 및 번식 등 아열대성 수산질병 발생에도 영향
- 때문에 정착성 해양생물의 서식지 이동과 상업적 어종에 해당하는 회유성 어종들의 회유경로도 변동함에 따라 서남권역의 대표 어종인 참조기 등의 어획량은 크게 감소한 반면, 전갱이, 고등어, 멸치 등은 증가함



〈그림 IV-39〉 한반도 주변해역 및 각 해역별 연평균 표층수온 변동 경향 (1968~2017)



〈그림 IV-40〉 해역권별 주요 어종 어획량 변화

- 현재 세계적인 다국적 종자회사의 지배력이 일부 수산물종에만 국한되어 있어, 수산분야에서의 세계 종자시장의 발전 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산 양식산업이 향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바다 산성화에 서남권이 공동 대응하여 글로벌 수산종자 시장 선점 및 미래 식량안보를 위한 전진기지로 도약 필요
- 폭염, 온난화, 극한 강수 현상 등 기후변화에 의한 어족자원, 어장환경 변화에의 선제적 생산성 변동 예측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에 강한 내병성·내환경성新品种 개발로 수산종자산업 활성화

-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산 기자재산업 고도화 및 생산단지 조성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
- 고부가 수산품종 개발공급을 통한 서남권 수산어업인의 안정적 생산 지원 및 수산기자재산업, 식품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유도

□ 주요 사업내용

- 수산종자 복원, 양식 신품종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수산분야 ‘종자산업진흥센터⁵⁾’ 지정 유치
 - 수산종자 R&D 확대를 위한 서남권 공동기금 조성 및 연구개발 사업 시행 및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유치
 - 초기 먹이생물(알테미아 등) 구매자금 지원, 어병 검사 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 및 수산물 재해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보완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 및 수익성 개선
 - 서남권 시·군과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
 - ‘(가칭)서남권 수산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국제 수산종자박람회, ‘국제 수산식품전시회’ 등 적극적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 서남권 수산종자연구 및 수산가공품, 각종 기자재 등에 대한 홍보 마케팅 확대
- 수산자원 보존, 신품종개발·사업화를 위한 ‘수산종자 공동사업단’ 설립 및 운영
 - ‘수산식품 수출단지’와 연계한 육종, 증식, 생산유통, 수출분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산학연 연계 공동사업단 설립

5) 「종자산업법」 제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현재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개소만이 지정되었으나, 농업분야로만 특화되어 있어 수산종자 관련 진흥센터는 부재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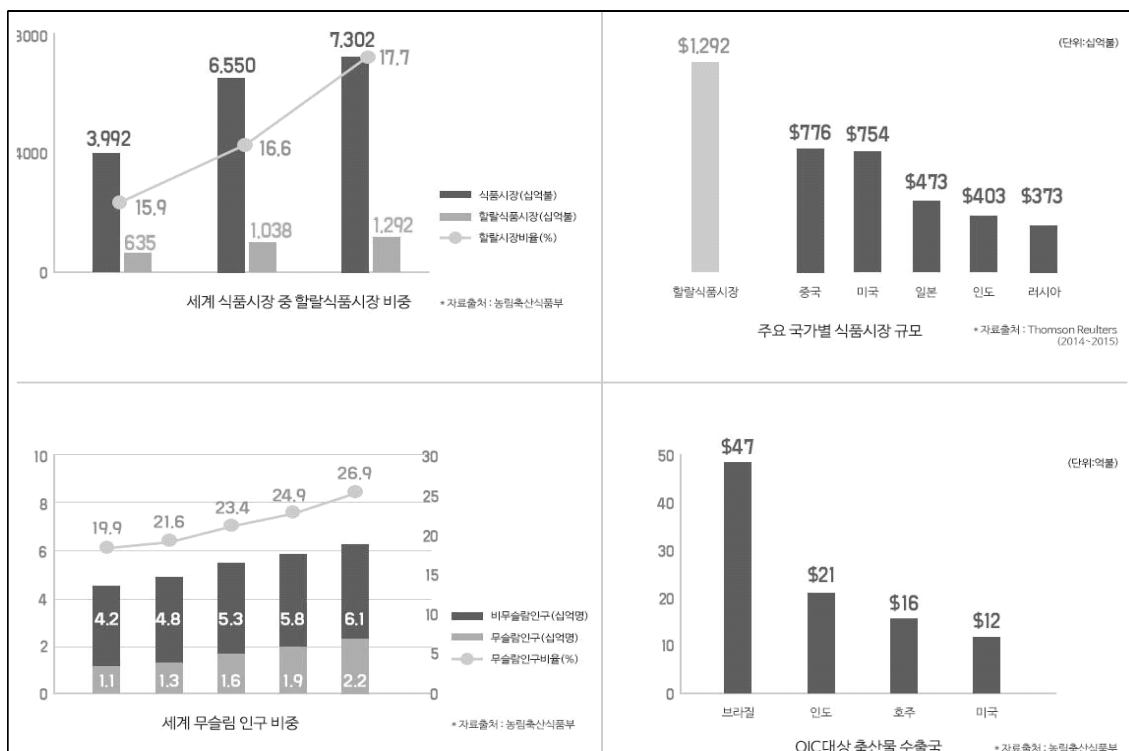
- 수산 기자재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기자재 업체가 집적화된 공동생산단지 조성
 - 어구, 양식구조물, 어업기기, 낚시용품, 육상설비, 사료약품 등 체계적인 수산 기자재 공동 R&D 추진
 - 기자재 공동 생산단지 조성으로 사업다각화, 특허, 공동 해외진출 등 패키지와 추진
- 서남권 공동 수산 양식 분야 해외진출
 - 고도화된 양식 기술 및 기자재 등을 통해 동남아, 남미 등지의 해외 수산양식 기지화와 세계적 수산양식 기업체 육성을 위한 서남권 공동 해외진출 추진 전략 수립

9. **할랄식품 생산·수출 글로벌 거점화 추진**

□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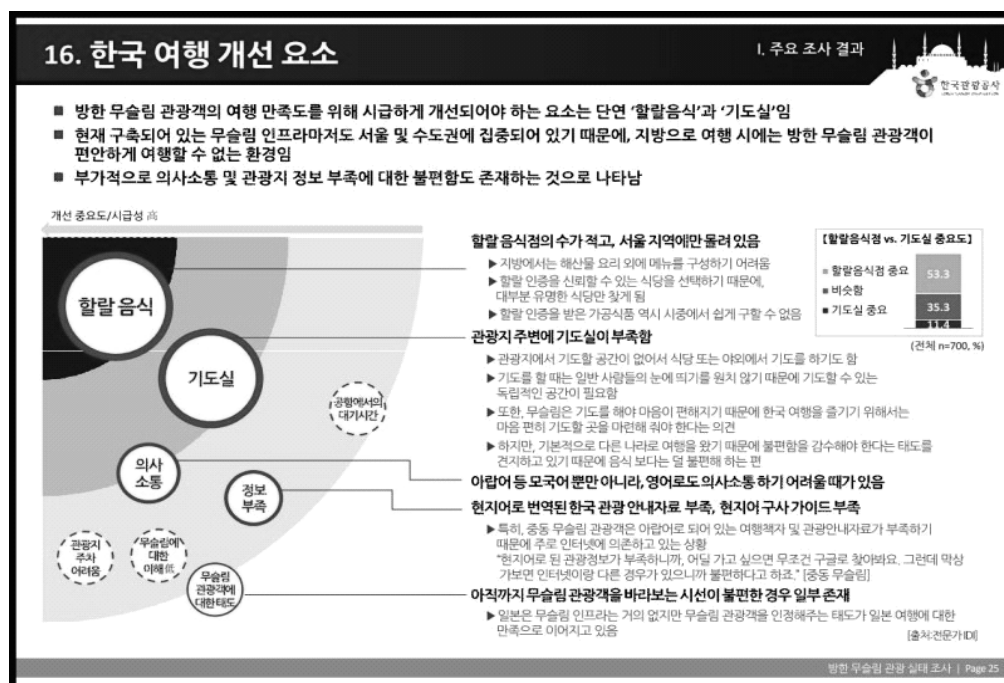
- 할랄(HALAL)은 생활전반에 걸쳐 이슬람법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음식뿐 아니라 할랄 인증을 받은 원료로 한 의약품, 화장품 등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임
- 할랄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할랄식품은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건강함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최근의 트렌드와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동남아 이슬람 국가 뿐 아니라 중동, 미국, 유럽, 호주 등의 비무슬림까지 확대되고 있음
- 무슬림 인구는 2014년 기준 17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19억 명(24.9%), 2030년에는 22억명(26.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할랄식품의 시장 규모 역시 2014년 1조2920억달러(세계 식품시장의 17.7%)에서 2019년에는 2조537억달러(21.2%)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⁶⁾

- 최근 정부도 할랄시장 증가에 따라 할랄인증 획득비용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할랄인증의 중요성을 상기시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12월 31일 제품의 할랄인증 표시에 대한 근거 법령을 개정해 할랄인증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해서 국내에서의 표시 및 광고를 허용하는 등 할랄인증을 받은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있음
- 또한 기업의 할랄인증 비용 지원규모를 2013년 1억 1700만원에서 2016년 20억원으로 대폭 증가시켜 할랄인증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국내의 할랄인증 식품은 제일제당 등을 시작으로 9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2015년 기준 110여개 기업 300여개 품목 인증(*2015년 신안 비금도 주 원염전 천일염 인증 완료)



6) 한국할랄인증원(<http://www.koreahalal.kr/m/sub/a2.asp>)

- 최근에는 ‘포스트 유커’라 불리는 무슬림 관광객과 장기체류 거주민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소비할 수 있는 ‘할랄식품’ 생산 거점 및 허브로 도약으로 할랄식품시장 진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2016년 기준 방한 무슬림 관광객은 98만6천명에 달하나, 전국적으로 할랄음식점 수는 단 14개에 불과할 뿐 아니라, 서울 지역에만 주로 집중되어 있어 한국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개선 요소로 꼽힘⁷⁾



- 따라서 서남권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수산물의 할랄시장 진출로 수산 식품분야 글로벌 거점 도약 전략 수립 필요
- 서남권 9개 시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고품질 수산물에 대한 할랄식품 인증 공동 추진으로 수출경쟁력 제고 및 시장확대
- 글로벌 한류 확대로 K-food 인지도 및 수요 증대에 대응하며, 남도 전역의 한식문화를 서남권 생산 수산식품 진출 확대 전략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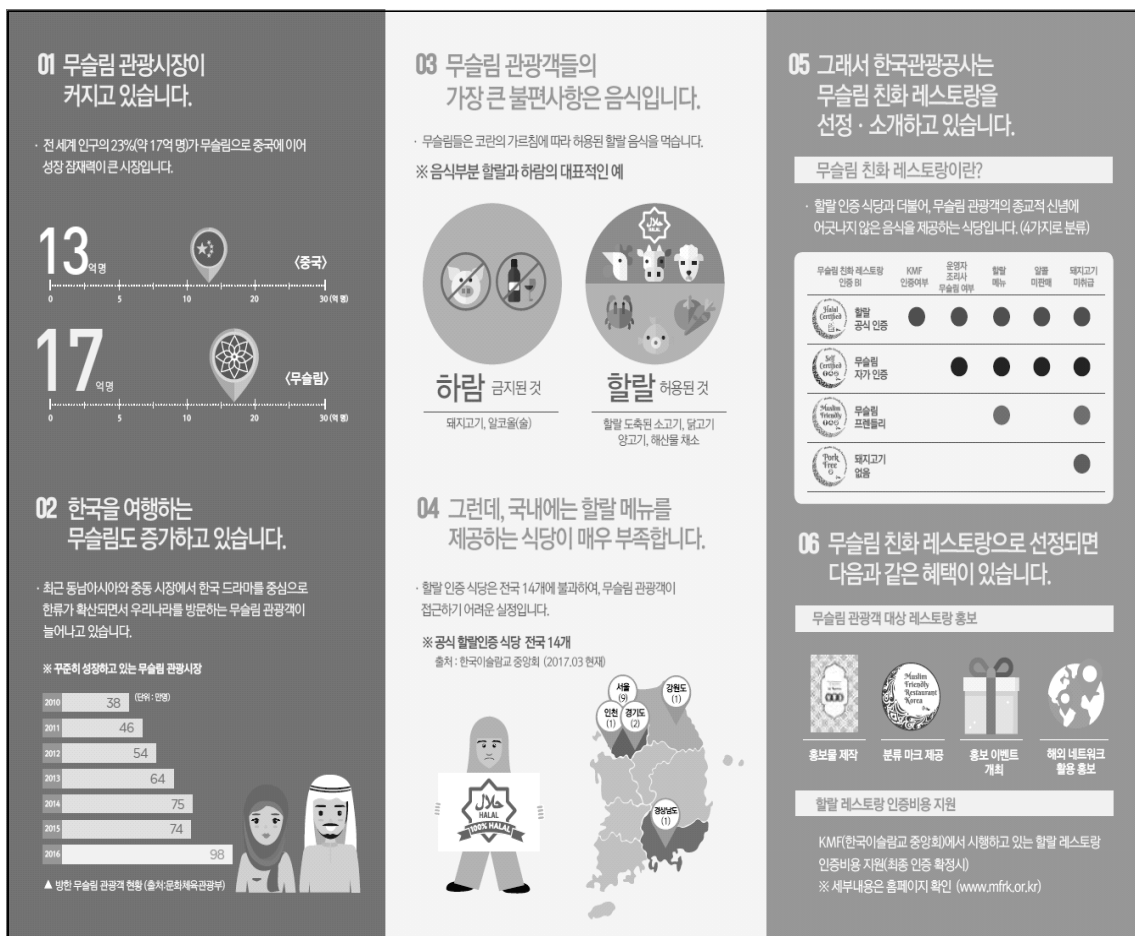
7) 한국관광공사(2017), ‘2016년 방한 무슬림 관광 실태조사’, p.25.

- 특히, 지난 4월 12일 ‘맛의 도시’ 슬로건을 선포한 목포 뿐 아니라 남도 음식과 식재료들을 브랜드화 및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임

□ 주요 사업내용

- 국내·외 할랄 전문기관과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확대 및 할랄인증 지원
 - 한국할랄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교류·협력 증대를 통해 국내외 관련 동향정보 수집
 - 주요국별 할랄시장 동향, 인증제도 등 관련 정보를 할랄인증 희망 기업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센터 운영
-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홍보 전략 수립 및 추진
 - 판로 개척을 위한 국제식품박람회 등에 서남권 9개 시군 공동 참가, 공동 부스 운영
 - UAE 국비환자 체류병원(세브란스, 카톨릭 성모, 서울대 등 전국 12개 병원)의 할랄 환자식 원재료 공급을 위한 MOU체결
 - 서남권 공동 ‘할랄식품박람회’ 개최로 국내외 인지도 확대
- 목표시장 맞춤형 상품개발 및 진출
 - 식품에서 의약품, 화장품 및 첨가제, 중간재, 조미료 시장뿐 아니라, 해산물이나 식물성 원료 추출물 대체시장 확대에 따라 서남권 수산자원을 활용한 식품개발 등 할랄인증 R&D 및 사업 다각화 추진
- 수출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공동지원 시스템 구축
 - ‘(가칭)서남권 중소기업 통상진흥계획’ 수립을 통해 수출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등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가이드 마련으로 할랄식품 제조업을 비롯한 해운, 물류, 유통업체 동반성장 유도

- 서남권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인증 확대 전략 수립으로 무슬림 관광객 적극 유치
- 한국관광공사의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선정을 위해 지역 식당 대상 인증 절차 안내 및 인증 비용 지원
- 목포시의 맛의 도시 후속사업인 '으뜸맛집' 선정에 무슬림친화 인증 레스토랑을 포함하고, 이를 확대해 무슬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슬림 먹방 투어'를 운영하는 등 무슬림 관광시장 선점기회로 활용



(2) 바다와 공감하는 즐거움

1. 서남해안 갯벌세계화 사업 추진

□ 필요성 및 목적

-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서해안갯벌을 중심으로 갯벌의 세계화 사업 추진 필요
 - 국내 갯벌면적의 42%(1,044.4km²/2,487.2km²)를 차지하는 전남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약 7조원(66.8억원/km²)으로 평가
- 지속 가능한 어촌과 어업, 섬 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갯벌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필요
 - 갯벌어업 등 섬과 어촌의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브랜드가치 제고 및 기후 변화에 따른 갯벌환경 취약성 증가에 대비

□ 주요 사업내용

- 서남권 갯벌의 보전 및 가치 제고를 위한 서남권 갯벌 세계화 사업
 - 갯벌세계유산 등재 및 후보지 확대(현재, 신안·순천벌교 습지보호지역 갯벌만 해당, 향후 진도·무안 습지보호지역까지 확대)
 - 전통어업유산 중 세계농업유산 지정 추진(대상 :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신안 갯벌천일염업 등)
 - 서남해 갯벌 통합관리를 위한 기구 설립(ex. 갯벌세계유산센터, 세계갯벌공원관리공단, 국립갯벌박물관 등)
- 갯벌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복원사업 추진 및 갯벌활용 국제행사 개최 등 경제효과 창출 추진

- 갯벌 관리·복원 관련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생태교육장 및 갯벌생태관광 진흥구역 지정 추진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18.12.)
- 서남해 해양보호구역 벨트추진(현재, 신안군 전체 갯벌, 무안 일부 갯벌, 진도 일부 갯벌 보호구역 지정)
- 갯벌특성별 융복합산업화 추진 : 해양생태자원 인큐베이터 운영(어패류 증양식장 포함) 및 귀어·귀촌인 대상 갯벌어업(전통어업) 체험교육 등을 위한 갯벌학교 운영

2. 다도해 섬 기반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 필요성 및 목적

- 신해양시대 도래에 따른 섬 중심 지역개발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섬 지역은 자원, 식량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자, 해양관광산업의 거점으로서 인식 확대
- 전국 최다 섬 보유 지역으로 우리나라 섬 정책의 이니셔티브 구축 필요
 - 섬을 매개로 한 관광, 레저, 오락, 방송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섬과 해양 콘텐츠 요구 증가
- 섬의 난(難)개발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와 문화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전략 마련 절실
 - 서남권 주요 거점 섬 재생전략과 함께 작은 섬 활성화 정책 병행추진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서남해 통합도서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 협의체 등 관리지원시스템 구축
 - 섬 관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남해 섬관광지원센터 설치
 - 정부출연 국립섬발전진흥원(섬연구진흥원) 및 광역·기초단위의 섬지원센터 설립 제도화
- 섬과 갯벌의 생태와 문화자원을 아우르는 ‘섬 해양 국가정원’ 등 특성화 사업 추진
 - 국가계획 수준의 5년 단위 섬·해양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으로 섬 생태 및 보유 역사·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
 - 관광, 휴양, 치유 등 보유자원과 연계한 테마가 있는 섬과 해안권 조성 추진
ex. Artpia Retreat(신안임자), Treasure Islands(신안다이아몬드제도), Solux City(신안자은), Aquapolis(영광염산), 아시아 어울누리(무안운남) 등
- 서남권 섬과 해안선 및 갯벌 등 해양 생태자원과 해양 문화자원을 결합한 웰빙형·학습형·체험형 고품격 테마섬 조성 추진
 - 섬, 해양경관 보전 및 개발을 통해 섬의 역사와 문화 등 스토리 발굴 및 이를 활용한 콘텐츠화 추진 등

3. 서남해안 국가지질공원 인증(Geo-Tourism)

□ 필요성 및 목적

- 전남 서남해안에는 공룡화석지와 해식애, 갯벌 등 다양한 해안 침식 및 퇴적지형이 발달하여 지질공원 인증에 필요한 지질명소가 산재되어 있음
- 전남 서남해안 일원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하여 지질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을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

- 천연 지형·지질자원을 활용한 탐방·교육 기반시설 조성



〈그림 IV-41〉 전남의 주요 지질명소 분포도

4. **충무공 호국관광벨트 서남권 연계·활성화**

□ 필요성 및 목적

-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 및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대선공약인 ‘이순신 호국관광벨트사업’ 중 선도사업을 민선7기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
- 임진왜란·정유재란 시 이순신의 호국정신과 지역 의병장, 민초들의 호국 활약상 현장체험으로 호국 역사의식 고취
 - 서남권은 당시 조선 수군의 주요 활동지역으로 이순신 관련 유적, 사료 등 문화역사자원 풍부
 - 체계적인 복원·정비를 통한 역사교육·체험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 기초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기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연계상품 개발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추진상황
 - 이순신 문화자원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 '15. 6.~ '16. 4.
 - 사료, 인물, 민간 전승담, 유적조사, 복원·정비, 선양·활용방안 등
 - 대통령 공약 반영 위한 전남지역 공약사업으로 건의 : '17. 2.~ 5.
 - 서남해안 이순신 호국거점을 중심으로 호국·관광벨트 구축
 - 관광분야 공약사업 이행 관련 문체부 방문설명: '17. 6.~10.
 - 전남도 : 국비사업으로 지원, 문체부 : 균특회계(지역자율계정) 사업으로 추진
 -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 계획 수립 : '17. 7.~12.
 - 도(기본계획 수립), 시·군(자체사업 용역 중, 목포·고흥·광양·보성)

- BH 정무수석실 방문 ('18. 2. 22.), 기재부 방문 ('18. 5. 9.) 건의
- 충무공 관광자원화 사업(7개 사업)
 - 사업기간 : 2019~2023년
 - 사업비 : 726억원(국비 500, 도비 68, 시군비 158)
 - 사업내용 : (목포) 고하도 역사유적 공원 조성, 충무공 창작 콘텐츠 개발, (장흥) 호국영웅 역사테마파크 조성, (해남) 울돌목 체험형관광명소화 조성,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고원 조성, (진도) 명량대첩비 관광지 활성화, (신안) 장산도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 충무공 콘텐츠 활용·선양 사업(4개 사업)
 - 국립 이순신 충의센터 구축, 이순신 테마극 공연, 호국벨트 콘텐츠 개발, 전남 이순신 포털 구축
 - 사업기간 : 2019~2022년
 - 위 치 : 목포, 진도, 해남, 장흥 일원
 - 사업비 : 610억원(국비 305, 도비 305)
- 충무공 문화유산 복원·정비(5개 사업)
 - (장흥) 회령진성 복원 정비, 회령포 해군기지 복원, (강진) 병영성 복원, (완도) 가리포진 복원, 해양 영웅전시관, (영광) 법성진성 복원 정비
 - 사업기간 : 2019년~2023년
 - 위 치 : 장흥, 강진, 완도, 영광 등 서남권 일원
 - 사업비 : 438억원(국비 219, 도비 109.5, 시군비 109.5)
- 지자체 연계 호국관광벨트 체험프로그램(상품) 개발·확대 운영
 - 장흥 강진만~회진면(회령포)~마량~고금도~완도~해남 오층사~명량대첩 기념비~우수영마을~우수영관광지~진도울돌목~녹진전망대~벽파진~용장산성~정유재란 때무덤~화원반도~목포 고하도~목포
 - 사업기간 : 2019년~2022년
 - 사업비 : 100억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그림 IV-42〉 충무공 호국관광벨트도

5. 국립 항일구국역사관 건립

□ 필요성 및 목적

-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 미래 천년을 지탱해 갈 민족정신 함양을 위해 서남권 지역의 항일운동과 관련한 인물, 장소, 사료, 묘비, 기념지 등의 재조명 및 연계를 통해 호국성지로서 서남권의 위상 제고 필요
- 동학운동부터 3·1운동에 이르기까지 항일 구국운동의 핵심거점이었음에도 관련 유적, 자료 및 기념관 등 부재
- 격동과 시련의 역사로 정의되는 근·현대사에서 호국, 구국을 위한 지역의 발자취를 이해하고 추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저평가된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역사 속에서 서남권의 역할과 의미의 재조명 절실

□ 주요 사업내용

- 의로운 역사와 시대정신을 이끌어 온 의향 전남의 애국관 ‘항일구국역사관’ 건립
 - 한말 의병의 발원지이자 독립운동의 성지였던 전남의 구국역사와 관련한 유적, 자료, 인물 등을 재조명하고 집대성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한 역사교육 및 민족정신 계승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
 - * ‘청송 ‘항일의병기념공원’ 내, 전라도 의병유공 선열 738명 위패 봉안 (단, 애국장, 건국포장 등 훈장·표창 대상자에 한정)
 - 목포(남교동/박상열 외), 함평(신광/김철), 영암(구림/조극환 외), 무안(조산 등/안동선 외), 완도(소안도/송내호 외), 신안(장산/윤호영 외) 등 항일운동 관련 거점 및 애국지사와 함께 수의위친계, 신간회, 배달청년회 등 구국조직 재조명
 - 현재 타당성 조사 추진 중에 있는 전남도 추진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유치 추진(*해남, 함평, 영암 등 유치 추진 중)
- 근현대사 속에서 지역의 항일·구국운동 거점 및 일제문화를 연계한 다크투어 탐방루트 조성
 - 근대역사문화특구(목포)를 중심으로 지역에 산재한 일제의 잔재 및 구국역사 자원(거점/스토리) 등을 연계하여, 아픈 역사를 토대로 미래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신념과 교훈을 전달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성지화 추진

6. 사후 면세점 및 브랜드 매장 운영

□ 필요성 및 목적

- 전남도 ‘관광객 6천만시대’에 대비한 국외관광객 대상 면세점 및 국내외 관광객 대상 서남권 대표상품 브랜드 매장 조성
- 관광객의 지역유인 동기인 쇼핑시설 확보로 지역소득 향상 및 연계 관광수요 창출 (*광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19.5.14.)

☞ 총 26개 : 서울13/부산 3/제주 3/인천·대구·울산·경기·강원·충북·경남 각 1개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목포, 무안 등
- 기 간 : 2019~2021 (*단계별 매장 확장)
- 사업내용
 - 지역 관광거점의 사후 면세점(Tax Free) 사업화 지원 및 무안국제공항 사전 면세점(Duty Free) 규모·다양성 확대 (*국제크루즈 기항지 포함)
 - 서남권(전남) 대표상품 육성 및 명품화를 위한 브랜드위원회 구성으로 브랜드 상품 개발, 판매, 사후관리 등 통합마케팅체계 구축
 - 관광객 추이에 따른 ‘디자이너스 클럽’ 혹은 교외형 명품브랜드 쇼핑센터(프리미엄 아울렛) 지역내 유치 추진

7. 서남권 성지순례길 정비 및 활성화

□ 필요성 및 목적

- 서남권 보유 종교자원의 연계를 통한 신앙 중심의 체험, 명상 등 힐링공간 조성 등 종교관광성지 조성으로 지역방문 관광수요 창출
- 목포~몽탄간 도보 성지순례길 재정비를 통한 연결성 확보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쉼거리,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관광활성화 유도
- 천주교광주대교구에서 운영 중인 성지순례길(8개 루트) 중 하나인 목포~몽탄간 루트의 각 거점별 정비 및 순례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시설 정비 추진

☞ 산티아고 순례길 : '70년 68명 → '95년 2만 → '07년 12.5만 → '17년 30만명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목포, 무안 등
- 기 간 : 2019~2021
- 사업내용
 - 천주교 성지 중심 종교문화자원 복원 추진(광주대교구 공동추진)
 - 목포산정동성당(광주대교구 최초 본당, 1897)을 기점으로 무안소재 이내수 신부 묘소까지 연결
 - ※ 산정동성당 → 연동시장길 → 중앙로 2호광장 → 석현삼거리 → 일로,전남도청 방면 우측 도로 → 임성로 전남도청 방면 → 삼일로 → 일로성당 → 일로읍사무소 → 일로읍 용산리 → 명산삼거리 → 정수장길 → 몽탄성당 ; 총 27.8km
 - 여정인증서, 자격증명서 등 도입 및 지역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종교테마로드 정비 및 연결구간별 쉼터, 가이드, 숙박지원시설 확충
 - 영광 원불교 최초도래지 등 서남권 소재 종교문화 유적지 연계 추진

(3) 바다로 잇는 풍요로움

1. 동북아 해양교류문화 거점(국립해양박물관) 조성

□ 필요성 및 목적

- 서남권에 소재한 해양유물(수중문화재 등)을 통해 해양사 및 생활사 등 지역문화적 의미와 해양교류 문명에 대한 가치 규명 및 확산 필요
- 장소성과 역사성에 기반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통해 동북아 해양교류문화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 연구·조사 중심지이자 중국·일본 등 동북아 관광객 유치에 위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
- 그간 290여건의 수중문화재 신고로 고선박 14척, 10만여점 유물 발굴에도 전문적인 보관·관리 수장고 및 특화박물관 전무

〈표 IV-16〉 서남권 수중문화재 보관현황

| 발굴명 | 보관처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 |
|---------------|------------------------------------|---------------|--------|
| | | 선박 | 유물 |
| 신안 방축리 신안선 발굴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 | ○(자단목) |
| 완도 어두리 수중발굴 | 국립광주박물관 | ○ | - |
| 진도 벽파리 수중발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 | ○ |
| 무안 도리포 수중발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신고유물) /국립광주박물관(발굴유물) | - | ○ |
| 목포 달리도선 수중발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 | |
| 신안 안좌도선 수중발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 | ○ |
| 진도 오류리 수중발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 | ○ |

□ 주요 사업내용

- 수중문화재(해저유물) 상설 보관·전시를 위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 신안선 등 해저·해양유물 중심 전문 박물관 건립을 통해 해양문화 체험·교육·연구시설로의 활용 및 한·중·일 교역과 문화교류 관광자원화 추진
 - * 신안선 유물 중 도자기 17,000여점 국립광주박물관 이관('19.2) ⇒ 발굴 지역인 서남권으로 이관 필요
 - 수중문화재 뿐만 아니라 조선기술, 항해술, 해양전투, 해양교류 및 해양사, 해양문학(소설, 시, 그림 등) 등 해양관련분야 교육 및 관광공간으로 확장
- 해양문화재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해양교류문화 거점으로 육성
 -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등 전문 특화기술과 해양문화유산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중·일 등 동북아 교류문화거점 및 연구중심지로 기능 확대



〈참고〉 국립광주박물관 전시 ‘신안해저유물’

2.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건립

□ 필요성 및 목적

- 100세 시대, 노인인구 700만 시대에 대응한 서남권 소재 종합 노인 복지서비스 시설 건립 필요 (* 2022년 ‘제3차 UN 고령화총회’ 유치 연계)
- 건강복지수요 대응 및 노노(老老)케어⁸⁾를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령친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 먹거리산업 활성화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서남권 일원(*서남권 특별행정협의체 선정)
- 기 간 : 2019~2021
- 사업내용
 - 국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으로 사업부지 선정 및 예산요구 진행
 - 고령층 수요에 부합한 복지관, 문화관, 체육시설 등 건립계획 마련
 - 서남권 노인건강타운과 연계한 재활기기산업, 고령친화식품산업 등 연관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 2022년 ‘제3차 UN 고령화총회’ 등 관련 국제행사 유치 추진

8) 노노케어사업 : 미국, 독일 등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사업으로, 건강한 노인이 병이나 다른 사유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 시니어층의 주력 일자리사업으로 부상

3. 공공기관·대기업 교육연수시설 집적화

□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내국인 카지노 설립 등으로 논쟁을 빚고 있는 오시아노관광단지 및 저렴한 지가의 유희용지를 활용한 성장동인 마련 필요
- 서남권의 자연여건 등 천혜의 자원을 토대로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연수시설, 휴양시설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해남·진도·신안 등
- 기 간 : 2020~2024
- 사업내용
 - 교육·연수·휴양 기능 집적지 선정 및 공동 투자유치를 위해 서남권 특별행정협의체 중심의 통합추진단 구성 및 운영
 - 지역내외 공공기관 우선으로 유치 프로그램 운용 및 인센티브 등 제공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시·군 이전기관 대상 유치 추진
 - 지역내 관광자원 및 관련시설(도/시·군 보유)과 연계한 공동 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4. '77-노을빛의路' 명품 해안도로 조성

□ 필요성 및 목적

- 서남권 해안선을 따라 연결되는 국도 77호선(해안일주도로) 중심으로 섬, 갯벌 등 해양자원과 지형 및 경관자원을 활용한 명품 해안도로 조성
- 압해~화원 간 연결사업의 예타 면제 및 칠산대교 개통(19.12.)에 따라 지역연계형 관광도로를 활용한 관광루트화 추진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영광~무안~신안~해남~진도~완도
- 기 간 : 2020~20 24
- 사업내용
 - 서남권 연결도로의 브랜드화 추진 및 대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77을 활용한 숫자마케팅 접목 등)
 - 체류형 수요 창출을 위한 거점별 자원간 방문루트 연계 및 체류프로그램·시설 확충
 - 지역의 역사·문화를 상징하는 메모리얼 아치 등 명품화를 위한 구간별 조경 시설 확충 및 조망공간, 주차공간, 휴게공간 등 조성

5. 남해안철도 전통 역사(驛舍) 조성

□ 필요성 및 목적

-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남해안 철도(보성~임성)의 개통시기에 맞춰, 지역 관광수요 창출 및 부가가치 극대화 필요
- 지역특성을 반영한 테마형 역사 조성을 통해 역사를 활용한 미디어 수요(ex. 정동진역) 견인 등 지역명물로 포지셔닝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무안(임성)~영암~해남~(장흥)
- 기 간 : 2019~2020
- 사업내용
 -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테마형 전통역사 조성계획’ 수립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통역사 조성 추진
 - 역사와 연계한 철도문화 체험공간 조성 및 인접한 관광·문화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 5대 벨트 관광열차(남해해양열차 S트레인) 노선 연장 추진 : 향후 서해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관광철도루트 신설 추진

6.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사업 추진

□ 필요성 및 목적

- 해양쓰레기의 조사·수거·처리 등 통합적 관리정책 부재로 해양생태계 오염은 물론, 어업 피해 및 관광경관 훼손 등 지역경제 부작용 양산
- 해양쓰레기 중 비중이 높은 플라스틱(57%), 스티로폼(14%)을 활용한 재활용 사업 추진으로 해양환경 개선 및 신규 수익모델 발굴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9개 시·군 전체(전남 전역으로 확대)
- 기 간 : 2020~
- 사업내용
 - 해양쓰레기 통합관리체계 구축 : 해양쓰레기 정기조사 및 관련 DB 구축
 - 국고예산지원방식 개선 지속 건의 : 해양쓰레기 수거지원사업 국비보조율 상향 (30→50%이상) 및 균특회계가 아닌 부처사업 예산 투입 필요
 - 재활용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집적단지 구축·운영
 - 재활용기술 - 오일화, 가스화, 재생연료 제조, 업사이클 제품생산 등
 - 해양쓰레기 감축정책 추진과 함께 각 국가별 재활용사업 추진 - 유럽위원회 (EUfir 시스템) , 미국 (에너지생산), 일본(보일러 원료), 인도네시아(아스팔트)

7. 서남권 다문화어울림센터 조성

□ 필요성 및 목적

- 아시아권 중심 다문화가구 증가(전남의 39.5%)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질적인 문화의 화합 및 공존하는 생활문화 지원거점 마련
- 다문화 가족뿐 아니라 서남권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통해 지역(민)과 의 공감과 참여를 통한 공동체적 가치공유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9개 시·군 전체(목포·해남·영암 중심 추진 후, 확대)
- 기 간 : 2020~2022
- 사업내용
 - 언어장벽과 경제적 어려움을 지닌 다문화구성원 대상 교육, 의료, 문화복지 등 다문화 생활지원 을 위한 거점 조성 및 지원서비스 체계화
 - 다양한 문화(ex. 음식, 복식 등) 체험이 가능한 다문화축제 등 상호 문화교류 프로그램 발굴 및 이벤트 개최
 - 아시아권 외국관광객 증가에 대응한 전문교육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과 함께 국가별 연계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추진

3.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1.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1) 동서양의 해후, 한-터키 교류협력사업 추진

□ 필요성 및 목적

- 미국·중국·일본 중심의 대외 교류·협력에서 나아가 다양한 유라시아 지역과의 교류·협력 다각화 필요성 제기
 - 트럼프정부의 미국우선주의, 중국의 성장둔화와 사드배치 이후 통상 마찰 등 대외 교류·협력 여건 변화
 -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통해 대외경제의 폭을 확대·다변화
 - 동북아·유라시아 지역의 거대시장과 풍부한 자원 등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
- 전남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미국·중국·일본 등과의 교류·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다각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
 - 터키는 2017년 G20 국가 중 최대 경제성장률(7.4%)을 달성하면서 가장 유망한 신흥시장으로 주목
 -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고 중동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8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잠재력 또한 큰 지역
 - 또한, 한국과 터키는 언어 및 삶의 방식을 비롯한 여러 관습적 측면에서의 문화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6.25 한국전쟁 참전과 같은 현대사적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
 - 국내 자치단체들은 터키 각 지역과 우호교류협정 체결
 - 서울, 경기도, 부산은 이스탄불과 김해시는 초립시 등과 우호교류협력 또는 자매결연 협정 체결

- 다만, 미국·중국·일본에 비해 정보, 이해가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적 교류를 우선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 추진방안 모색 필요
 - 한류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우호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양 지역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문화, 학문, 예술 등 문화적 교류를 우선 추진하고 이를 확장하여 경제적 교류로 확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 목포 해상케이블카 운영, 천사대교 개통 등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필요
 - 기 조성된 목포 내 박물관·기념관 네트워크(자연사박물관, 생활도자박물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근대역사관 등)의 콘텐츠 한계 극복을 위한 추가 콘텐츠 발굴
 - 음식특화거리 조성 and 음식관광코스 개발 등 식도락 관광과 함께 볼거리·즐

□ 추진계획

- 터키 문화체험박물관 조성
 - 원도심 내 유희공간, 삼학도공원부지, 고하도케이블카 종착지 등을 대상으로 터키 문화체험박물관 조성 대상지 선정 후 전시관 및 체험시설 조성
 - 목포시립국악원 등 목포시 문화예술단체 연계 한·터키 문화교류전 추진
 - 남도음식·터키 음식문화 교류·체험전 개최, 생활문화 체험전 개최
- 수산 양식, 가공·유통분야 협력네트워크 구축
 - 수산식품수출단지, 수산식품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한·터키 수산 가공·유통 분야 협력네트워크 구축
 - 목포대·목포해양대와 이스탄불대 간 해양·수산분야 학술교류 추진
 -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기업(상품)의 터키 진출 지원

- 자치단체간 우호교류협정 체결
 - 목포시와 규모·환경이 비슷한 자치단체(예: 이스탄불 실리브리市 등)와의 우호교류협정 체결 등 추진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터키 한인회 등을 연계한 교류협력채널 형성 및 박물관 전시품 확보
 - 소규모 전시행사부터 시작하여 단계별로 기획전시, 문화체험 등으로 확대
 - 터키 한인회 및 주한국 터키 대사관 등과 터키문화 체험관 프로그램 및 운영방식 논의, 프로그램 내실화
 - 목포시 문화예술단체의 터키 공연 추진 및 정기 문화예술 정기 교류전 추진
- 미국·중국·일본 외 대외교류협력 다각화를 통한 지역 기업 해외진출 지원기반 마련
- 새로운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내 관광 활성화



2.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

1)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

- 대상위치 : 해남군 화원면 주광·화봉리 일원 / 10,483천㎡
- 사업비 : 379억원(국비 19 / 한국관광공사 360)
- 사업주체 : 한국관광공사 등

□ 주요 사업내용

-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120실 규모 관광숙박시설)
- 화원(목포구 증대~양화마을) 지방도 확포장
-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 인프라 확충
- 공공기관·대기업 대상 교육·연수·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 추진방안

-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추진
 - 낭만캠핑 페스티벌 추진, 야간등대 체험, 로컬푸드매장, 음악축제 개최 등
- 세계 잼버리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위치도(조감도)



2)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 대상위치 :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금호리 일원 / 634만평
- 사업비 : 1,438,302백만원(민자)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해남군 등

□ 주요 사업내용

- 골프장(72H) 조성
- 재생에너지산업단지(태양광발전 98MW, 에너지 저장장치 255MWh) 조성
- 첨단농업단지(126ha 스마트팜클러스터)조성

□ 추진방안

- 국토부 2단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 노력
- 신재생에너지단지(태양광발전시설) 조성 및 상업운전개시('19. 12.)
- 주민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원
 - 2025년 준공 후 정주 인구 3만 6천명 목표

위치도(조감도)



3) 화원 목포구등대 관광지화

- 대상위치 : 화원면 매월리(목포구등대) 일원
- 사업비 : 24,520백만원(국비 4,000, 도비 16,500, 군비 4,020)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해남군

☐ 주요 사업내용

- 세계 등대모형 전시
- 일몰(sunset) 경관 펜션단지 조성
- 해안일주도로 확·포장
- 화원관광단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방안

- 화원 목포구등대 주변 해안도로(지방도 803호선) 개설계획 등 관광 인프라 기반시설 확충
-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위치도(조감도)



3.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1) 삼포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

- 대상위치 : 삼호읍 삼포리 일원(F1서킷주변) / 990천㎡
- 사업비 : 4,730억원(국비 2,623 / 도비 1,032 / 민자 1,075)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자동차부품연구원

☐ 주요 사업내용

- 미래형 고부가가치 자동차기술개발('19~'23 / 사업비 3,150억원)
 - 부품개발 22과제, 플랫폼 개발 3종 8개 모델, 평가 기반구축 등
- 튜닝부품 실증 인프라 구축('21~'24 / 사업비 1,580억원)
 - 시험 주행로 등 실증 인프라 구축, 실증전문 인력양성 등

☐ 추진방안

- F1 서킷 일대를 고성능 고부가가치 자동차 생산 및 튜닝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내 튜닝업체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조기 육성
 - 사업완료(2024년)후 기업유치 100개사, 신규 일자리창출 17,500명 기대

위치도(조감도)



2) 육·해·공 모터산업 거점지대 조성

- 대상위치 : 삼호읍(나불리), 미암면 일원(F1서킷주변)
- 사업비 : 500억원(국비 250 / 도비 50 / 군비 50 / 민자 150)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영암군

□ 주요 사업내용

- 삼포지구 모터스포츠 관련산업 육성과 연계, 영산호 및 영암호를 중심으로 모터기술이 기반이 되는 육·해·공 운송장비 기술개발 및 완성체 제조기반 마련
- 모터산업 육성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험인증 관련체계 구축
 - F1서킷 및 수변자원을 활용한 모터기술 시험지대 운영
 - 기술 실용화를 위한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등

□ 추진방안

- F1 서킷 일대를 고성능 고부가가치 자동차 생산 및 튜닝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내 튜닝업체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조기 육성
 - 2024년 이후 기업유치 100개사, 신규 일자리창출 17,500명 목표

위치도(조감도)



3)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 대상위치 : 시종면 일원
- 사업비 : 6,911억원(국비 1,635 / 도비 634 / 시·군비 612 / 민자 4,030)
- 사업주체 : 전라남도, 영암군 중심 8개 시·군

□ 주요 사업내용

- 마한 학술연구, 마한문화 특별전 개최 등(기반조성기 10개사업)
- 마한 역사테마파크·역사테마길 조성, 연구총서 발간 등(확장기 3개사업)
- 세계유산 등재,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마한사’ 반영 등(성숙기 2개사업)
 - ‘환황해권 역사·문화 교류협력사업’과 병행 추진

□ 추진방안

- 전남도 차원의 마한문화권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추진 근거 마련
 - 지역의 독자적 고대문화인 마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발굴·복원으로 문화적 자긍심 고취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위치도(조감도)



4.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무안

1)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

- 대상위치 : 무안국제공항 및 배후지
- 사업규모 : 13억원(군비)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무안군

□ 주요 사업내용

- 광주공항 국내선 통합 및 항공노선 확충
 - 활주로 연장(2,800m→3,200m), 국제 정기노선 확보 5→9
 - 수화물 처리시설 확대(컨베이어벨트 1기→2기), 통합관사 신축
- 무안국제공항 취항 항공운송사업자 지원
 - 국제선 신규노선 개설지원, 항공사 정차장 운영지원

□ 추진방안

- ‘해양치유자원 실용화기반 R&D 사업(17~19; 51억)’ 중심 연계사업 추진
 - ‘19년 상반기 공포 예정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해양치유 연관산업 예산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 등

위치도(조감도)



2) 항공특화산업단지(MRO) 조성

- 대상위치 : 망운면 피서리 일원 / 349,941㎡
- 사업규모 : 367억 원(군비)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무안군

□ 주요 사업내용

- 무안국제공항 인근 항공정비(MRO)특화산업단 조성
 - 편입토지보상비, 실시설계용역, 산단조성 등
 - 항공부품 정비시설·계류장·부대시설 등 조성
- 외국기업 투자유치 및 MRO 관련 부품소재업체 이전 추진

□ 추진방안

- 산업단지 지정 계획 승인 및 단지 조성공사 착공
- 감정평가 및 편입토지 협의 보상
- 항공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추진

위치도(조감도)



3)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남악 조성

- 대상위치 : 삼향읍 남악리 일원
- 사업규모 : 641.6억 원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무안군

□ 주요 사업내용

- 남악신도시 체육시설 확충(59,060백만원)
 - 생활밀착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 남악천 생태하천 복원(3,500백만원)
- 생활권 주변 다양한 녹색 썸지 숲 조성사업(400백만원)
- 남악시가지 가로수 수종 교체 등 정비 추진(1,200백만원)

□ 추진방안

- 남악천 생태복원 : 사업기관(목포시,수자원공사,영산강유역청)협의 및 투융자 심사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후 국비 확보 추진
- 체육시설사업 등 관련 생활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등

위치도(조감도)



5.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

1) 사포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 대상위치 : 학교면 곡창리, 월호리 일원 / 610,155㎡
- 사업규모 : 9,013억원(민자), 고용창출 900명
- 사업주체 : 전라남도, 함평군, (주)서진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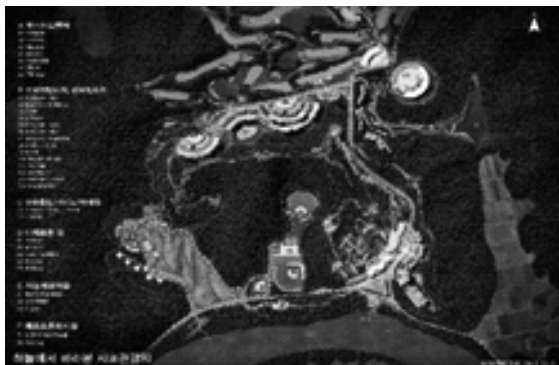
□ 주요 사업내용

- 루지어드벤처·휴양콘도·거리상가·컨벤션센터 등 각종 부대시설 건립
 - 숙박시설(휴양콘도 3동, 관광호텔), 상가시설(스트리트 상가, 면세점 등)
 - 운동오락시설(루지어드벤처, 전망대 리프트)
 - 휴양문화시설(야생화정원, 트레킹코스, 국제학교, 온천장)

□ 추진방안

-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요청, 고시 등
 - `19. 9.(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요청)
 - `20. 5.(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및 고시)
 - `20. 8.(착공), `24. 12.(완공)

위치도(조감도)



2)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유치

- 대상위치 : 신광면 송사리 일원
- 사업비 : 9,000억 원
- 사업주체 : 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함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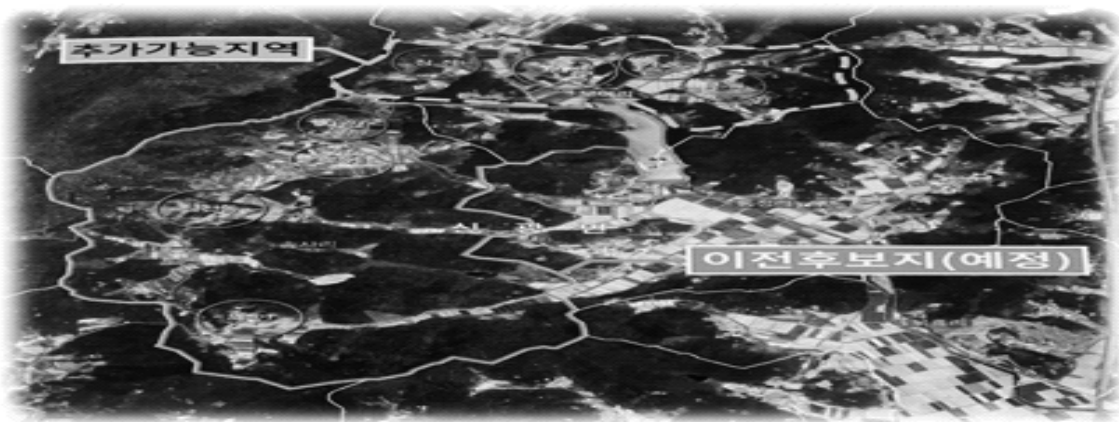
□ 주요 사업내용

- 국립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 면적: 612ha(국공유지 60, 사유지 552)
 - 축산자원개발부 4개 부서 , 202명 직원 이전
 - 보유증축: 젖소300두, 돼지 1,000두
- 가축 개량·초지 사료 개발·스마트축산 등 연구

□ 추진방안

- 이전 종합계획 수립 지원
 - 이전규모, 사업비,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지역파급효과, 경제성 분석 등
- '20.12.(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21.12.(예산요구 반영 및 이전 추진), '22~'24(토지매입 및 보상), '24~'25(준공), '27.(이전)

위치도(조감도)



3) 내륙권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 대상위치 : 해보면, 대동면 일원
- 사업비 : 264억 원
- 사업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함평군

□ 주요 사업내용

-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92억원)
 - 치유센터 2,450㎡, 판매 및 숙박시설, 주차장(2개소) 28,612㎡ 등
- 용천사~영산강 사이클로드(85억원)
- 용천사~영산강 가로숲길 조성(6억원)
- 공원별 테마꽃단지 및 야간관광상품 개발(81억원)

□ 추진방안

- 군 관리계획 변경(농지분야, 환경분야)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자전거도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천사권 숲길조성, 가로수 신규식재 정비, 가로화단 조성 등, 테마 꽃 단지 기반조성 등

위치도(조감도)



6.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1)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대상위치 : 백수읍 상·하사리, 약수리/ 10km²
- 사업비 : 5.278억 원(국·도비 1,528, 민자 3,750)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전력,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 주요 사업내용

- 기존 발전단지와 연계한 ESS 등 실증단지 조성(300억원)
- 방조제 축조 및 농업용수 확보(960억원)
- 풍력·태양광발전단지 조성(3,750억원)
- 변전소 설치(268억원)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10km²)

□ 추진방안

-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에 사업 계획 설명 및 건의
 - 국고확보 활동 전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다양한 에너지 체험시설 조성으로 교육·관광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위치도(조감도)



2) 동서 내륙 횡단철도 건설

- 대상위치 : 광주 송정역~영광 구간/ 37km
- 사업비 : 6조 원(국비)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

□ 주요 사업내용

- 전남 영광 ↔ 대구 228km (대구~경주 : 기존 경부고속선)
 - 달빛내륙철도 건설 계획에 광주 송정역↔영광 구간 포함
 - 설계속도: 200~250km/h(소요시간 : 70분)
- 한빛원전과 월성원전을 동서로 연결하여 원전 소재 지역의 상생 발전 기반 마련

□ 추진방안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 추가 검토사업으로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건설 계획의 영광 연결계획 반영 요청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수정 요망

위치도(조감도)



3) 그린카 10만대 생산기지 구축

- 대상위치 : 대마산업단지 일원 / 산단 부지 중 547km²
- 사업비 : 3,000억 원(기금 500, 민간 2,500)
- 사업주체 : 영광군, 민간기업 등

□ 주요 사업내용

- 생산 클러스터 기반구축, 그린카 관련 기업 유치 등
 - 그린카 기술지원 및 비즈니스센터 운영
 - e-모빌리티 역량강화 사업 지원
- 30개 기업유치, 2020년 10만대 생산, 1,500명 고용창출

□ 추진방안

- 그린카 관련 유망 기업 유치(연중)
 - (주)CNK : 16,528m², 50억 원, 전기이륜차 제조
 - (주)DS이노베이션 : 16,528m², 60억 원, 전기이륜차·전동휠 제조
- 투자협약기업 조기 착공 유도

위치도(조감도)



7.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1) 해양치유 거점단지 조성

- 대상위치 : 신지면 일원
- 사업규모 : 1조원(공공 3,000, 민자 7,000)
- 사업주체 : 해양수산부, 완도군 등

□ 주요 사업내용

- 해양치유센터 건립 추진(2019~2021.6.)
 -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개발, 전문인력양성 및 치유자원 공급·관리 등
- 해양치유 거점단지 시설 조성 및 클러스터화(2019~2030)
 - 해양치유공원, 해양치유 전문병원, 해양자원관리센터 설립 등(공공)
 - 해양치유 전문병원, 해양건강리조트, 해양바이오연구소 및 기업 등(민간)

□ 추진방안

- 해양치유자원 실용화기반 R&D사업('17~'19: 51억) 연계사업 추진
 - '19년 상반기 공포 예정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해양치유 연관산업 예산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 등

위치도(조감도)



2) 노화~소안간 연도교 건설

- 대상위치 : 구도~죽도(소안면)
- 사업규모 : 876억원(2,068m; 교량 1,350, 접속도로 718)
- 사업주체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주요 사업내용

- 구도~소안(죽도)간 연도교 건설사업
 - 전복·해조류산업도로, 관광산업도로로서 시너지효과 창출 및 섬 주민의 생활 안정화 도모
 - 노화~소안간 연도교 건설사업 중 1차 구간인 노화~구도간 연도교(1,620m; 교량 780, 접속도로 840)사업완료(17.6.)

□ 추진방안

-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예산 반영 등 국비 확보 지속 추진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안(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 연내 통과시, 예타 면제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추진 탄력 예상

위치도(조감도)



3) 서남해안 관광도로(완도~고흥) 건설

- 대상위치 : 구도~죽도(소안면)고금~금일~약산~금당~거금(고흥)
- 사업규모 : 9,000억원(해상교량 7,300, 접속도로 등 1,700)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

□ 주요 사업내용

- 금일(일정)~약산(당목)간 연륙사업
 - 해상교량 L=3.95km, B=11.5m / 접속도로 L=3.08km, B=11.5m
- 금일(일정~신도)~금당~고흥(거금)간 연륙사업
 - 해상교량 L=6.27km, B=11.5m / 접속도로 L=14.1km, B=11.5m(기개설 15km)

□ 추진방안

- 제4차 전라남도종합계획 등 법정계획 반영 및 국비 확보 지속 추진
 -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국토교통부)’에 사업 반영
 -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및 국도 27호선 기점(고흥 금산⇒완도 고금) 변경 등

위치도(조감도)



8. 희망찬 군민 반영하는 진도

1) 국도 18호선 조도 연장 (조도대교)

- 대상위치 : 임회면 진도항~조도면 하조도
- 사업규모 : 8,000억원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

□ 주요 사업내용

- 해양치유센터 건립 추진(2019~2021.6.)연도교 건설사업
 - L=12km (해상교량 2.5km, 해저터널 5km / 접속도로 4.5km)
 - 해상교량 선 추진 후, 해저터널 구간 추진
- 국도 18호선 노선 연장계획의 국토계획 반영

□ 추진방안

- 제4차 전라남도종합계획 등 법정계획 반영 추진
 - 제5차 국토종합계획 하위계획(19.6.)인 전남도 종합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관련사업 반영 건의(*경제적 타당성보다는 균형발전차원에서 접근 필요)

위치도(조감도)



2) 해안일주도로 국도 77호선 승격

- 대상위치 : 진도군 일원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

□ 주요 사업내용

- 국도 77호선 경유지 변경(진도 해안 일주도로 포함)
 - 기존(해남군 우수영), 변경(진도군 해안도로)
- 국토 77호선 노선 연장계획의 국토계획 반영

□ 추진방안

- 제4차 전라남도종합계획 등 법정계획 반영 추진
 - 제5차 국토종합계획 하위계획(19.6.)인 전남도 종합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관련사업 반영 건의(*경제적 타당성보다는 균형발전차원에서 접근 필요)

위치도(조감도)



3) 진도 국제항 조성

- 대상위치 : 임회면 연동리, 지산면 심동리 일원
- 사업비 : 42,815억원(국비 8,596, 민자 34,219)
- 사업주체 :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진도군

□ 주요 사업내용

- 연안여객 및 화물 운송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신규 계획된 여객 및 화물부두(카페리선 전용부두) 중심 접안·하역능력 향상
- 국제항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 확대 및 시스템 구축
 - 국내외 관광객 대비 통관시설,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터미널 설립
 - 물류·관광·산업시설의 복합 항만 배후단지 조성 추진 등

□ 추진방안

-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사업반영 추진
 - 중국과의 지근거리(567km) 이점을 토대로 무역항으로 승격 건의 및 국제항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위치도(조감도)



4) 국립 현대미술관 진도관 건립

- 대상위치 : 의신면 일원(운림산방 인근)
- 사업규모 : 450억원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주요 사업내용

- 전시실, 창작체험실 등을 갖춘 한국화미술관 시설 건립
 - 상시 전시, 교육, 창작, 교류를 통합한 종합센터 건립
 - 전국 최대 국전 작가 및 작품 전시, 한국미술사 콘텐츠 전시공간 마련
- 한국화미술관과 연계, 민속예술 분야 인재발굴 및 육성을 위한 대학 건립 추진
 - 전통 문화예술분야에 특화된 고등교육기관 설립 필요

□ 추진방안

-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 육성분야 국비반영 건의
 -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대한민국 소치미술대전’ 등 시설 설립 타당성 및 공감대 확보를 위해 국제 및 국내대전 지속 개최

위치도(조감도)



5) 친환경 약용작물 치유센터 조성

- 대상위치 : 진도읍 포산리 1746-27(진도군 농산물가공센터 내 부지)
- 사업규모 : 60억원(국비 30, 군비 30)
- 사업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진도군

□ 주요 사업내용

- 친환경 약용작물 치유센터 조성
 - 약용작물 연구·분석시설, 치유와 힐링의 공간 조성
 - 각종 약용작물 효능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연구를 통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화 육성
- 친환경 약용작물의 진도 브랜드 확보
 - 울금, 구기자, 쑥 등

□ 추진방안

-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국비 지원 건의
- 약용작물 신성장 클러스터 구축

위치도(조감도)



9. 희망이 샘솟는 신안

1)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 건립

- 대상위치 : 신의면 하태동리 438-4일원 / 부지면적(104,781㎡)
- 사업규모 : 150억 원(국비 70, 군비 80)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신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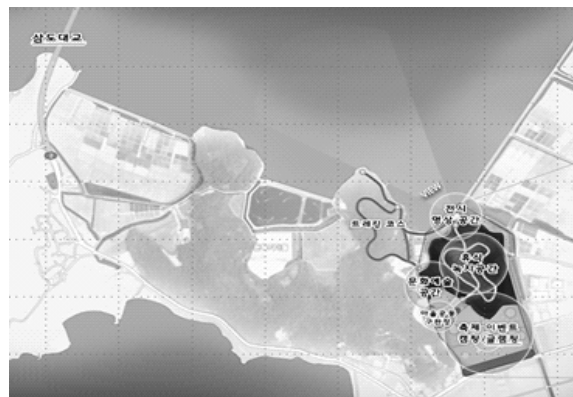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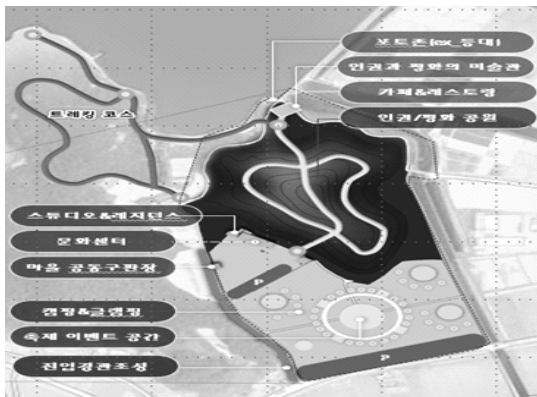
□ 주요 사업내용

- 미술관 조성(작은미술관 바다경관, 옥상명상카페)
- 인권평화순례길(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자연숲)
- 커뮤니티공간(주민의 문호, 커뮤니티 미술행동)
- 레지던스 스튜디오(작가들의 창작공간)
- 비엔날레 공간(베니스비엔날레와 같은 전시공간)

□ 추진방안

-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회 개최, 2020년 균특사업 예정
- '20.1.~9.(실시설계용역, 공공디자인 심의, 계약 심사 및 사업발주)

위치도(조감도)



2) 읍·면 - 1미술관·박물관 조성

- 대상위치 : 신안군 일원
- 사업비 : 61,722백만원(국비 23,737, 도비 676, 군비 37,309)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신안군

☐ 주요 사업내용

- 읍·면별 1미술관·박물관 조성(미술관 7, 박물관 4) 예정
 - 완료 4: 압해(저녁노을 미술관), 임자(조희룡기념관), 흑산(박득순미술관), 암태(에로스서각박물관)
 - 추진중 1: 안좌(가칭 김환기 미술관)

☐ 추진방안

- 읍·면별 1미술관·박물관 조성을 통한 주민 문화향유 및 관광 명소화
 - 미술관 : 신의(동아시아 인권·평화 미술관), 자은(박은선 조각공원·미술관), 장산(정's 패밀리 갤러리)
 - 박물관 : 지도(전통자수 박물관), 압해(신안조선장 전수교육관), 하의(대한민국 정치사진 박물관)

위치도(조감도)



3) 사계절 꽃피는 1004섬 공원화사업

- 대상위치 : 신안군 일원
- 사업규모 : 200억 원
- 사업주체 : 신안군

□ 주요 사업내용

- 읍·면별 사계절 다채로운 섬 경관 조성
- 섬 대표 수종 지정 중점 식재 및 관리
- 꽃 축제 개최
 - 선도 수선화(3월), 임자 튼リップ(4월), 도초 수국(6월), 압해 애기동백(12월)

□ 추진방안

- 사계절 꽃피는 1004섬 공원화 사업 추진
- 섬 별 꽃 정원으로 1004섬 전체를 국가 섬 정원으로 지정 받아 세계 꽃 박람회 개최

위치도(조감도)



10.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

1) 지역자원 활용 MTV(Media-Tech Village) 구축

- 대상위치 : 용산면 일원(*'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사업 연계)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사업내용

- 장흥교도소 중심 전통문화 촬영세트장 조성 및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장르별, Value Chain(기획·제작·배급)별, 인력그룹별 수요 파악 및 유치
- 미디어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연관산업 집적단지 조성
 - 영화방송, 공연산업·방송기기, 영상음향기기,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등 육성
- ICT 기반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아카데미 설립·운영
 - MIT Media Lab, 카네기멜론 Entertainment 기술센터 등 벤치마킹

□ 추진방안

- 지역소재 문화예술 및 CT 관련 유관기관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 광주·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CGI센터, 혁신도시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분야 지원사업 선정 추진
 - 문화기술 R&D지원사업, 지역문화/문화콘텐츠전문가양성사업, 창업인력양성사업 등

위치도(조감도)



CHAPTER

05

계획의 추진 방안

1.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2. 민간자본 유치 촉진 방안
3. 계획의 실행력 강화 방안

05

계획의 추진 방안

1.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1) 재정운용 및 재정투자의 방향

☐ 기본 방향

- 사업추진시 재원의 공동분담 및 실천적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계
- 지방재정은 지역민에 우선하는 지출구조를 형성하되, 재정지출의 파급효과 극대화를 지향
- 자율적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민 소득제고 중심의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경영 수익사업 우선 활성화
- 경영마인드 제고로 재정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안목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투자 지향

☐ 투자사업 우선순위 설정

-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계획의 실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우선순위에 기초한 단계별 재원배분 계획 수립 필요
- 파급효과가 큰 전략적 사업과 민간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와 연계 가능한 광역사업 추진
- 규모성과 소득연계성에 기반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사업 및 지역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 우선 추진

- 지역의 독특한 환경과 문화적 유산을 유지·고양시킬 수 있는 정책 사업,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소요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 등 우선 추진

□ 자체재원 조달기능의 강화

- 지방세 수입의 증대
 - 탄력세율을 적용 가능한 세목에 대해 지역적, 시기적 경제동향에 따른 세원 환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세율을 운용하고, 은닉 및 탈루세원 적극 징수
- 세외수입의 확충과 과학적 관리
 - 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해 물가상승 등의 요율인상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지역간 수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요율의 신축적 책정 및 신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대상 발굴
 -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서비스 수혜 및 비용부담 일치화, 경영효율화 유도
 -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미관리상태의 공유재산을 정밀 조사하여 재산수입원 확충 및 무단 점유된 공유자산의 수익화 촉진
 - 도로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상하수도 사용료, 입장료수입 등 세외수입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내실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정부 사무 혹은 사업 중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를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복식부기 개념에 의한 철저한 사업성 분석 후 추진
 - 공공성을 배제한 수익성 위주만의 사업이나 민간부문의 영역을 배제하고 재정지출의 경감을 위한 사업도 모색

□ 외부재원의 전략적 동원과 활용

- 민자유치 사업과 민간투자 유치
 - 민자유치 대상 사업선정시, 해당 사업의 투자수익성 검증과 분석자료는 물론 토지매수의 용이성, 예상되는 민원 및 그의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가능성 있는 사업자 측에 제시
 - 소규모 민자사업의 경우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 등 역외 잠재 투자자를 적극 발굴하여 참여 유도
-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 확보
 -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무조건적 민간위탁을 지양하고, 민간부문의 경쟁력이 충분한 분야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선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효율성 담보
- 지방채의 전략적 활용
 - 지방채를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투자효과가 장기적인 공공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지방세보다 이론적으로 우위(세대간 형평성 제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에 있다는 장점 보유
 - 따라서 상하수도나 공공체육시설 등 수익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적절한 지방채 활용 필요
 - 이를 위해 지방채의 이자지급조건, 상환방법 등을 다양화하여, 여러 계층 채권수요자들의 구매욕구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 필요

□ 지방분권 정책의 적극적 활용

- 유사한 지방재정 환경을 가진 서남권 자치단체들과 연대 강화
 - 향후 국세의 지방세 이양효과가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서남권 자치단체들과의 연대 노력 강화

-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또는 역교부세제도의 시행, 시·군 자치단체의 기준재정 산입률 차등적용, 행정기능의 지방분권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요 확보 등을 위해 자치단체간 연대 강화
- 국고보조금 지급시 차등보조율 강화 적용과 기준보조율 조정을 위한 유사 자치단체들과 연대 노력
- 전문가들과의 연계 강화
 - 향후 중앙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부응하여 전문가들을 활용한 자체 사업기획능력 강화

□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파급효과 극대화

- 재정투자의 파급효과 극대화
 -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해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군소사업을 지양하고, 지역민에게 장기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집중투자 모색
 - 투융자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및 수익성 분석을 시도하고 투융자심사 체크포인트를 설정하고 심사방법의 표준모델 개발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각 부서의 사업추진은 본 계획의 주요사업을 최우선하여 반영
- 재정지출의 투명성 확보
 -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자체심사 및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사전 평가, 추진과정의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실시
 - 사업구상, 추진과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홈페이지 및 홍보지 등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재정지출에 대한 관심유도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자진 신고제 하에 각종 사업과 관련된 부패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조직의 시스템 보완에 활용

□ 내실을 중시하는 투자

-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 증대
 - 그간의 민선자치를 통하여 도로, 공원, 회관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확충되었으나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빈약
 - 서남권 시군의 경우 하드웨어가 충분하게 구축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향후 투자시 콘텐츠 구성 및 운영관리 또한 중요
- 전시성 사업의 지양
 - 주민의식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전시적 사업의 정치적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며, 대부분의 지역민은 전시효과를 노린 시설이나 사업추진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현실을 감안
 - 결국 내실 위주의 투자사업을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비용/편익분석 등 과학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선정

□ 주민 참여 및 계도형 투자 모색

- 주민 밀착형 투자사업의 경우 관련 주민들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대한 일정부분 투자비 부담과 사후 관리를 모색하고, 일정목표 또는 사업성과를 달성한 경우 추가적인 사업 시행
- 특정 지역의 소규모 사업 등에 있어 소액 기금을 통한 지역주민 및 역외 출향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방식 고려

2. 민간자본 유치 촉진 방안

1) 프로젝트 추진 방식

☐ 사업 주체에 따른 추진 방식

- 공공 주도형(공영개발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사업추진 주체 및 사업관리 주체가 되는 개발방식
- 민간 주도형(민간개발방식)
 - 민간기업 또는 개발업체, 건설회사, 금융기관 등의 컨소시엄이 개발사업 추진 및 사업관리 주체가 되는 개발방식
- 민관 합동형(민관합동개발방식)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제휴(PPP, Public-Private Partnership)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주체가 되는 개발방식
 - 민관합동법인이 사업추진 주체가 되거나 공공과 민간부문이 협약을 체결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

☐ 공공 주도형

- 장점
 - 사업추진의 확실성이 높고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도 사업추진 가능
 - 사업추진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고 체계적 개발 가능
 -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및 공공귀속이 가능
 - 국가차원의 개발계획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단점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지연 또는 중도 포기 발생 가능
- 정치적 목적 등에 의한 비합리적 사업 추진으로 재정적 부담 발생 및 투자비 회수의 장기화 가능성
-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 부족
- 지역 및 지자체간 갈등 및 이해 상충 시 사업 표류
-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신속한 반응이 어렵고, 수익 창출을 위한 민간자본만큼의 창의성과 효율성 발휘가 어려움

□ 민간 주도형

○ 장점

- 수요자 직접 개발 방식일 경우 투자자원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개발 후 곧바로 사업 추진 가능
- 금융시장·부동산 시장 등의 환경 및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공영역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 접목 가능
- 정치적, 정책적 목적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배제

○ 단점

- 개발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일관성 유지가 어려움
- 개발이익의 사유화로 공공 주도형보다 공익성이 낮을 수 있음
- 사업성을 강조한 기반시설 및 공익시설의 과소공급 문제 발생 가능
- 부실사업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의 공신력이 낮음
- 사업 지연 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고, 고용 및 지역개발 효과 등을 고려한 개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민원문제에 취약하여 민원문제 발생 시 비용증가, 사업장기화 초래 가능성

□ 민관 합동형

○ 장점

- 민간자본 참여로 투자자원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
- 공공부문의 공신력과 민간부문의 인적자원 및 창의성을 접목할 수 있음
- 수요자의 니즈(Needs)를 상당부분 반영하는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
- 금융시장 등의 상황변화 및 환경변화에 대처 용이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접목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이 가능
- 민간개발방식에 비해 민원문제 해결 용이

○ 단점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 불명확할 경우 공공주도의 사업추진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
- 공익과 사익의 우선순위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 해당 문제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개발사업 참여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된 공정성 시비를 우려하여 공공부문이 매우 소극적일 수 있음
- 수요자의 니즈(Needs) 및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반영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따름⁹⁾

2) 민간자본 유치 방안

□ 사업추진 여건 및 특성에 따른 추진방식 선택

- 전반적인 개발 여건, 공익성, 경제성을 감안하여 추진방식을 선택
- 공익성이 우선시되는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은 최대한 공공 주도형으로 추진

9) 이상의 내용은 국토교통부(2010),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해안권 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에서 발췌·정리

-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연관기업 혹은 콘소시엄 형태(대형·장기사업)의 민간 주도형 방식으로 추진
- 지나치게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민간 주도로 추진 시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민관 합동형으로 추진

□ 규제자유특구제도 활용 극대화

- 새롭게 육성할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통해 규제를 해제하고 민간자본 유치
- 해양에너지, 친환경에너지(수소·LPG)추진선박, 수상비행기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사업의 입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 전라남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 대상 선정

□ 자치단체간 연대와 협력

- 개별 시군 차원에서 추진했던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9개 시·군 공동 ((가칭)서남권투자유치추진단)으로 추진
- 시·군별 역할분담을 통해 목표기업 선정 및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차별화된 투자유치 노하우에 대해 상호교류 추진
 - 공동 투자유치를 통해 성공확률을 높이고 시너지효과 창출

□ 투자유치가 가능한 기업 선별 및 역량 집중

- 목표 기업에 역량 집중
 - 전라북도에서 투자유치에 성공한 (주)LS전선 사례로 볼 때 특정기업 대상 TF팀 구성을 통한 역량 집중 필요

- 현재와 같이 저인망식 투자유치 시스템보다는 목표기업을 선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
- 특히 공장은 서남권 지역에 소재하지만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을 1차 목표로 우선적 본사 이전 추진(*본사 이전이 어려울 경우, 생산시설의 현지법인화 유도)
- 출향민이 CEO이거나 창업주인 기업 유치 추진
 - 전남지역 태생으로 성공한 기업인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집중 투자유치 추진
 - * 전남지역 CEO 리스트('14년 기준) : 현대자동차 김충호 사장, 한국시티은행 하영구 은행장, 두산건설 양희선 사장, 사조산업 김정수 사장, 현대백화점 이동호 사장, 대신증권 나재철 사장, 오비맥주 장인수 사장, 서울보증보험 김병기 사장, 부영주택 이종근 회장, 삼양사 문성환 사장, 호남건설 전중규 부회장, 가온전선 김성은 부사장, 교보증권 김해준 사장 등
- 히든챔피언 및 월드클래스 300 중견기업 유치 추진
 -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유치가 쉬운 우수 중견기업 리스트를 확보하고 유치 총력 추진
 - 특히 노동집약형으로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자유치 추진
 - * 태평양물산(경기 안산), 드림텍(경기 성남), 파트론(경기 화성), 이랜텍(경기 수원), 한세실업(서울 영등포), 솔브레인(경기 성남), 루멘스(경기 용인), 동진세미켐(인천 서구), 토비스(인천 연수구), 국도화학(서울 금천구), 이라이콤(경기 수원), 엠케이전자(경기 용인) 등

3. 계획의 실행력 강화 방안

□ 국가계획 및 법정계획에 반영

-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상 추진되는 남해안권발전계획에 우선 반영 추진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4차 전라남도종합계획에 반영
 - 국토종합계획의 전라남도 편에 발굴 프로젝트 반영 추진
 -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전라남도종합계획 및 전라남도 추진 핵심사업(ex. 에너지산업/남해안신성장관광벨트/바이오-메디컬/스마트블루시티 등)에 반영

□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용

- 다(多)부처 지원사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공모사업에 서남권 9개 시·군 공동 발굴사업 신청 검토
 - 전국적으로 시도별 1개 이내, 10개 내외의 예산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9개 시·군 공동 발굴사업 신청시 우선적으로 사업비 확보 가능 예상
- 2020년부터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공동 신청 추진
 - 발굴된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화하고 서남권 9개 시·군의 역할분담
 - 주관 정부부처를 선택해 9개 시·군이 공동으로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사전 정지작업 추진
-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부합한 시·군 연계협력형 사업추진을 통해 자치분권시대 지역발전 新모델 정립 및 우수사례로서 국비지원 확대 유도
 - 9개 시·군이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공동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지원의 명분 획득

□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광역행정협의회보다 실행력이 높은 추진단 운영 검토
 - 9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상설기구로서 ‘(가칭)서남권발전추진단’ 등 별도조직 구성 및 운영 검토
 - 매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서남권 공동의 예산을 검토하고 의결
 - 상설 사무국을 9개 시군 공동출연으로 마련하고 서남권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발굴 및 추진방안 구체화
- 9개 시군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서남권 종합발전 기본구상 발굴 프로젝트의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해 환류(feedback)체계 마련
 - 주관 시군과 주관 실과 및 참여 시군/참여 실과 사이의 구체적 역할분담과 성과 창출을 위한 협업방안 마련

□ 경제적 연대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예산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지방재정여건을 고려, 시군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9개 시군 공동투자를 통해 추진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및 부처예산 확보시, 시군 단독보다는 공동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 제고
- 인력의 교류를 통한 연대 효과 제고
 - 9개 시군 본청, 사업소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력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시군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발굴사업의 주관부서와 협력부서의 인력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9개 시군 전체의 공동 인력풀(pool)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배치도 검토

서남권종합발전 기본구상

연구진

| | |
|-------|----------------------|
| 연구총괄 | 김현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내부연구진 |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 김진이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 나강열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 박웅희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 심미경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 정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 조승희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 박은옥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
| | 오재윤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
| | 홍영성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
| 외부연구진 | 한원희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 |
| | 최정식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 |

